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2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2호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불자 크리에이터 양성해 Z세대 매료할 콘텐츠를

[기획] 이젠 Z세대 포교다

① 왜 Z세대를 주목하는가
② 유튜브 속 불교 안보인다
③ Z세대 포교 콘텐츠 제언

Z세대 하루 4.4회 유튜브 시청
불교는 법문 · 방송 재송출 그쳐
기독교, 연예인 통해 조회수 UP

전직 불교BJ "경직돼 자체 검열"
원빈 스님 "제작능력 부족, 한계"
팀 구성 · 네트워크 필요성 제기

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에는 사실상 이들을 위한 불교콘텐츠가 없다는 분석이 본지 조사결과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 개선과 불교계 콘텐츠 확보, 인재 양성의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Z세대 대세 플랫폼 '유튜브'

10대와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Z세대는 대표적인 인터넷 동영상 네트워크 '유튜브'의 이용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닐슨 코리안클릭'의 'Z세대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분석'을 보면 Z세대들은 하루 평균 유튜브를 4.4회 실행했고, 51.5분 이용했다. 일평균 이용 시간이 10분대에 머문 다른 세대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즉, Z세대 포교를 위해서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유튜브 속 불교 콘텐츠는 얼마나 될까? 유튜브에서 '불교' 주제어로 검색 시 연관콘텐츠는 16만 8000개로 '기독교'의 49만 5000개의 34% 수준이었으며 '부처님' 주제어 검색 시 연관콘텐츠도 8만 9400개로 '예수님'의 60만 5000개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영문 검색 시 차이는 더욱 심각했다. 'Buddhism' 연관콘텐츠는 206만개인 반면 'Catholic' 421만개, 'Christianity' 300만개가 검색됐다. 'Buddha' 연관콘텐츠가 394만개 검색됐지만 'Jesus'는 무려 5330만개나 검색됐다.

불교 콘텐츠 '다양성' 부족

유튜브 속 이웃종교 콘텐츠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콘텐츠 양과 조회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심각했다. 특히 유튜브 내 각 종교의 조회 수 상위 10위 내 콘텐츠를 비교해 보면 불교는 개신교계 콘텐츠에 비해 다양성이 떨어진다.

먼저 기독교의 '하나님' 연관 콘텐츠는 445만회를 기록한 기도문을 비롯해 370만 9000회를 기록한 기도문, 274만 1000여 회를 기록한 기도문, 229만 5000회를 기록한 시편 등 1~4위가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콘텐츠였다. 하지만 5위부터는 연예인 합창단 공연(221만 8500회), 7위 가수 알리의 토크콘서트 힐링유(192만 2000회), 8위 가수 이정의 찬송가(192만회), 10위 가수 김범수의 찬송가(171만 6000회)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9위에 CCM모음(178만회)도 있었다.

여기에 '예수' '예수님' 연관콘텐츠의 경우 몰래카메라가 조회 수 1740만회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찬송가 뮤직비디오(159만 7000회)를 비롯해 또 다른 몰래카메라(128만 7000회), 율동 영상(57만 7000회), 애니메이션 예수(43만 7000회) 등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불교콘텐츠 중 '부처' '부처님' 연관콘텐츠는 조회 수 상위권 대부분이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영상이었으며, 이외에는 경전 독송이 전부였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의 경우 255만 7000여회부터 10만회까지 1위부터 6위까지와 8위와 10위를 차지했다. 7위에는 애니메이션 붓다(15만회), 9위는 '명상의 말씀'(12만회) 만이 위치했다.

최근에는 광덕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의 일대기와 법문이 유튜브에 등장하고 있지만 조회 수는 개당 1000회 아래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유튜브 불교콘텐츠는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의 프로그램 재송출로 채워지고 있다.

불교 크리에이터 지원을

구희철 절오빠절언니 운영자는 "철없는 시도가 많아야 그 중 대중,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나온다"고 말했다. 구 운영자는 "불상을 옆에 놓고 가상토크를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스님이 즉문즉설을 한다든지 다양한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도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결국 업로드 차원에서 자체검열이 되고야 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시대를 맞아 불자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젊은 세대 포교에 나서고 있는 원빈 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문을 전하고 있지만 혼자서 영상을 편집하는데 한계를 느껴 2년 전부터 유튜브 영상서비스는 중단했다"며 "유튜브에서 'IGO절RUN' 이름으로 사찰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강산, 템플스테이 체험기를 전하는 무아TV 등이 있다. 보다 많은 크리에이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편집과 제작 등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교 교수는 "좋은 설법 등 콘텐츠를 가진 스님이 영상제작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촬영기술이 좋은 이들이 불교콘텐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찰 청년회를 중심으로 팀과 모임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튜브 속 '부처님'과 '예수'

Buddha 콘텐츠	394만개
Jesus 콘텐츠	5330만개
불교 콘텐츠 1위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255만회
기독교 콘텐츠 1위 예수 몰래카메라	1740만회



100인 佛心이 전한 가사의 무게

"가장 수승한 복전(福田)의 옷이로다. 받들어 수하노니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가사 · 장삼 공승제가 열렸다.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서울 목동 반야사 신도 100인이 동학사 승가대학 화엄학림 스님 100여명에게 올린 가사에는 인천의 사표로서 중생구제에 매진해줄 것을 바라는 서원이 담겼다. 스님들도 이를 느낀 듯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들며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외국인 눈높이 맞춘 마케팅 모색해야"

사업단, 13일 학술포럼 개최
"지자체 연계한 발전책 필요"
전문가들 실용적 방안 요구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학술포럼, 팸투어 등을 잇달아 실시하며 템플스테이 외국인 유치 확대방안 모색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불교문화사업단과 (사)한국관광학회는 2017 템플스테이 학술포럼 '템플스테이 외국인 유치 확대 방안'을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 비율은 2011~2014년 2만4000~2만5000명 선을 맴돌다 2015년 3만2337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들어섰다. 또한 올해 87개 사찰에서 열린 '봄 여행주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도 2632명(총 6058명 중 43.3%)으로 지난 여행주간 행사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사 결과 '재참가 의사' 비율은 10% 수준에 그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인 여행자의 시점에서 템플스테이 현황을 바라보고 개선책을 찾아야만 템플스테이의 미래 비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겸임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느끼는 템플스테이의 애로점에 대해 △지역 터미널의 외국어 안내 및 영문과 픽토그램 표기 부재 △온돌방 형태의 낯선 숙박환경 △각종 편의시설 및 편의용품 미흡 △좌식 식사 △발우공양에 대한 호불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교수는 크게 '시범사업 운영'과 '지자체 연계'를 꼽았다. 정 교수는 "서양식에 맞춰 침대 · 개별화장실 등 설치하는 수용태세 개선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한다"면서 "또한 템플스테이는 개별 사찰의 노력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순례길 등 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터미널 및 역사에서 사찰까지 이동하는 셔틀 운영 등 교통편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능해 · 대은 · 백운 · 지홍

6월 15일 후보 등록 마감
오는 7월 13일 선거 개최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선거에 능해 · 대은 · 백운 · 지홍 스님이 입후보했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6월 15일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前 총무부장 능해, 해동불교대학장 대은, 前 총무원 부원장 백운, 前 중앙종회 부의장 지홍 스님이 각각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선거는 7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이들 후보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당선 확정되면 신임 총무원장은 9월 23일부터 4년 임기동안 활동하게 된다. 〈사진은 가나다 순〉

김주일 기자


능해 스님


대은 스님


백운 스님


지홍 스님

●금산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수요일, 마음이 쉬는 수요일
전통산사에 머물며 마음 쉬는 도리를 깨우치시길 기원합니다.
금산사 주지 성우합장

마음쉬는 수요일



주요 프로그램 국보62호 미륵전 문화해설, 마음콘서트, 범종체험, 명상, 탁본체험, 사찰음식 체험



정관스님(사찰음식 대가)
· 백양사 천진암 주지
· Netflix'세프의 테이블' 시즌3 출연
· 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컬리너리 시네마 섹션 초청

마음쉬는 수요일 1박 2일
대상 : 18세 이상 성인(참가비 무료)
예약 : http://www.geumsansa62.com
문의 : 063-542-0048

해당 월 1일부터 예약접수 받습니다.
개인 접수합니다. 단체는 받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성인들만을 위한 행사입니다.
어린이 학생 동반은 불가하오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종무소 : 063-548-4441~2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http://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마음콘서트 출연진


6.28(수)
조정육(미술사가)
옛 그림에서 나를 찾다


7.26(수)
김용택(섬진강 시인)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


8.30(수)
명법스님
은유로 쓰는 나의 이야기


9.27(수)
정호승(시인)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


10.25(수)
임진모(음악평론가)
대중음악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후원 문화재청 전라북도 김제시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 함께 논한다

홍창성 교수, 〈깨달음과 역사〉 영문판 강연 나서

지난해 초 한국불교계를 뜨겁게 달군 소위 '깨달음 논쟁'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을까? 당시 수불 스님의 기고 '조계종지의 현대적 이해: 현응 스님의 발제문을 읽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대 철학과 교수가 최근 〈깨달음과 역사〉 영문판을 발간, 강연과 토론에 나선다.

아카마지(대표 김현진)는 6월 21·22·28·29일 오후 7시 총 4차례 걸쳐 서울 체부동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서 홍창성 교수 초청 〈깨달음과 역사〉 영어 강연을 연다. 눈여겨볼 점은 토론이 1시간으로 강연(50분)보다 길다는 것. 열린 토론을 바탕으로 강연자와 참가자들의 견해를 주고받기 위함이다.

홍창성 교수는 6월 12일 기자간담회서 〈깨달음과 역사〉 영문번역과 강연의 배경으로 '토론의 가치'를 꼽았다. 홍 교수는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사람들과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대중이 이해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토론해야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서양에서는 불교라고 하면 티베트불교가 전체인 양 소개된다. 동아시아불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불교가 무엇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불교가 말하는 깨달음 안에 '번뇌로부터 벗어난'이라는 고차원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언제부턴가 깨달음에 번뇌에서 벗어난 듯한 심오한 뜻이 생긴 것 같다. 삶과 세계를 연기와 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경지를 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 지난해 벌어진 온라인상의 '깨달음 논쟁'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 그는 "깨달음에 대해 정의를 내린 분들이 와주셨으면 한다. 한국불교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聖寶 '사리', 불자들 곁으로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9일 전국 국공립 박물관 소장 사리를 장기대여 형식으로 반환받아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반환되는 사리는 총 129과로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1차로 반환된 사리 40과 중 분황사와 무량사 사리는 원소장처에 봉안되며 나머지 사리는 조계사에 봉안된다. 사진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오른쪽 첫째)이 반환된 사리를 유리보관함에 봉안하는 모습. 노덕현 기자

"사찰 양식에 불교 환경가치 서려"

유정길 운영위원장, 2017 종교인대화마당서

종교환경운동과 일반사회운동의 차이점과 특징을 짚어보고, 종교가 지향해야할 환경운동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5대 종교 환경 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법일)는 2017 종교인대화마당 '종교환경운동은 일반사회운동과 무엇이 다른가'를 6월 14일 조계사 전법회관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불교계 대표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불교환경운동의 특징과 방법, 그리고 지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중중무진 인드라망의 세계관 △생명중심주의와 생태학적 전일론 △공사상, 무아, 불이사상 △불살생의 생명윤리 등 불교 생태사상을 소개하며 불교계 환경운동의 근본적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생태친화적이며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사찰 건축 양식과 발우공양·도량석 예불·방생문화 등이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불교의 전통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아름 기자

中·美 비교종교 보조국사 연구 고찰

보조사상硏, 정기 월례회서 각국 연구현황 점검



중국·北美 등 연구 동향 살펴
보조사상 미친 영향도 분석해
하반기, 禪·敎 부문별 조명한
보조연구 30주년 세미나 계획

"중국에서는 어느 선사도 보조 지눌과 같은 경전 조합을 제시한 적 없다."(곽뢰)
"북미지역에서 수행된 지눌의 연구는 북미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김지연)

보조국사 지눌(1158~1210·사진)의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6월 16일 서울 법련사 문화강당서 '보조사상 연구의 현 단계'를 주제로 12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국과 북미, 비교종교 부문에서의 보조 지눌 연구에 대한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 논문들이 발표됐다.

中-보조 禪法 연구 집중

한국과는 가장 가깝고, 불교 교류사적으로도 친밀한 중국의 경우 보조 지눌의 연구는 그의 '선법(禪法)'에 집중돼 있다.

'중국학계의 보조 지눌 연구'를 발표한 곽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은 "보조 지눌 연구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 많아졌다. 연구 내용 대부분은 그의 선사상이며, 연구자는 연변대학 교수와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연구원은 보조 지눌 연구의 1세대 학자인 양증문, 2세대 학자 위도유, 3세대 학자 이해도의 연구를 소개했다.

양증문은 보조 지눌의 선법을 진심불성론·돈오점수의 해탈론·수행실천론 등 '삼론(三論)'으로 개괄하고 있다. 위도유는 보조 지눌이 기존의 중국 선사와는 달리 〈금강경〉과 〈육조단경〉, 〈대혜어록〉, 〈신화엄경론〉 등의 전적으로 자신의 선법과 사상을 완성했다는 데 주목한다. 이해도의 경우 지눌의 '진심(眞心)' 사상은 혜능-신회-종밀로 이어지는 이론과 체계를 계승하며, 특히 종밀의 영지심(靈知心)에 기초함을 밝힌다.

北美-번역부터 연구까지 활발

북미 지역의 보조 지눌 연구는 저서 번역과 그의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등 포괄적이다. '북미불교에서 보조 지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발표한 김지연 금강대 HK연구교수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보조 지눌 관련 연구자는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박성배 스토니브룩대 교수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 칼리지 교수 △로버트 지멜로 노트르담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연구논문과 지눌 저서 번역을 통해 그의 사상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교수는 "지눌에 대한 북미불교의 연구, 특히 버스웰 교수의 연구는 한반도 승려인 보조 지눌을 아메리카 대륙에 옮겨놓았고,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도날드 로페즈, 도날드 미첼 등에 기본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북미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류제동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그리스도교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조사상 연구 30년'을 통해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론과 칼 바르트·토마스 머튼 등의 사상을 비교 고찰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류 교수는 "길희성과 강건기, 노버트 쉬퍼스는 지눌과 그리스도교의 대표적 신학자 영성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돈오점수론이 그리스도교의 탁월한 신앙인들의 사상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월례회 이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보조사상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선·교·율 등 각 분야에서의 보조 사상 연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예방적 살처분, 학살을 멈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동물단체, 13일 기자회견

지난해 살처분만 3000만 마리
AI 상시 발병 근본책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책 아닌 대책이 되어버린 조류독감 발생 지역 농장 반경 500m 강제적 살처분을 멈춰야 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와 케어·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6월 13일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방적 살처분을 멈추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살처분 당한 닭·오리 숫자가 3000만 마리를 넘었다. 여름에도 조류독감이 발병하는 것을 보면 철새가 원인이라는 축산당국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류독감의 예방 대책으로 멀쩡한 닭과 오리를 무조건 땅에 묻는 일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는 6월 13일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인간의 무지와 무능, 탐욕이 만들어 내는 살생은 살인과 같은 것"이라며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객관적 조사를 위한 '조류독감 발생원인 규명위원회' 구성 △원인 파악조차 못하는 축산 당국에 대한 문책 △이윤만 추구하는 축산자본에 대한 조사 등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은 "이 세상은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구조다. 동물의 고통은 최종적으로 인간에 돌아가게 돼 있다"며 "현재 이뤄지는 집단 사육 방식의 폐해는 이제 인간에게 인과의 법칙으로 회귀하려 한다. 공존,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인수위원회를 찾아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인수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사노위 위원장 혜용 스님을 비롯해 위원 고금·혜문·도철·현성·지몽·우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 임명

문화사업단 국장에 묘인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12일 조계종 선암사 주지에 금곡 스님〈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묘인 스님을 임명했다.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사미계)했으며, 낙산사·보광사·흥천사 주지를 비롯해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호법부장, 제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및 총무원장종책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묘인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1998년 수계했으며, 현재 화엄탑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현대차 GBC · 영동대로 개발, 협치 필요”

GBC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재심의 결정에
봉은사대책위, 대규모 난개발 재검토 촉구

현대자동차 초고층 신사옥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5월 29일 열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재심의 결정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일조권 · 조망권 · 미세먼지 등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봉은사 대책위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대규모 난개발 재검토를 촉구했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는 6월 13일 서울시 재심의 결정에 따른 환영논평을 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천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환경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사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불과 258m 떨어진 봉은사에 대한 문화재영향평가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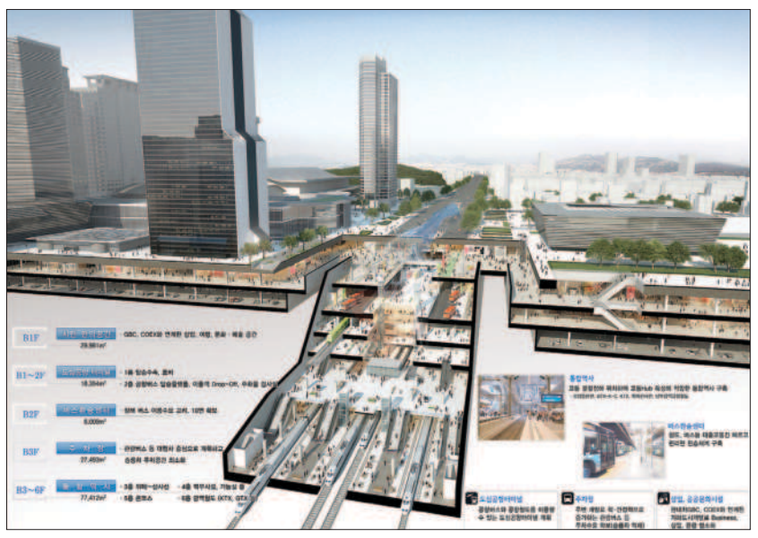
대책위는 이번 서울시 결정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환경영향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 개발은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에 이르는 지하광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으로, 1조2389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 950m구간에 지하6층 51m, 폭 70m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로써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책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시 주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청회에 참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인 교수(부산대 바이오환경

서울시 “환경문제 보완” 지시
봉은사 “문화재영향평가 하라”
영동대로 개발 공청회 앞두고
환경영향평가 문제 지적 나와

에너지학과)는 6월 14일 배포한 기고문을 통해 현대차 GBC · 영동대로 개발에 협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영동대로 사업은 복합개발이라는 말처럼 문제가 많고 심각한 사업임에도 관행적인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GBC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는 총론적이고 형식적인 매우 부실한 평가”라며 “최근 재조사가 결정된 4대강 사업도 잘못된 개발관행 사례”라고 강조했다.


영동대로 개발사업 조감도.

이 교수는 또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성, 인접성 측면서 볼 때 GBC와 영동대로 사업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평가하다보니 환경현황과 평가가 축소되고 누락될 수 있다”며 “두 사업으로 인한 복합오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조사기간 · 조사지점 · 조사횟수 축소 및 실측자료 부실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 고려 및 선택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없음 △미세먼지와 지반침하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대책 없음 △문화재 보호대책 없음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협치를 근간으로 한다면서 영동대로 사업에는 협치가 없다. 현재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잘못된 관행과 추종만이 있다. GBC는 사상누각이 되고, 영동대로 사업은 두더지 집을 만드는 도심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하자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회복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도-개인 종교 열망 간극 커진다”

성해영 교수, ‘한국사회와 불교 10년 성찰’ 토론회서

전통 제도적 불교 외에 개인의 수행 · 영적 체험 등 이른바 ‘종교 밖의 종교’가 더욱 급속화로 성행할 것이며, 불교는 더욱 근본적인 전략으로써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도출됐다.

신대승네트워크 · 정의평화불교연대 · 불교환경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한국사회와 불교 10년 성찰과 2025년 불교 미래 모색’ 1차 토론회를 6월 12일 안국동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한국 사회 종교지평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고 지목했다. 즉 종교 밖에서 일어나는 종교성이다.

종교인구 감소 두드러져도
종교콘텐츠 관심은 여전해
“근본적 차원서 정체성 모색”

성 교수는 ‘10년 새 종교인구 감소(52.9%→43.9%) 및 무종교인 증가(47.1%→56.1%)’로 드러난 통계청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것이 비단 종교 자체의 쇠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종교인의 비율도 낮아지고 특히 젊은층에서 종교를 떠나는 경향은 분명히 등장했지만 ‘영성’ 추구에 대한 움직임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화된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의식 변형의 체험과 영적 통찰을 얻겠다는 열망은 출판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성 교수는 불교명상 및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 증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불교인구는 761만 9000명(15.5%)으로 10년 전에 비해 300만 명 감소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불교의 종교성이 나타난 일부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졌다는 의견이다.

성 교수는 “이 현상은 제도로서의 불교와 삶의 의미 및 위안을 주는 불교적 가르침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명확히 드러낸다”며 “현대인들은 삶의 근원적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불교적 가르침을 제도로서의 불교와 일치시키지 않는 경향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는 종교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하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게 만든다.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제도나 조직 없이도 인간의 종교성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의 대응맥락에 대해서 “제도로서의 불교보다 훨씬 더 장구한 역사를 지닌 가족 및 결혼제도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해체된 것처럼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의 정체성을 근본적 차원에서 물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불교 역시 이런 맥락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는 ‘세계화시대 문명의 융합과 전환’, 박병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사회 변화와 가치변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신대승네트워크 등은 앞으로 3차 토론회를 거쳐 2025년 한국불교의 방향을 모색한다. 2차 토론회는 7월 3일 오후 3시 ‘흘러간 10년-떠난 300만, 받아든 성적표’, 3차 토론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 ‘2025 미래불교,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주제로 개최한다. 장소 미정.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새집서 진각 100년 향해 전진하자”

6월 15일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회향 불사 기념법요식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불사가 10여년 간의 노력끝에 원만 회향했다. 진각종은 6월 15일 회향불사 기념식을 열고, 진각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천명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회향 불사를 기념하는 법요식이 6월 15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특설무대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진각 100년을 향한 진언 행자들의 새로운 발심과 정진을 부탁드리며, 밀교중흥과 한국불교의 흥왕,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가발전을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현정원장 법정 정사는 “이번 성역화 불사는 진각종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비로자나불,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등 오불을 총인원 터에 관하는 배치로 그 상징성을 가미한 것이다”고 불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 총지종 인선 통리원장, 대각종 만청 총무원장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진각종 총인원 중앙에 위치한 성역화 불사의 핵심 도량인 진각문화전승원은 2007년 전승원건립추진팀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으며, 연면적 12,076㎡(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12년 12월 완공됐다. 진각복지사업의 중심역할을 할 진각복지센터도 연면적 4,430㎡(지하 2층, 지상 5층)규모로 2009년에 마무리됐다. 또한 2013년에는 성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진각문화국제체험관과 탑주유치원, 지하주차장의 건립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국제포교와 청소년 포교의 상징이 될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연면적 5,663㎡(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지역 교화의 산실이 될 탑주유치원은 연면적 1,124㎡(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5월 완공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 제15회 대원상 공모

9월 11~29일, 포교대상 · 콘텐츠대상 부문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017년 제15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9월 11~29일이며,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해 후보자를 접수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 재가부문에 대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과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곳)을 선정한다. 또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미디어 영상포교 자원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의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분야 및 오디오 · 영상콘텐츠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접수희망자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서류를 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대원상은 故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이다.

윤호섭 기자

제1회 법계문학상 대상 수상작

신이산 장편소설

“한 화공의 예술혼과 사랑을 그린 한 폭의 변상도와 같은 소설”



푼다리카

값 13,500원

※ 본 도서는 전국의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2회 법계문학상 공모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입니다. ‘법계문학상’은 역량 있는 불교문학 신인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공모합니다.

공모분야
공모분야 장편소설, 장편동화
공모주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한 자유로운 소재
공모분량 장편소설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분량
장편동화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분량

시상내역
대상 1작품 상금 2,000만원 및 상패
가작 2작품 상금 500만원 및 상패
※ 시상식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일정 및 방법
응모기간 2017. 10. 01 ~ 2017. 10. 25
응모자격 신인 또는 등단 7년이내 작가
제출서류 1. 작품원고 2부 2. 신청서 3. 자기소개서
※신청양식 및 자세한 응모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blog.naver.com/batistaff (NAVER 블로그 ‘법계문학상 공모’)

문의
Tel : 070-8880-8202 / E-mail : batistaff@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21,1101호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 응모한 작품은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일 주 문



가야산 산행 및 공승법회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6월 22일 가야사지부터 서산마애불까지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를 개최한다.



백범 김구 68주기 추모재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6월 26일 오전 10시 대광보전 추모단에서 백범 김구 선생 68주기 추모 다례재를 개최한다.



공직자 인권 강연

법선 광주 문빈정사 주지 스님은 6월 1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제17회 '시민의 목소리 날' 강연에서 공직자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제15회 봉선사 연꽃축제

일관 봉선사 주지 스님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 제15회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 '연꽃愛 반하다'를 개최한다.



제40회 순국선열 위령대재

혜륜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스님은 6월 24일 오전10시 칠곡 법전사에서 제40회 순국선열 합동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어려운 형편 재소자 자비심으로 보살필 터"

Interview

교정교화 30년 서울구치소 불심회 김행규 회장



6월 14일 불심회 창립 30돌
그동안 재소자 의지처 자리매김
제2 창립 기치 걸고 활성화 나서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교화 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불자들의 모임, 서울구치소 불심회가 6월 14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김행규 불심회장(54, 법명 보성)은 30주년을 맞아 "제2의 창립이란 생각으로 새롭게 불제자로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987년 6월 의왕으로 이전한 서울구치소에서 직원 9명을 회원으로 출범한 불심회는 다양한 재소자들이 정신적 의지처가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자비보시행으로 이들을 보듬었다. 불교계 신문과 불서를 보급하고, 영치금과 생필품 보시, 심지어 불자재소자 자녀 장학금도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불심회는 30년간 교정인들의 신행모임에서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는 신행모임으로 발전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의왕 청계사에서 법회를 열고 연 2회 성지순례도 하며, 청계사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시설 녹향원 봉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불심회는 위기다. 한때 회원이 140여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4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김 회장은 "불자 교정인들도 고령화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사실 조직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30주년을 계기로 침체된 조직을 일신하고, 직원들의 결속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부임한 김 회장은 불심회가 첫 신행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 불심회는 더욱 소중하다.

김 회장은 "사회에서 격리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 전하는게 의외로 힘이 든다. 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떻게 다가갈지 항상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불자로서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밝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불자 교정인으로의 삶이 바로 수행과 같다"며 "재소자들 가운데서도 영치금을 넣어줄 이들이 없는 무의탁 재소자들이 있다. 이들을 비롯한 어려운 형편의 재소자들을 계속 보듬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외롭고 고통에 찬 중생들에게 자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사회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73주기 만해예술제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10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만해 입적 73주기 기념 만해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쌍용선원 바라밀합창단과 강천사 문수합창단 등 6개 선학원 소속 합창단이 만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렸다.

한편, 선학원은 6월 2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입적 73주기 만해추모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총동림동문회, 산불피해 복구 지원



동국대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6월 5일 강릉 성산면 관음2리 산불화재 현장에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회장 혜정 스님을 비롯해 고문 학명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재무부장 지선 스님 등이 참석했다.

회장 혜정 스님은 "산불화재로 하루 아침에 집을 잃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부처님 가치로 하루 빨리 원상복구가 됐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노덕현 기자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기행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6월 11일 서울 봉은사와 서울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전통문화기행을 개최했다. 이번 기행에는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한국에서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구례군장애인福 · 한화리조트와 MOU



구례군장애인복지관(관장 법현)은 6월 13일 한화호텔&리조트와 장애 인식 개선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 인식 개선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호텔 '룸 메이드'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을 한화호텔&리조트에서 실시한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관장 법현 스님은 "양 기관이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낙우 한화호텔&리조트 본부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화호텔&리조트가 보유한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해 장애인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IOC 위원 후보 논의

대한체육회 6월 8일 추천권 위임… "내부 검토 후 판단"

대한체육회는 6월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에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추천을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IOC위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유승민 위원 등 2명으로 이 회장의 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1명인 상황이다.

이번 위원 추천 논의는 평창올림픽 준비과정에서 IOC위원 부족에 따른 추천 필요성 때문에 이뤄졌다.

이사회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IOC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이에 이 회장은 "그동안 거명된 국내 IOC 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검토하고, IOC 위원을 지낸 바 있는 국내 NOC 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충분한 내부적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IOC 위원은 1차로 IOC 선출위원회 심사와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절차 거쳐,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위원 과반 득표시 선출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공로가 큰 조양호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추천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사회에서 유력한 추천 후보로 거론된 이기흥 회장은 체육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 첫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카누연맹 회장, 대한수영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김가영 · 김문옥 환자 치료비 지원

생명나눔, 6월 8일 각 300만원, 100만원 전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선정환자 김가영 · 김문옥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가영(가명 · 51) 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인 재활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초기 대처가 늦어져 우반신 마비와 언어장애까지 발생했다. 김문옥(61) 씨는 폐암4기로, 현재 방사선과 항암 치료비로 인해 심리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모금된 치료비를 김가영 씨에게 300만원, 김문옥 씨에게 100만원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8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국제 최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사찰 등에서 최면학 강의 및 초청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 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 · 빙의 등

KBS 굿모닝 대한민국/ 무한지대-큐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무한걸스
SBS 미워도 다시한번 JTBC 부모 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TV/방송 다수 출연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중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매월 첫주 목요일 개강 – 1회 무료 수강 후 결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 원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생 퇴행 요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전생이라는 기억 속에서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의식의 틀을 재편성 함으로써 문제 해결은 물론 통찰력을 높여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 것일까?

빙의된 사람은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심심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행동, 괴벽, 정서불안 등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경우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인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영가 장애가 아닌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망상 빙의나 다중인격과 같은 빙의 현상도 올바로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사찰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문제/ 분노 조절
마음의 상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스포츠 선수 기록 향상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전생요법/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6월 10일 흥국사 일원에서 열린 '북한산 어린이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주지 대오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 화전만들기 체험에 임하고 있다.



그림그리기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밝게 웃고 있다.

노고산 흥국사, 천진불 뽐내기로 '활기 가득'

[현장] 6월 10일 북한산 어린이 청소년 문화축제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6월 10일 토요일 아침 북한산 자락, 그 가운데 위치한 흥국사는 비갠 뒤 태양보다 더 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동시를 쓰는 아이, 그림을 그리는 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필과 크레파스를 거머쥐고 바쁘게 흰 종이를 채워가는 천진불들의 모습에 적적했던 산사도 금세 활기를 찾는다.

노고산 흥국사(주지 대오)는 6월 10일 경내 일원에서 '북한산 어린이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 열린 이날 행사에는 3000여 어린이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모여들며 성황을 이뤘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림 · 동시 · 산문 · 사진 등 분야에서 저마다 실력을 뽐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 강은결(동산초 4년) 학생은 "작년에도 참가해서 '북한산'을 주제로 동시를 썼는데 상을 못 탔다. 이번에도 같은 주제를 선택했다. 꼭 상을 타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다.

곳곳에는 사진기 또는 핸드폰 카메라로 흥국사와 북한산의 풍경을 담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사진 분야는 올해 신설됐지만 핸드폰 카메라로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만큼 호응이 높았다. 윤혜린(진관중 3년) 학생은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사진동아리로 활동 중이다. 오늘은 흥국사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찍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오늘 꼭 1등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상인 고양교육지원청장상은 당찬 의지를 드러낸 사진분야의 윤혜린 학생을 비롯해 △그림-김연우(신도초 1년) △동시-김상호(신원초 3년) △산문-서채린(원당중 1년) 학생이 영예를 안았다. 또한 금상인 고양시장상은 △그림-강시우(도래울초 1년), 안지성(일산초 5년), 안윤서(강선초 2년) △동시-김민영(흥도초 2년), 전하석(백석초 4년) △산문-유수원(한수중 2년), 박영건(지도중) △사진-이서현(선정중), 박건주(진관중)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 은상인 고양시의회 의장상 총 14명, 국회의원상 25명, 흥국사 주지 스님상 25명이 각각 수상했다.

대오 스님은 어느 때보다 밝고 열정적인 아이들 모습에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대오 스님은 "흥국사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이다. 이러한 흥국사에서 고양시의 또 다른 자랑인 북한산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며 오늘 문화축제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흥국사의 불교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북한산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성 고양시장은 "오늘은 6.10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이렇게 뜻 깊은 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간직한 흥국사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열려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역사와 인권, 민주주의 등 새 시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오늘 이 축제는 가족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특별한 문화축제다. 또 흥국사는 창건 시 신라시대 최고 고승인 원효 스님이 '상서로운 빛이 일어난 곳이라 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곳"이라면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손잡고 앞으로 자주 이곳으로 나들이 오길 바란다. 오늘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성인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격려했다.

한편 흥국사는 이날 그림 · 동시 · 산문 · 사진 경연대회 뿐 아니라 다식만들기, 전통다도체험, 화전 만들기, 연꽃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북한산 어린이 청소년 문화축제는 이처럼 해를 더할수록 프로그램에 다변화를 꾀하며 어린이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오감만족을 이끌어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흥국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시짓기에 참여한 (왼쪽부터)강한결, 김지민, 강은결 학생.

올해 4회째… 3000여명 모여 '성황'

'사진' 분야 신설, 동시 · 그림 경연

고양교육지원청장상 등 시상 '푸짐'

대상 진관중 윤혜린 학생 등 영예

대오 스님, 지역 내 사찰 역할 강조

"전통문화 ·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



사진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윤혜린(진관중 3년) 학생.

아이들에 문턱 낮춰 꿈 · 재능 펼치는 장으로

Interview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흥국사를 아이들이 꼭 다시 오고 싶은 사찰로 만들고 싶습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하루쯤 마음껏 놀다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포교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사진〉은 '어떻게 하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연스레 사찰을 방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문화축제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 너무 어렵지 않게, 또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들을 사찰로 이끌기 위해서는 '눈높이 포교'가 필요했다. 그래서 스님은 4년 전 문화축제를 처음 시작,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행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그야말로 절 앞마당을 아이들 공간으로 내어준 것이다.

특히 흥국사는 지역사회와 교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찰을 어린이 청소년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 것. 고양시 소재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생태 · 전통문화 체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교법을 추구하고 있다.

대오 스님은 "전통문화 · 숲생태 콘텐츠 등 사찰의 공간적 이점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 포교를 이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흥국사는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포교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FCA 동양미래예측학 · 풍수지리 최고위 과정 통합 공개강좌 7월 3일(월) 18시



• 주임교수 爽度(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Main biz) 자문위원
• 한국 동양미래예측학회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서울신문 STV 고문/기업 투자 경영자문 MBN 황금알, 부동산TV 풍수야 놀자, MBC, SBS 외
성공과 실패의 시기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및 10년 주기 인생 4계절 석하리듬 개발 보급. 음양오행과 십간십이지,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등 동양 역학의 미신적 요소를 벗겨 과학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 서양 미래학의 접목을 통해 동양 미래예측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동국대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5기 모집

때를 찾는 지혜, 불확실성의 시대, 동양의 미래예측학, 과학역학(易學), 현대 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과정!!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성공을 위한 필살기!! CEO, 관리자, 역학관심자, 미래학 관심자

•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기존 사주명리학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왕초보도 1년이면 충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총정리하는 필살기, 왕초보자에게는 단기간에 나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단기 속성과정입니다.
• 2학기 30주 완성, 등록금 430만원,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수 있는 능력 배양시까지 추가비용없이 무료 반복 수강
• 일반 CEO 과정처럼 성공담 듣고 교양 높이고 인맥 쌓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미래, 때를 찾는 방법, 누구나 존재하는 10년주기 인생 4계절 '석하리듬' 분석법 마스터 과정
• 근거 없는 비법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음양오행, 십간십이지,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부터 공부합니다.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공부를 통해 동양미래예측학으로서의 사주명리학을 마스터 하는 유일무이한 최고위과정.
• 검증 가능한 작명법, 타고난 성격적성 분석법, 이유 없이 좋아 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콩깍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찾는 방법 마스터
• 1학기 15주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 관련 교양 및 성격적성,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외 / 2학기 15주 'FCA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 심화과정, 성공과 실패의 식 마스터 과정
1학기 수료시 : 동국대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수료증 및 명리 진로적성상담사 2급자격증(소정의 절차후), 2학기 수료시 동국대FCA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증 및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소정의 절차후), 통합 등록후 월요일(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목요일(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동시 수업 가능, 2학기 심화과정(현대사주석하명리 최고지도자 과정 제2기) 별도 수강 가능(목 18:00-21:30)

■ 공개강좌 : 7월 3일 18:00 ~ 21:30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입학식 7월 10일 17:30, 수업 매주 월 19:00 ~ 21:30, FCA사무국 02-3443-4984

동국대 FCA 풍수지리 최고지도자과정 제2기 모집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風水地理) 전문가, 최고지도자 양성과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지도교수 최명우 박사, 정경연 박사,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전임교수 노승우 박사, 세준 스님 직강〉

양택풍수, 음택풍수, 이기풍수, 형기풍수, 현공풍수, 삼합풍수, 비보풍수, 도시풍수, 부동산풍수, 인테리어 풍수, 기(氣) 풍수, 릴리안 투 풍수 등 풍수지리 종합 마스터 과정!!
좋은 자리 및 좋은 터 찾는 법, 좋은 잠자리, 좋은 책상자리, 생기(生氣)가 흐르는 좋은 곳과 살기(殺氣)가 흐르는 곳 찾는 방법, 생기를 끌어오고 살기를 피하는 법, 수맥 찾고수맥파 차단하는 법, 엘로드 사용법의 허와 실, 제대로 된 엘로드 사용법..
1학기 15주, 2학기 30주과정, 등록금 380만원, 풍수지리 왕초보부터 전문가까지, CEO, 관리자, 부동산 관계자, 풍수지리 관계자 외

■ 공개강좌 : 7월 3일 18:00 ~ 21:30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입학식 7월 10일 17:30, 정기 수업 매주 월 18:00 ~ 21:30, FCA사무국 02-3443-4984

대불련 총동문회 50돌, 청년포교 박차

9일 청년포교 활성화 계획 공개

지역 대불련 지회 복원 지원
5개 전략지역서 토크콘서트
50주년 동문대회선 비전 발표



6월 10일 전법회관에서 열린 역대회장단 · 지도위원장단 초청간담회서 참석자들이 청년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창립 50돌을 맞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이하 대불련총동문회)가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 먼저 대불련총동문회는 대학 불교학생회 복원 사업 및 지역 순회 청춘콘서트를 열고 대불련 동문들과 대학생 불자들 간의 소통의 고리를 넓힐 예정이다.

대불련총동문회는 6월 9일 50주년 기념 '진리의 벗 50년, 새로 여는 50년'을 주제로 한 청년 포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 복원 사업이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올해 강원지역 4개 대학 불교학생회를 복원한 바 있다. 1966년 창립된 대불련 강원지부는 강원대, 춘천교대, 춘천 성심대, 한림대 등 4개 대학으로 구성돼 있지만 강원대를 제외한 3개 대학에 불교학생회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불련 총동문회 동문들의 모교 지회 복원 노력이 이어졌으며 5월 11일 한림대 지회 재창립 법회를 시작으로 6월 3일 춘천성심대와 춘천교대 불교학생회까지 복원, 춘천지역 대학에 불교학생회를 복원했다.

이와 함께 대불련총동문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불 산하 '대학전법지원단'(단장 최승태)은 올해부터 그동안 소멸된 대불련 지회 재건과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청춘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대불련 총동문회 울산지부(지부장 조문제) 주관으로 정목 스님 초청 '안목, 한차원 다르게 살기'를 주제로 5월 31일 울산대에서 열렸다.

대불련 총동문회 울산지부 동문들은 지회 복원 및 지부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및 대학에 플랜카드와 포스터를 부착하고 학내에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첫 토크콘서트에서는 정목 스님의 강연과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츠의 찬조공연이 함께 해 참석한 300여 대중의 호응을 이끌었다.

김관태 대불련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다만 대학생 참여가 많지 않아 동문과 지역불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참여한 학생 중 자발적으로 불교학생회 가입 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있는 등 작으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올해 경기, 경남, 강원 등 전국 5개 전략 포교 지역을 대상으로 청춘토크콘서트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불련 총동문회는 6월 10일 대불련 회장 및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역대 회장단과 지도위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불련 초대회장인 신호철 씨를 비롯해 대불련 총동문회 초대회장 김윤권 씨, 초대 간사장인 이용부 전 문광부 종무관 등 35명의 역대 회장단이 참석했다. 대불련 총동문회 최초로 열린 이 자리에서 50주년 기념 동문대회 개최와 180억 규모의 동문회관 건립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대불련 총동문회 역대회장단들은 대불련 총동문회가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미 확보한 불교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50돌을 맞아 매년 개최돼 온 동문대회를 8월 19~20일 1박 2일간 서울서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비전 선포식과 통일기원법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자들이 촬영한 '간절한 염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법회관 갤러리에서 4월 5일 진행된 '2만 수보리의 합창' 행복바라미 대축전 관련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은 행복바라미 워크샵 및 연말 행사 등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청년불자들이 금강경 독송의 장면을 찍은 사진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佛心으로 기강 확립, 국민 행복 이끌자"

공불련, 제25차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봉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는 6월 10~11일 양산 통도사에서 제25차 성지순례 및 제18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김상규 공불련 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과 송도근 공불련 고문(사천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지순례에서 김상규 회장은 "공직의 길이 수행과 해탈의 길이라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불심으로 무장해,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이 시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 안의 행복을 국민에게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순례에서 공불련 회원들은 철야 참선을 비롯해 자비수참을 진행했다. 철야정진과 함께 새벽예불을 올리고 이튿날 금강경 독송과 108참회 수행정진도 함께 진행했다.

수계법회에서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바로 세우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사 스님에게 시대의 해답을 듣다

불교인재원, 7월 13일부터 불교경전 · 조사어록 3차 강좌

불교인재원이 불교경전과 조사어록을 배우는 강좌를 마련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7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조계종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3차 대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7월 3일부터 17일까지 3주간은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장아함경-디까니까야' 강의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은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능엄경'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8월 14일부터 28일까지는 3주간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금강경'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박인석 동국대 학술원 교수가 '보조국사 수심결'을 강의한다. 9월 25일에는 엄상호 이사장 외 불교인재원 임원진 전원이 참석하는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재가단체, 승단과 공조 하에 발전해야"

김종인 경희대 교수, 포교원 연찬회서 주장

"출가 승단에 대한 불신은 결국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사찰을 운영하고 창종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교단체제서 일탈한 이러한 형태는 결국 출재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종인 교수〈사진〉는 조계종 포교원이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개최한 포교연찬회서 '한국 재가자불교의 현황과 방향성' 발제를 통해 "한국 재가자 불교운동 단체의 출발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출가 승단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출가 승단이 제 역할을 하면 재가자 불교운동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렇기에 재가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가 승단과의 역할 분담,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가자들이 독립 단체를 만들어 출가승단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재가불자들이 해야 할 일을 출가자들이 대신하거나, 재가자들이 출가승단을 비판하는데 골몰하는 현재 상황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 모두 자기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재가불교 운동단체들이 이런 긍정적인 발전 방향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교진흥단체, 수행단체, 사회참여단체로 출발한 많은 단체들이 애초 고유한 창립목적과 상관없이 교육시설을 만들고 법당을 지어 일반사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사찰을 운영하면서 승단에 독립해 있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승단에 사찰운영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가불교 종단은 불교 가치 실현에 근본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교단체제에서 일탈한 형태로 정당성과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승단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출가 승단 인식 전환을 통해 상호 협력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는 산토쉬 굽타 서울대 규장각 박사 후 연구자의 '인도 재가불교의 현황과 전망', 곽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의 '중국 재가불교의 역사와 현황', 사토 아츠시 일본 전수대 특임교수의 '일본 재가불교의 현황과 미래', 왕즈칭 대만 정치대대학원생의 '대만 재가불교의 활동과 미래'가 발표됐다.

이들은 인도, 중국, 대만, 일본 등 각 나라의 재가불교 운동을 이끈 암베드카르 박사, 조박초 거사, 가토 벤자부로 등을 소개하며 재가자들이 근현대 불교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천수경〉 관세음보살의 자비사상 논하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 7월 15~16일 방한법회


부탄 출신 스님이자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종사르 켄체 린포체〈사진〉가 7월 15~16일 한국을 다시 방한해 법문한다. 국제신행단체 싯다르타즈 인텐트 인터네셔널의 한국지부인 싯다르타즈 인텐트 코리아는 7월 15~16일 오전 10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종사르 켄체 린포체 초청 법회를 진행한다. 이번 법회는 〈천수경〉의 원전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주제로 진행된다.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난 린포체는 7세에 티베트 스승 잠양 켄체 왕포의 환생자로 판명된 이후 리메학파 법맥을 이었다. 영국 유학시절 영화 '리틀 부다' 고문을 맡기도 했으며 부탄 최초 장편영화인 '더 컵'을 비롯해 '나그네와 마술사' '바라, 축복' 등을 제작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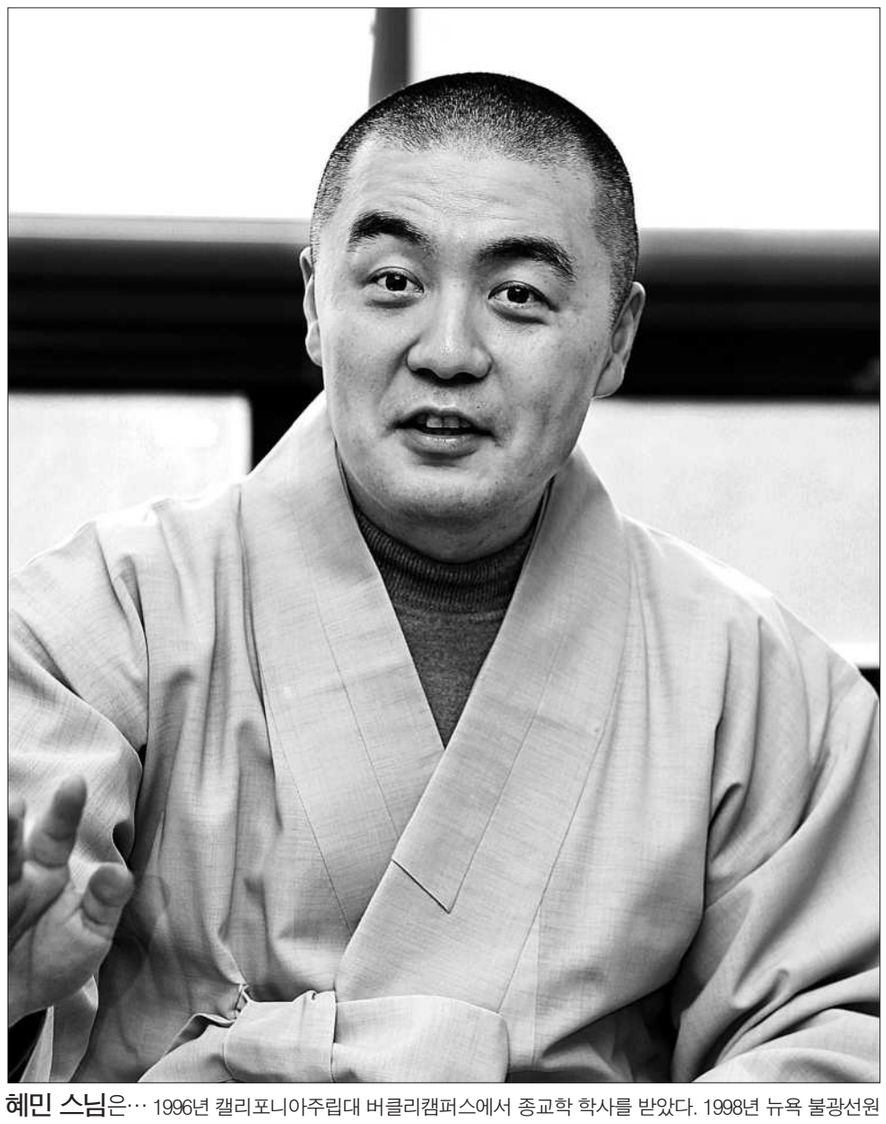


본성과 대상, '앎'으로 통합하자

불교TV무상사 초청법회… '깨달음의 과정'

마음치유학교장 혜민 스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외는 〈반야심경〉 말미에 등장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주문이다. 하지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외면서도 정작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무엇이 깨달음을 가로 막는 것일까? 힐링멘토 마음치유학교장 혜민 스님은 6월 2일 방영된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서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하얀 스크린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며 "수행을 통해 '앎'을 얻어야 본성과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혜민 스님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에서 종교학 학사를 받았다. 1998년 뉴욕 불광선원 휘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0년 해인사서 사미계를 수계한 뒤 하버드대 대학원 비교종교학 석사, 2005년 프린스턴대 대학원 종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6년 미국 햄프셔대학 종교학 교수로 활동하고, 2008년 직지사서 비구계를 수계했다. 현재 뉴욕 불광선원 부주지, 마음치유학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젊은 날의 깨달음〉 등이 있다.

대상에만 집착하는 나

오늘은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불자라면 모두가 법회마다 암송하는 것이 〈반야심경〉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훌륭한 주문이 있다고 하죠.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입니다. 이것만 외우면 깨닫는다고 〈반야심경〉에서 보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자님들은 백번 천번 외는데 깨닫지는 못하셨죠? 산스크리트어로는 '가테 가테 바라가테 바라삼 가테 보디 스바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제 아제'는 보통 '가자 가자'라고도 하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가버렸다'고 설명합니다. '바라아제'는 '어서 가자'라고 하는데 과거완료형으로 '완전히 가버렸다'고 할 수 있고요. '모지'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보디'입니다. '사바하'는 감탄사죠. 즉 가버리고, 가버리고, 다 가버리고 나니 깨달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 가버리고 깨달음이 남았다는데 무슨 뜻일까요?

〈반야심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 성품이 아닌 게 뭔지 쭉 나열하죠. 색수상행식. 우리는 보통 '나'는 몸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몸도, 생각도, 느낌도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진정한 나'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도 듣지 않고 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느낌 역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합니다. 이렇게 몸이나 생각, 느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쳐냅니다.

그 다음 〈금강경〉을 보면 부처님은 모양이 없는 무상(無相)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있으면 그것은 진짜 부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있죠. 생각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듭니다. 느낌도 마찬가지로 좋았다가 싫었다가 모양이 있죠. 즉 이런 것들은 부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몸도, 생각도, 느낌도 아니고 모양도 없는 게 부처라는데 그게 뭘까요? 흔히 '불성' '깨달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단어가 지칭하는 본질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이해를 도와볼까 합니다.

먼저 부처님의 성품, 즉 진정한 나를 '하늘'에 비유해보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순간 토끼 모양 구름이 생겼습니다. 하늘은 모양이나 소리가 없어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구름이 생기니 마음이 가 집착하게 됩니다. 하늘은 구름에 집착하면서 '나는 토끼 구름'이라고 착각합니다. 모양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하늘인데 스스로를 토끼 구름이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토끼 구름뿐만 아니라 별의별 구름이 다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구름도 하늘보단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름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늘 전체로서 나의 성품을 잊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죠. 여러분 영화 보러 영화관에 많이 가실 겁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영화가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왕도 나오고, 신하도 나오고 많은 이미지가 상영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하얀 스크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스크린이 없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의 근본 바탕이 하얀 스크린과 같습니다. 그 존재는 영화가 완전히 끝나고 영화관에 불이 켜져야 알게 되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영화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만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도 혜민이라는 사람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얀 스크린을 못 보고 모양에 집착합니다. 모양에 집착하면 부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처님 모습 중 하나를 〈열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쯤 깨달은 제자들은 감정적인 동요가 없는데,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하고 말이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나 어디 안 간다." 맞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물론 몸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성품은 어디에 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얀 영화 스크린처럼 말이죠. 영화 속 주인공이 죽는다고 해서 스크린이 죽는 게 아닙니다.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불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지도 가지도 않은 불성 자체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긴 한가요. 게다가 근본 바탕은 모양이 없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 뜨고 나서 모양이 아닌 것을 봐야 부처를 볼 수 있다고 〈금강경〉에서 말했는데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전통 선불교에서는 방편을 썼습니다.

> 몸 경계로 '나' 구분하고
> 보이는 대상에 얽매이면
> 내 성품 바로 볼 수 없어
>
> 모양도 생각도 없는 본성
>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아
> 그대로 봐야 '앎' 얻는다

모양을 잠시 멈추는 방법, 한시적이지만 본성인 영화 스크린이 드러나는 겁니다. 첫째, 선사들은 어느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알아봤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를 궁금해 하지만 답을 모를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20년 만에 봤는데, 얼굴은 기억나지만 이름을 통 모를 때가 이와 같습니다. 이름을 기억해내기 위해 '뭘까'하고 멍한 그 순간, 이름이 떠오르기 직전까지입니다. 이때 내 생각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화두를 던져줍니다. 답이 바로 안 나오겠죠. 그 사이 생각이 멈추고, 모양은 사라집니다. 바로 간화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란 하늘 예에서 구름이 다 사라지고 난 뒤 '어? 이게 나야?'하고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름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죠. 〈육조단경〉에서 깨닫는 경지를 무착(無着)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없을 때 착(着)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주(無住),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음입니다. 마음이 머물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모양을 다 걷어내면 머물 데가 없습니다.

둘째, 이번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쉬고 또 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쉬게 합니다. 깨달음을 목적지로 두면 노력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쉬게 해서 고요해졌을 때 회광반조를 합니다. 바로 내 의식을 감지하는 겁니다.

컵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은 컵에 가 닿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고요. 회광반조는 컵을 보고 있는 그 의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회광반조를 하면, 구름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죠. 모양이 없는 근본 바탕을 깨닫게 하는 것, 묵조선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채로 밝힌다는 뜻이죠.

셋째는 이보다 더 오래 전의 방편 조사선입니다. '부처님 성품이 무엇이다'하고 찔러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찾는 게 바로 너다." 여기엔 스승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을 찔러보겠습니다.

성품 자체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텅 빈 것 같아 공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어서 '앎'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눈앞에 혜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배고프다는 것도 알죠. 근데 앎의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혜민은 여러분 몸 밖에, 배고픔은 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앎 자체는 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앎의 대상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앎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몸 안의 앎과 밖의 앎은 하나입니다. 앎 자체는 모양도 없죠.

불성을 느끼고자 한다면 앎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대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아는 앎을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성을 깨닫고 나면, 간혹 깊이가 없이 깨달았을 때를 말합니다. 텅 빈 채로 살아 있는 마음 상태가 여기 있고, 눈에 보이는 모양들은 또 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을 봤을 때 컵이 내 마음이라고 느껴져야 하는데 텅 빈 것 따로 모양 따로 말이죠. 이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TV에서 드라마 연속극을 하는데 전원이 꺼져 있는 검은 브라운관과 드라마를 표현하는 색깔의 브라운관은 하나입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생겼는데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안에 구름이 있고, 하늘은 곧 구름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형상, 모습, 이것이 다 앎입니다. 앎이 텅 빈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제 앞의 마이크 모양으로, 또 컵의 모양으로, 혜민의 목소리로 사방천지에서 본성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앎'으로서 말이죠.

전 조계종 원로의장

현 파계사 조실 도원 큰스님 초청법회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3번)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엄장엄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것을!

남화사 화엄회상 100일 화엄경 수행법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입제안내 : 2017년 7월 14일 (윤,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 하루세번 :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7시 (천수경, 능엄신주, 약찬게, 화엄경수행법)
■ 강 설 : 화엄경 제1권 세주묘음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보살계 수계산림 : 2017년 10월 21일 (음, 9력 2일) 토요일 오전 10시

천년의 미소 남화사는 도심속 산중 사찰로 숙식도 가능하며 1박은 2만원, 1개월은 50만원이며 단, 강의만 듣고자 하는분은 월 5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 1등은 1만원, 10인이상 동참자는 강의료가 무료입니다. (남화사 유튜브 화엄경수행법)

경북 구미시 선기로3길 38-37 (남통동 70번지) 금오산 남화사
전화 : ☎ 054)452-6568 / 010-8540-6588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왜 한반도에는 '고행상'이 없을까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⑪ 간다라 미술의 결정판 고행상

무엇을 위한 고행인가. 스스로 걸어들어 간 고통의 길. 지옥체험과 같은 길, 아니 생애의 막장과 같은 나날들. 처절한 고행의 길이다. 싯달타 태자는 왕궁을 나와 초원을 걸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행색은 초라해졌다. 출가 수행승의 모습은 최악의 행색이었다. 옷조차 풀이나 걸레로 만들어 입었다. 무덤 곁에 버려진 천으로 몸을 감싸기도 했다. 무방비 상태로 무더위와 추위도 견뎌내야 했다. 무엇 때문에 그랬던가.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기 위함이다. 미동도 하지 않는 자세. 깊은 사유의 세계에 들어앉은 선정(禪定)은 소나기가 내려도 움직이지 않게 했다. 심지어 모기가 물어뜯어도 쫓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고행, 바로 고행이었다. 먹는 것도 멀리했다. 하루에 과일 한 개 정도. 아니, 팥이나 콩 혹은 쌀이나 보리 한 알씩만 먹었다. 하루에 한 번만 먹다가, 이틀에 한 번, 드디어 보름에 한 번만 먹었다. 몸은 극도로 메말라 갔다.

"살갗은 익지 않은 오이가 말라비틀어진 것 같았으며, 수족은 갈대와 같았고, 드러난 갈비뼈는 부서진 헌 집의 서까래와 같았으며, 척추는 대나무 마디와 같았다. 뱃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지고,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말라 떨어졌다. 해골이 드러나고, 눈이 깊이 꺼졌으며, 일어서려면 머리를 땅에 박고 넘어졌다. 그러나 오직 눈만은 깊은 우물 속의 별과 같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방광대장엄경〉 中

피골상접, 그 이상 무슨 단어가 필요할까. 몸은 말라비틀어진 오이 같았다. 뱃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다. 해골, 바로 앉아 있는 해골 같았다. 고행중의 모습. 정각(正覺) 이전의 처참한 모습이다. 나는 이와 같은 처절한 상태의 '붓다'를 보았다. 한마디로 전율의 현장이었다. 세계 도처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이런 경험은 없었다. 어디에서 이와 같은 '전율'을 얻었는가. 그 감동의 현장은 바로 라호르 뮤지엄이다. 오늘날 파키스탄으로 국명을 내걸고 있지만, 원래 간다라 지역이었다. 라호르 뮤지엄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뮤지엄으로 빅토리아 여왕 통치 50주년 기념으로 건립했다(1894년). 이 미술관은 간다라 전성기의 소장품을 자랑하고 있다. 소장품 200여 점은 간다라 불교미술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2~3세기 무렵의 불상이나 보살상, 그리고 본생담을 담은 부조 작품 등. 라호르 뮤지엄의 소장품 가운데 대표작은 바로 '고행상'이다. 아니, 간다라 미술 가운데 최고 절정의 대표작으로 꼽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이 고행상 때문에 라호르 뮤지엄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갈 때마다 감동은 재현되었다.

'간다라 미술의 최고 걸작'이 바로 붓다의 고행상이라는 점, 흥미롭다. 깨달음을 얻기 직전 단식 수행의 모습이다. 이 지역의 시크리 출토품이다. 인도 본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보기 어려운 고행상이다. 사실적 표현력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는 걸작이다. 인체를 소재로 한 작품 가운데 이렇듯 처절한 상태를, 그것도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은 많지 않을 듯하다. 한마디로 핍진한 상태, 고행의 참뜻을 듬뿍 담았다. 깨달음의 길로 가는 과정의 고통을 실감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아, 고행상!

피골상접한 모습한 고행상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전해
불교문화권 고행상 부재는
무슨 이유인지 질문 던진다

고행상은 원형 두광 아래 정좌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깡마른 몸, 그렇지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결가부좌한 정면상이다. 뼈만 남은 팔은 앞으로 모아 선정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깨 역시 메말라 뼈가 들어나 있다. 눈길을 강하게 끄는 것은 앙상하게 들어난 갈비뼈이다. 밭고랑처럼 줄이 간 앞가슴의 깊은 흔적들. 그뿐만이 아니다. 갈비뼈 위에 표현된 힘줄, 대단하다. 앙상한 가죽과 힘줄 그리고 뼈, 이들의 조합은 무슨 해부학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 이 걸작의 작가는 해부학 관련의 수준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정확한 비례와 사실적 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몸의 표현은 그렇다 치자. 정말 눈길을 오랫동안 잡아끄는 곳은 얼굴 표현이다.

갸름하게 마른 얼굴, 오똑 솟은 코와 기다란 귀, 꽉 다문 조그만 입, 그리고 턱수염과 커다란 육계의 헤어 스타일, 너무나 인상적인 모습이다. 얼굴 표현에서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곳은 바로 눈이다. 깊이 패여 동공이 쑥 들어간 것 같은, 계란 같은 모습으로 깊게 함몰된 것 같은, 눈의 의미는 크다. 고행의 끝자락에 몸은 부실해도, 눈만큼은 살아 있다고 했다. 아니, 우물 속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다. 살아 있는 눈. 별처럼 빛나는 눈. 비록 몸은 메말라 부서질지라도 눈동자는 살아 빛을 뿜고 있다.



◀ 라호르 뮤지엄의 대표 소장품 '고행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라호르의 고행상은 감동, 바로 그 자체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간다라 시대의 작가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적 표현의 걸작을 만들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해부학적 기초실력은 기본이었고, 예술적 작가기량 역시 기본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모델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간다라 시기만 해도 '고행상' 같은 모델 즉 수행승이 많았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작가는 고행하는 수행승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또 관찰한 내용을 작품에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미술품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고행상은 리얼리즘의 승리와 같은 느낌을 준다. 고맙고 고마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왜 고행을 선택했을까. 고행 끝에 얻은 결과, 그것은 고행만이 정답은 아니었다는 것. 붓다는 두 개의 극단을 경계했다.

"이 세상에는 출가수행자가 받들어서는 안 되는 두 개의 극단이 있다. 그 두 가지 극단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는 관능이 이끄는 대로 애욕의 기쁨에 탐닉해 욕망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범부들이 찬탄하는 것이며 출가인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무익한 것이다. 또 하나는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괴롭히는 것에 열중해 고행에만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심신이 모두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다. 이는 목적과 수단을 전도한 출가자가 하는 것이며 출가인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무모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스스로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남에게도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버려야 한다. 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의 길을 찾았다. 이 중도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이므로 지혜를 낳아 범부의 눈을 뜨게 하고 이를 통해 중도의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체험과 크나큰 깨달음으로 열반을 성취케 하리라." 〈불본행집경〉中

금기해야 할 두 개의 극단. 그것은 욕망과 쾌락이고, 육체 학대의 고행이다.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얻어야 한다. 통찰력으로 평화와 진리를 얻어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고행상은 모범답안인가. 고행상은 극단의 한 상징이 아닌가. 결국 고행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고행상의 상징성이나 철학성을 따져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교문화권에서 고행상을 쉽게 볼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을 떨쳐 낼 수 없다. 물론 학자들은 고행상을 간다라 창안의 독자적 사례로 보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도 본토는 물론 중국이나 한국에서 고행상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왜 한반도에서는 고행상을 볼 수 없을까.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무수한 불상들. 여기서 불상이라고 부르는 통칭은 넓은 의미의 불교적 조형물을 의미한다. 물론 불상이라 하면 여래와 보살을 지칭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불상이라 한다면, 나한이나 사천왕을 비롯한 여러 권속들을 포함한다. 그건 그렇고, 한반도에서는 왜 고행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깨달음 이후의 여래에 집착했을까. 고행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는 영역인데, 왜 그랬을까. 여래와 보살은 열반의 세계를 넘나드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세계를 의미한다.

문제는 열반과 거리가 먼 바닥 수준의 존재들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계속 수행해야 하는 어둠 속의 존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통의 존재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아직 인간적 풍모를 잔뜩 지니고 있는 존재들. 왜 이런 단계의 존재들을 형상화하려 하지 않았을까. 고행상이 없는 나라. 한반도에서 고행상을 볼 수 없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미술의 전통에서 리얼리즘의 부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현실의 진솔한 표현은 매우 협소했다. 하기야 현실생활 자체가 고통인데, 굳이 예술작품에서까지 고통의 현장을 담아야 하는가,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현실'에서 살아간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다. 고해(苦海)라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해의 진실된 현장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과연 현실주의 예술의 부재는 한국의 '전통'일까. 라호르 뮤지엄에서 나는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 고행의 참뜻은 무엇인가. 왜 한반도에는 고행상이 없을까. 고행상!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불교국가 연방승가회 회장단 5~7개국 승정 증명법사 참석 확정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시대별 의례 설행 배경과 의미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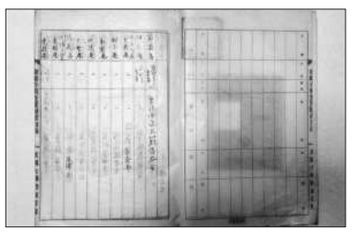
의례문화硏, 23일 심포지엄

시대별 불교 의례 설행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의례문화연구소(이사장 법안)은 6월 2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대별 불교의례설행의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윤소희(부산대)의 '일본의 오봉에 비추어본 한국의 조상 숭배 문화', 이성운(동방대)의 '근현대 한국불교의례의 아우라', 김경집(진각대)의 '근대 불교의례의 변화와 시대적 의미', 민순의(서울대)의 '조선전기 수륙재의 성격과 내용' 등이 각각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스님을 비롯해 김성순(서울대),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장), 한상길(동국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서울시가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동국대 소장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동국대 '사찰재산목록' 서울시 등록문화재 신청

서울시는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을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6월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동국대의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20세기 전반 전국 950여 곳의 사찰에서 소장했던 불상과 불화 등을 기록한 사찰재산목록이다.

총 26책으로 구성된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안쪽에는 '동국대 도서관'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다. 동국대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3년인 만큼 일제시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1950년대 후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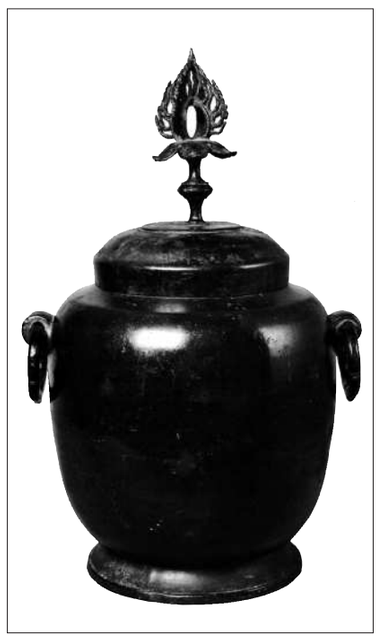
서울시는 "희소성 있고 보존이 어려운 자료인 만큼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해 자료 보존과 함께 새로운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운문사 銅壺, 통일신라 사리기"

〈동항아리〉

최응천 동국대 교수 운문사 학술대회서 주장

뚜껑의 '화염보주'에 주목 사리신앙 연관 많은 양식 시기도 고려 아닌 통일신라 운문사 성보 보존 논의도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208호 청도 운문사 '동호(銅壺 · 동항아리 · 사진)'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뒤 고려시대부터 사리기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응천 동국대 교수는 6월 10일 청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운문사 동호의 제작 시기와 용도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운문사의 9개의 보물 중 유일한 공예품인 동호는 높이 55㎝, 구경 19.5㎝로, 뚜껑 손잡이에 연꽃잎 6장과 불꽃 모양 장식이 달렸다. 또한 어깨 부분에는 '함옹(咸雍) 3년(1067) 6월 개조했고 무게는 30근'이라는 명문이 있다.

그동안 이 동호는 '감로준(甘露樽)'이라는 명칭이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을 담는 용기로 추정돼 왔다. 비슷한 유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운봉사 명문 동항아리 등이 있으나 최 교수는 운문사 동호는 뚜껑 손잡이에 불길 모양 장식물인 '화염보주(火炎寶珠)'를 들어 차이점을 제시했다.

그는 "화염보주는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에서 나온 7세기 후반 사리기의 청동 외호(外壺)가 기원"이라며 "이후 사리기에서 화염보주는 사라졌지만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 사이에 세워진 승탑이나 탑비의 상부에서 유사한 장식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염보주는 사리신앙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동호도 사리기로 쓰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교수는 동호 뚜껑의 불꽃 장식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려 정종 3년(1067)에 개조되면서 부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뚜껑 내부에 별도로 손잡이와 결합된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손잡이 하단부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면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해 다른 용도로 사용돼다가 고려시대에 손잡이만 별도로 만들어 사리기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운문사 소장 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 발표들이 이어졌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운문사 작압전(鵲岬殿) 석조석가불좌상(보물 제317호) 조성 배경과 양식적 특징을 살폈으며, 운문사 사천왕상이 석굴암 사천왕상을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덕 경주대 교수는 '운문사 유물을 통해 본 가람배치 변화'를, 김정희 원광대 교수는 '운문사의 불화와 대웅보전 관음보살 · 달마대사 벽화'를, 심주완 조계종 문화부 팀장은 '운문사 문화유산의 보존 방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규(영남대), 정성권(동국대), 이용진(국립공주박물관), 임영애(경주대), 김미경(문화재청)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불교학자, 禪佛敎를 논한다

동국대 종학硏 · 선센터,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6월 27일~7월 5일 진행 집중수행 · 선지식 대담도

세계 선불교 현황과 간화선의 위상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국제선센터(센터장 수불)와 공동으로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8박 9일 동안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인제 백담사 등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는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2011 · 2012 · 2016년까지 진행돼 올해로 5회째를 맡는다.

'세계 속의 선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재현 동명대 교수와 동국대 정운스님 등 국내 학자들을 비롯해 미국의 마크 블럼, 호주의 로버트 셔, 인도의 라트네시 등 저명한 국외 학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또한 제1회 수불학술상 수상 논문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동국대 간화선 국제학술회의의 특징은 '학술발표'와 '집중수행' 그리고 '스님들과의 대담'의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학문의 이론적 이해와 실천수행, 점검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방식이다. 간화선을 확인하고 이해함에 있어 교학 혹은 수행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견(正見)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국내 · 외 학자 및 외국인 참가자 약 80여 명이 백담사에서 5박 6일의 일정으로 간화선을 직접 실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간화선 실참 후에는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방문해 외국인 수행참가자들에게 한국 정통 간화선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이번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는 학술논문 발표와 간화선 실참 그리고 선사 참문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를 통해 간화선 이론의 교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자와 수행자들에게 실제적인 간화선 수행 기회를 제공해서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내포 가야산은 불교 특구였다

보원사, 이철환 著 '상산삼매' 번역본 발간

260년 전 가야산 유람기 당시 사찰 · 문화 아는 단초

"가야사는 옛날의 대총림이다. 옛날에는 많은 비석들이 있어서 사찰을 창건한 본말과 상주하며 사용했던 물건까지 자세하게 실려 있었는데, 노복들이 나리를 믐타 부수어 그 자취를 지워버렸다."

〈상산삼매〉中



내포 가야산이 백제 불교의 명맥을 간직한 특구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18세기 유생의 유람기가 번역 · 발간됐다.

내포 가야산 보원사는 "내포 가야산이 불교문화특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260여년 전 고서인 〈상산삼매 · 사진〉를 번역 · 출간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상산삼매〉는 예헌 이철환(1722~1779)이 1753년 10월 9일부터 1754년 1월 29일까지 충남 내포 가야산 일대를 유람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는 1책 45장의 필사본이 남아있다. 저자인 이철환은 성호 이익의 문하에서 수학한 남인학파였지만, 불교와 도교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유생이었다.

책에 따르면 이철환은 장천(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을 근거지로 내포 일대를 4개월여 동안 두루 관람한다. 이를 통해 가야산과 상왕산 등이 보여주는 자연경관 뿐 아니라 보원사와 보현사, 문수사 개심사, 가야사 등 100여개의 사찰과 암자 등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당시 사찰에서 시행된 음악 연주와 연희, 꼭두각시 놀이를 비롯한 사찰 관련 전설들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발간에 대해 보원사는 "〈상산삼매〉는 내포 가야산이 불교문화특구였음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료다. 당시에는 많은 사찰이 있었던 것 뿐 아니라 사찰에서 살고 있었던 스님들의 다양한 기예까지도 기록돼 있다"며 "이 책은 향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창건 1440년 왕흥사, 다시 조명한다

부여군 · 부여博 · 부여문화재硏, 9일 특별전 업무협약

올해로 창건 1440년을 맞는 백제 왕흥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여군과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6월 9일 부여군청에서 '백제 왕흥사' 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부여군수와 이주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윤형원 국립부여박물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백제 왕흥사 창건 1440년을 기념해 왕흥사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아 백제 왕실이 발원한 왕흥사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협의했다. 특별전은 오는 7~10월, 학술심포지엄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사적 제427호 부여 왕흥사는 부여군 규암면 신리 일대에 위치한 백제의 대표적인 왕실 사찰이다. 2007년 목탑터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왕흥사지 사리기(보물 제1767호)'를 통해 백제의 창왕(위덕왕)이 정유년(577년) 2월 15일에 창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最古)의 치미가 온전한 상태로 보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부여군과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6월 9일 '백제 왕흥사' 특별전 및 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인원 9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윤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연내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6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는 책상의 밑 서랍을 열면 만나는 구절이다. 나는 글을 원고지에 한자 한자씩 써 넣는다.

책상의 밑 서랍엔 볼펜이 서너 자루가 늘 담겨있다. 볼펜 밑의 종이에 11자로 적힌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가 설렘으로 눈물방울로 언제나 새롭게 다가온다. 설렘이란 수북이 쌓인 삶의 흔적을 하나씩 둘씩 정리해가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기쁨의 설렘이다. 눈물방울이란 마지막 그림자를 언젠가는 거둬들일 순간의 처연한 작별인사가 한 두 방울의 눈물방울로 앞당겨 다가오기 때문이다.

무슨 무거운 병이라도 지니고 있거나 중병 앓는 환자처럼 너스레 비슷한 요란을 떨고 있지만 당뇨 없고 혈압이 정상이다. 암 따위는 키우지 않는 것으로 검진 결과 밝혀졌다. 다만 세월의 무게에 삭신이 녹이 슬어 곳곳에서 예전 같지 않은 어두운 신호음이 울리고 있다. 티베트와 중국에서 익힌 자가 치료로 사혈도 하고 침도 꽂으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드문드문 살피고 있다. 항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덜어내며 가벼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보면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소중하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생활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게 되고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거짓과 능청보다는 순수하게 진실하게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넘침보다는 부족한대로 행복인으로 자유인으로 마무리를 개운하게 하고 싶다.

덜어내고 비워가며 머묾 없는 머묾으로 흔적 없이 가고 싶다. 글쎄,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를 일이나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미련도 후회도 없이 한 점의 바람이 사라져가듯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자유로운 여행의 마침표를 찍고 싶다.

찾아오는 죽음도 번거로운 일이요, 아무개 아무개가 죽음을 애도하며 꽃상여를 준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흔적도 자취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조금은 죽음을 앞당겨 내가 내 죽음의 상주가 되어 마지막 미소를 지켜보고 싶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손 마주잡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해와 달이 있어 수행승의 죽음은 외롭지 않을 터이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에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겪게 되었고 그때마다 질기게도 죽음에서 부활한 누구처럼 되살아났던 것이다. 하여,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징조가 뚜렷해지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추슬러 생각해둔 곳을 찾아 흔적도 자취도 없이 홀가분하게 개운하게 마지막 그림자를 거두고 싶다.

육체는 정직하다. 망가지기 전에 탈이 나기 전에 병(病)을 알아차리도록 신호음을 울려댄다. 자가 치료와 예방을 위해 어지간히 건강 돌봄을 시도하지만 나이를 속일 수 없듯 세월에 삭아내리는 종착역은 죽음의 문이다.

하여, 날마다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이별을 연습한다.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보면 흔들림과 헐떡임이 줄어든다.

작설차 주전자도 하나만 남기고 나누게 되고 책과 붓글씨 그림등도 미련없이 즐거운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사람이 늙어 사라지는 것도 자연의 순리이자 법칙이다. 해질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과 헤어짐, 자연풍광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마지막 식사에서 반찬투정이 있을 수 없듯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텅 빈 충만의 감사와 고마움뿐이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로 삶이 더욱 풍요롭고 기적으로 이어진다. 누구나 그러하듯 미운자도 보내고 나면 울컥 서러워 가슴에 짠한 아픔이 남는 법이다. 내 죽음에는 내 자신이 상주가 될 터이다.

땅이 관이 되고 하늘이 상여가 되어 산천초목 바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날 터이다. 미운 얼굴, 그리운 얼굴 가슴에 담고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나직이 불러보며 안녕이란 말을 차마 반쯤 남기리니, 한 점 바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니,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대로 아름다운 정토의 세계이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고마움이다.

오늘도 비우며 덜어내며 텅 빈 충만의 행복인이 된다. 자유인이 된다.

이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변화에 따른 '妙'를 전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화(禪話)에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 대거 등장한다. 때로는 옛날이야기 같은 전설들도 자주 나오는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은유나 어떤 상징적인 모티브를 제공하여 공안을 채택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지는 이야기들이다.

백장회해(百丈懷海:720~814) 선사는 마조(馬祖) 문하의 삼대사(三大士)의 하나로 알려진 인물이다. 걸출한 선승이었던 마조 제자에 서당지장(西堂智藏)과 남전보원(南泉普願), 백장회해의 삼대 제자가 있었다.

백장 선사에 관한 선화에는 여우 이야기가 있다. 백장야호(百丈野狐)라는 공안에 얽혀 있는 전백장후백장(前百丈後百丈)이야기이다.

먼저 〈무문관〉 2칙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백장 선사가 설법을 할 때마다 어떤 노인이 항상 대중을 따라 법문을 듣고는 대중이 물러가면 노인도 물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대중이 물러갔는데도 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다. 백장 선사가 마침내 그 노인을 향해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요?" 이에 노인이 대답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가섭불 당시에 이 산에 살았는데 어떤 학인이 '큰 수행을 한 사람도 인과의 굴레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은 질문에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 잘못 대답을 하여 오백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아 살았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저를 위하여 오직 깨달음을 열 수 있는 한 마디 법어를 주시어 여우의 몸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백장 선사가 그때 질문대로 다시 물으라 하니 노인이 물었다.

"큰 수행을 한 사람도 인과의 굴레에 떨어집니까?"

이 때 백장 선사가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서 물은 노인을 전백장(前百丈)으로 보고 답해준 백장을 후백장(後百丈)으로 보기도 한다.

〈평창〉에는 무문(無門)의 말이 나와 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하여 어찌 여우의 몸에 떨어지며,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不昧因果)고 하여 어찌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는가?'

이 말에서 진리를 보는 지혜의 안목을 가진다면 백장 선사가 말해주기 전에 그가 오백생을 바람과 같이 흘러 보내기만 한 까닭을 알 것이다.

고래로 이 '불락인과'와 '불매인과'를 두고 수없는 질문이 나왔으며, 대답 또한 갖가지로 나왔다. 질문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와 '어둡지 않다(不昧)'에서 왜 여우 몸을 받고 여우 몸을 벗어나는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은 〈종용록〉에 있는 말이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를 없애버리는 단견(斷見)이며,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은 변화의 흐름을 따라 묘(妙)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문염송설화〉에는 "떨어지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음이여! 이 두 가지 말을 따라다니며 무리를 이루고 떼거리를 지었구나.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지만, 한씨 집 개는 던져진 흙덩어리를 쫓아가노라"고 하였다. 또 설화에 해인초신(海印超信)이 읊는다.

"어둡지 않음(不昧)과 떨어지지 않음(不落)이여! 두 가지 모두 틀렸도다.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망상분별로 헤아리며, 말에 집착하여 얽매이니 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여버렸도다. 툭 트인 허공의 그 어디에서 더듬어 찾을 것인가? 봄이 되니 꽃이 피고 가을이 오니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오백생을 여우 몸을 받은 것은 떨어질 낙(落)자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백천의 수많은 대중들이 이것저것 헤아리는 것은 어두울 매(昧)자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다.

"떨어질 낙(落)자와 어두울 매(昧)자는 같은가 다른가?"

이 말에 대답하기를 "봄에는 난초요 가을에는 국화다"라고 대답하였다.

〈오등회원〉 '설봉도원장(雪峰道圓章)'에는 어느 날 두 스님이 백장야호를 두고 한 논쟁이 전해진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말하더라도 여전히 여우의 몸을 벗어날 수 없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서 또한 어찌 여우의 몸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설봉 선사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말했다. "떨어지지도 어둡지도 않으니 승속 모두에게 본래 꺼리고 피해야 할 차별이 없도다."

깊은 한숨은 분별망념의 증거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㉔ 상을 여읜 적멸

爾時 須菩提 聞說是經 深解義趣 涕淚悲泣 而白佛言. 希有 世尊. 佛說 如是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취 체루비읍 이백불언. 희유 세존. 불설 여시 甚深經典. 我從昔來 所得慧眼. 未曾得聞 如是之經. 世尊 若復有人 得聞是經 심심경전. 아종석래 소득혜안. 미증득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득문시경 信心淸淨 卽生實相 當知 是人成就第一 希有功德. 世尊 是實相者 卽是非相 是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 시인성취제일 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비상 시 故 如來說名實相. 世尊 我今得聞如是經典 信解受持 不足爲難 若當來世後五 고 여래설명실상. 세존 아금득문여시경전 신해수지 부족위난 약당래세후오 百歲 其有衆生 得聞是經 信解受持 是人 卽爲第一希有. 何以故 此人 無我相 백세 기유중생 득문시경 신해수지 시인 즉위제일희유. 하이고 차인 무아상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所以者何 我相 卽是非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하 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그 때 수보리가 이 경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뢰었다.

"참으로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로부터 오면서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생긴 것이오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오니 여래께서는 이름이 실다운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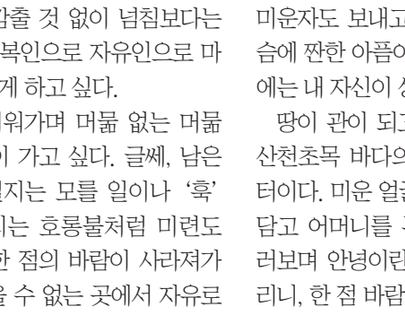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이 다음 세상 이천 오백년(후오백세)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사람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왜냐하오면 나라는 상이 곧 상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산다는 상이 곧 상이 아니옵니다. 왜냐 하오면 일체의 온갖 상을 다 여읜 것 즉 모든 부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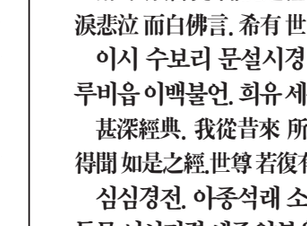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인 줄 알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여래가 말한 제일바라밀이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오백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던 저 세상에서도 나라는 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일체의 상을 여의는 것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니 물질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나고,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나므로, 마땅히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날 것이니라."

삶의 무한 지혜, 香향이 세상에 나왔다!!
화제의 신간
完전한 지혜의 세계, 密밀이 세상에 나왔다!!





허공천(虛空天)
향운계(香雲界)에서
향수(香水)의 비가 내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가 향수대해(香水大海)를 이룬다.

향1권 기품, 승화, 사유, 이성(理性)의 향기
향2권 지혜, 정신, 마음, 지성(知性)의 향기
향3권 생명, 차(茶), 초월, 꽃잎의 향기를 담았다.

박명숙(德慧林)저 / 향 1권 336쪽 / 향 2권 328쪽 / 향 3권 320쪽 / 정가 각 23,000원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원담 진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 ‘행복 전하는 스승’ 으로 거듭나길” 발원

부산교직원불자聯, 20주년 기념법회 봉행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6월 10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대법회’ 를 봉행했다.

150여 부산 불자 교직원 참석
창립정신 되새기는 자리로…
“佛法으로 행복한 교사될 것”
10개 지회 300여 회원 활동 중

부산 불자 교직원들이 창립 20주년 기념 법석을 마련했다. 이날 불자 교직원들은 ‘행복한 교사’로 스스로 거듭나 교육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 이하 교직원불자)는 6월 10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오전 입제식에 이어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대강백 무비 스님의 법석이 진행됐다.

입제식에서 교직원 불자들은 경과보고로 그간의 활동을 설명하고, 청림회 박난숙 회장이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어 김경희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들과 창립정신을 되새겼다.

김경희 회장은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자비, 통찰, 집중, 마음챙김 등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 왔다. 그 20년을 돌아보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창립정신을 다시 한번 더 겸허한 마음으로 되새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처님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모두가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부산교직원불자회는 햇수로는 19년이다. 20주년 기념법회로 기념한 이유는 전국교사불교자회가 20주년 기념으로 올 여름 전국대회를 연다. 함께 힘을 보태고 발맞추기 위해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그리고 배한욱 전국교사불교연합회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경선 주지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보살의 마음을 쓰면 불보살이 되고, 거지의 마음을 쓰면 거지가 된다.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화향(花香) 천리(千里)요 인향(人香)은 만리(萬里)다. 스승으로 인정받고 존경 받고자 한다면 욕심과 게으름을 버리고 불법을 실천하라. 참된 스승의 길은 불제자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사불자들의 모임은 전국교사불자회 창립 전인 1976년 8월 부산초등여교사의 모임인 ‘반야회’로 시작됐다. 오랜 시간 동안 부산교사불자들의 모임은 박정자 교장을 필두로 활동하며 학교 내 불교 동량을 키우는데 앞장서 전국 불자 교사들의 모범이 됐다. 1988년 9월에는 이하우 前 부산불교대학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부산중등교원불자회’를 창립해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후 전국교사불자회가 1996년에 창립해 금산사에서 1998년 1월 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에 발맞춰 전국교사불자회 부산연합회가 1998년 7월 18일 양원식 회장(前 해동고등학교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해 초등부 및 중등부 통합 법회를 실시했다. 현재 부산교직원불자회는 10개 지회 3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해 활동 중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포교국장 효산 스님 및 배한욱 전국교사불교자연합회 회장, 김경희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태종사에 핀 수국, 시민과 함께

6월24일~7월 2일 제12회 태종사 수국꽃 문화축제 개최

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태종대에 위치한 태종사에 수국이 만발이다. 이에 태종사는 경내에 핀 수국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축제를 마련했다.

태종사(조실 도성)는 6월 24일~7월 2일 ‘제12회 태종사 수국꽃 문화축제’를 경내와 태종대 일원에서 개최한다. 태종사는 경내에 핀 수국꽃의 아름다움을 지역민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국축제는 매년 20여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해 태종대 주변 및 부산 영도구 일대에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태종사는 매년 영도구와 함께 수국축제사업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수국 군락지를 개발해 국내 최대 수국 꽃 군락지로 차별화된 축제를 구상 중이다.

개회식은 6월 24일 오후 2시 태종사 경내에서 열리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어윤태 영도구 구청장 및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국꽃 문화축제는 축하공연 및 포토존 운영, 내방객 냉면 무료배식, 수국꽃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한다. 축하 공연은 6월 26~30일 오후 4시에 열리며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7월 1일에는 오후 8시 야간공연으로 진행된다. 일요일인 6월 25일과 7월 2일은 오후 2시 공연. 한효종 팝페라 가수와 김현정 소프라노 성악가, 어린이 한복 패션쇼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태종사는 6월 24일~7월 2일 ‘제12회 태종사 수국꽃 문화축제’를 태종사 경내와 태종대 일원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2015년 자료

삼광사, 캄보디아 위해 동부산대학과 MOU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와 동부산대학교(총장 최환언)는 6월 13일 동부산대학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불교 중심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

앞으로 삼광사는 동부산대학교에 불교문화 체험을 보급하고 인성교육에 앞장선다. 아울러 동부산대학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국가 교육 및 불교문화지원 사업을 위해 노력한다.

현재 동부산대학은 캄보디아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도예 교육, 장례행정복지, 커피 바리스타, 헤어 뷰티 등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광사업 개발을 돕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연합신도회, 〈부산불교100년사〉 발간 박차

동아대 인문과학대 MOU 협약 및 포교지원금 전달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6월 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보전에서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MOU 체결 및 포교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 불교가 〈부산불교100년사〉 발간을 앞두고 동아대 인문과학대학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와 부산교수불자회에 포교지원금을 전달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는 6월 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보전에서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MOU 체결 및 포교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교무 혜복 스님, 박대성 회장, 박해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장, 장상목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 박은경 동아대 인문과학대학장, 부산연합신도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현재 〈부산불교100년사〉 발간을 준비 중이다. 〈부산불교100년사〉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앞서 만세운동을 주도해 현재까지 호국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계 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뿐 아니라 향후 부산불교계 인문 인재 양성과 연구 자원 공동 활용 등 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모색한다. 아울러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에 포교지원금 500만원, 부산교수불자연합회에 대학생 템플스테이 포교지원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대학생 포교지원금 250만원도 약정했다.

박대성 회장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과 협약 및 전달식에 마음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청년 및 젊은 대학생 불자 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십시일반 모은 회비를 포교지원금 및 부산불교를 위해 뜻 깊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허준 서면 신세계안과 원장(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사)은 대학생 불자를 위한 라식 수술 무료 이용권 3매를 지원했다. 하성미 기자

혜인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례재

6월 13일 은해사에서… 23일 약천사서 추모법회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6월 13일 은해사 조실과 제주 약천사 회주를 지낸 포산당 혜인 대종사의 열반 1주기 추모다례재를 경내 템플스테이관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송원 설정 스님과 동국문도 문장 혜국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제10교구 은해사 교구장 돈관 스님, 은해사 관장 돈명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수불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인사와 내빈소개, 문장 혜국 스님의 행장소개에 이어 종사영반과 헌향 및 헌화로 이어졌다.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혜인 스님은 치열하고도 불같은 구도자의 생을 살다 가셨다”며 “전국을 다니며 보살계 수계법회, 감로법어 등을 설하며 중생 구제에 앞장섰고 부모은중경을 통해 불자들에게 효심을 심어줬다”고 추모했다.


은해사는 6월 13일 포산당 혜인 대종사의 열반 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혜인 스님은 1943년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에서 태어나 1956년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계단위원, 제주불교중흥회장, 제주 관음사 주지 등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23일(음력 5월 19일) 세납 75세, 법랍 62세로 원적에 들었다.

한편 6월 23일 제주 약천사에서는 혜인 스님의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또 스님의 부도 및 비석은 팔공산 은해사 내 일타대종사 부도 옆에 조성되고 있다. 제막식은 8월 28일 예정.

손문철 대구지사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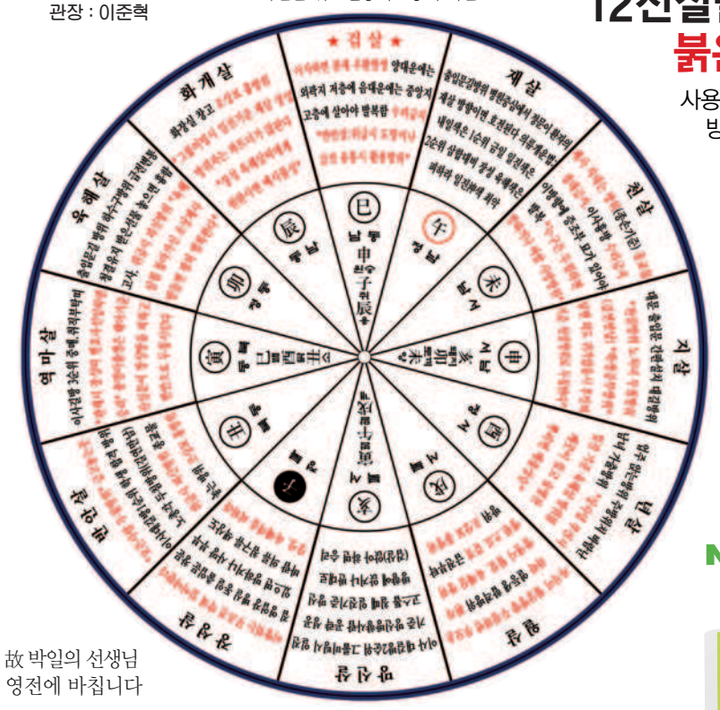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관장 : 이준혁

개운원판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 지면은 쥐 · 원숭이 · 용띠 기준 ※
12신살을 이용한 방위개운법
붉은색이 정북입니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1회 전화 및 방문하시면 상담 하여드립니다.



故 박일의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특수유압 나침판을 드립니다

• 가액 : 20만원
특허번호 4-2013-035176-1
특수재질 PC

NAVER 검색 귀장술 원판 귀장술 수강생 모집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원각사에서 금남로까지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촛불정신으로 적폐청산하자"

광주서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된 1987년 6.10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광주행사가 열렸다.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불교위원회는 6월 10일 광주 원각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6월 항쟁의 의미과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법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광주 원각사에서 금남로에 이르는 평화행진도 실시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무애암), 토진 스님(백양사 주지),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을 비롯해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6.10항쟁에 참여한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던 원각사에서 주석한 현지 스님과 금강 스님 증언을 경청했다.

6.10항쟁 당시 원각사는 5월 18일 5.18민중항쟁 7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이 법당에 최루탄을 투척하고 난입해 13명을 연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격분한 불교계는 5월 19일 송광사 방장스님의 항의와 20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탄압 대책위를 구성, 원각사 청년회 · 대학생불교연합회 및 불교단체의 규탄성명과 단식농성이 이어졌다. 26일 지선 스님(문빈정사)을 비롯한 스님 523인, 재가 280인이 당시 도경국장 등 경찰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27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비롯한 1만여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규탄 대법회가 원각사에서 열리고 1천여 명이 도심 시위에 참여해 6.10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이후 많은 불교계 인사가 시민항쟁에 참여하게 됐고, 6월 14일에는 문빈정사 스님과 신도 등 100여명이 '민주쟁취 및 구속인사 석방 불교계 대책위'를 구성했다. 19일 '호헌철폐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회' 등 항쟁을 이어나가 6월 26일 광주에서 30만 명이 참여한 평화대행진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공동체와 즐기는 문화공연"

고창군노인복지관, 지역주민 화합한마당 잔치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위한 지역주민 화합한마당 잔치를 진행했다.

6월 9일 성송면 남창경로당 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 어르신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외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식전행사로 이 · 미용, 네일아트 등이 진행됐으며, 이후 기념식과 고창군노인복지관 난타공연이 이어졌다. 문화공연에서는 조숙자 외 20명의 동백꽃 생활체조와 최성례 외 9명의 한국무용, 창부타령, 새타령공연이 진행됐고, 초대가수 이은희, 선민하 씨의 공연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유쾌한 하루를 선사했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네일아트를 제공하는 모습.

대원 스님은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관으로서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성송면사무소의 주민홍보,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의 이 · 미용, 네일아트 봉사 등 지역협력을 통해 이뤄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문화재로 소통하는 대가람 발원

구례 화엄사, 문화재 활용방안 모색 세미나

국민들이 불교문화재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6월 13일 경내에서 '문화재, 국민 속으로 가다'라는 주제로 화엄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물 위주의 불사를 지양하고, 화엄사의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엄사의 역사적 가치와 발전방향(김동현 前국립문화재연구소장) △화엄사 불교문화유산의 가치(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화엄사 불교미술(임영애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화엄사 사찰조경의 보존과 활용(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화엄사 석조 문화재 현황 및 보존방안(오세덕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화엄사 석경의 복원 및 활용(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명승 내 사찰 보존관리 대책(김종승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황권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재 관람료 대체 방안(박한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사찰 문화재 활용방안(박동석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장) 등이 발표돼 화엄사 문화재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화엄사 교구 본말사 스님 150여명을 비롯해 신도 등 500명이 참여한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인사말(덕문 스님), 축사(박영근 문화재청 차장), 화엄사 소개 영상물 시청, 1부 화엄사 소개, 2부 토론(주제 '화엄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화엄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아이디어')이 진행됐다.

국보 · 천연기념물 자원 많아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국민에 다가가기 좋은 조건
"건축불사 대신 가치 발굴을"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화엄사 석경은 통일신라시대의 원융무애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동서갈등, 남북갈등, 계층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상징적 문화재"라고 강조했다.

황권순 유형문화재과장은 "불교문화재는 종례 관행을 개선하면 불교문화 중흥을 이룰 수 있다"며 "현재 사찰 공간 정비는 일정부분 완료됐다.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와 함께 국민 눈높이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사찰과 지역사회, 국민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문화재 내적 가치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례 화엄사가 주최한 문화재 활용방안 모색 세미나는 사전 자료집 없이 구술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화엄사는 세미나 발표 내용을 엮어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사찰 조경과 관련해 홍광표 교수는 "사찰은 이미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다. 화엄사는 자연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잔디정원보다는 자연과 어울리는 조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응천 교수는 화엄사에 대해 "화엄사는 산지가람을 극대화한 사찰이다. 당당하고 웅장한 스케일과 섬세함, 화려함, 파격과 다양성을 보유한 사찰로 불교문화의 종합박물관"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박한규 정책총괄과장은 "관람료에 대한 매년 민원은 연간 20~30건 정도다. 주 내용은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등산 목적에 대한 관람료 징수부분이다. 이미 조계종, 환경부, 문화관광부 협의는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며 "궁극적으로는 관람료 폐지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사는 문화재를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성보 문화재의 활용과 보전 방식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한다"며 "건축불사를 지양하고 화엄사의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지역과 상생하는 가람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사전 자료집 없이 각 발제자와 토론자가 발표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 자료집을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화엄사는 각황전 앞 석등(국보 12호)을 비롯한 국보 4점과 보물 8점, 천연기념물 2점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계가 달랜 국방의무 노고

순창사암연합회 · 신도회 제1회 군경 어울림마당

전북 순창지역 불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복무하는 젊은이들을 초청,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순창사암연합회(회장 청암, 장덕사 주지)와 순창신도연합회(회장 이동희)는 6월 14일 순창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순창 군 · 경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순창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순창 적성부대, 순창경찰서 의경, 순창 상비역중대, 순창군청 사회복부요원, 군청 공무원과 불자 등 200여명이 동참한 어울림 한마당은 배구, 족구 등의 운동경기와 공연,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운동경기를 마친 후 진행된 기념식에는 청암 스님, 대모암 주지 동산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영천사 주지 종혜 스님,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적성부대 이창환 대령, 황숙주 군수, 신일섭 순창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처음 열린 군경 어울림 한마당을 축하했다.


순창에서 처음으로 열린 군경 어울림 한마당서 장병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청암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경,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자리인 만큼 마음껏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환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장병들에게는 기념품과 바비큐 등 푸짐한 점심식사와 음료, 간식이 제공됐으며 장기자랑에서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2박3일간의 특별 포상휴가가 주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빛고을나눔나무 동구청에 쌀 1000kg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6월 14일 광주 동구청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보응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김성환 동구청장을 비롯해 오정의 운영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빛고을나눔나무는 소원정사, 비전사, 연화사, 감로사, 대원사 등에서 정초와 초파일에 기부를 통해 마련한 공양미를 동구청에 전달했으며, 동구청은 관내 장애인 시설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 (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현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易理作名法
(역리작명법)
(당신도 작명대가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옛말에 자식을 낳으면 먼저 그 이름 바르게 지어 주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고난 사주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4,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배는 강물을 건네 주고, 지혜는 생사를 건네 준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늘 들어서 마땅히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신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불본행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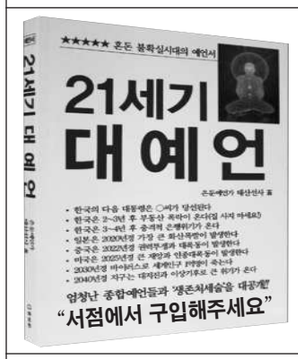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원인사+조상
찾는법을 단기간에 책임지도
(무료로 배우면서 공양주 하실분 1분)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413-5078
010-3653-5151
무상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숙식거주자,
운전가능자, 30~50세,
월 보시금 100만원
(서울 도봉구 청암선원)
010-3382-8625

비구니 스님,
보살님
빈 절에 당분간
기도하실 분
010-9226-1058

무보시로 스님이 없는 사암을 찾습니다. 노승으로써 미안하나마 절을 잘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인연 기다립니다.
010-3806-84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법맥을 이어받으실 늦깎이 스님을 모십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금강경 반야심경을 써드립니다
금니(순금99%)도 가능, 별도상담
금강경(10폭) 심경(단품, 6, 8폭)
한문과 불교를 공부할분 연락 바랍니다.
• 수강료 : 10만 (5명) 주 – 2회 화, 금 오후 4시
승려시인, 선화, 한학, 서예가
포항 남구 인덕동 262
010-3749-4553

절을 함께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심
(30대 비구니 스님 모심)
010-5564-5211
부산 총무보살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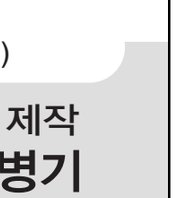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제반의식에 능통하신
스님 연락주세요.
(경북 문경)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서울 강북구 소재)
010-7415-177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 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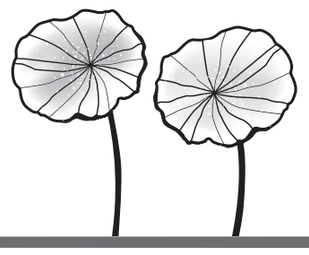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삼보에 항상 신심을 일으켜서 대승의 오묘한 경전의 모든 선한 공덕을 닦아 물러서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아주 빨리 깨달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 소실지갈라경 -



경기도 포교원 안내
- 경기도 양평시
- 총3층의 3층 197㎡(약60평)
- 방2 욕실2 주방 법당 옥탑방 등
- 가액 : 보 2000만 월 60 시설비 1500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경주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3층 건물 법당. 요사채. 공양간
- 토지 230㎡
- 주변좋음. 교통편리. 깨끗한 신축 사찰
- 양도가액 : 6억 5천만원 (융자 3억 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충주시내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총면적 : 957㎡(289평)
- 건물총면적 : 207.03㎡(62.6평)
- 가액 : 7억 2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60평 ◎ 면적 : 2500평
◎ 법당 : 25평 ◎ 인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 ◎ 경관수려,남향,IC인접
◎ 양도가 : 6억 5천 ◎ 양도가 : 6억3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차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찰(급)안내
- 제천 중심가 사찰
- 토지 250㎡. 한옥요사채58㎡ .법당48㎡
- 이동인구많으며 깨끗하고 위치좋음
- 방편상담 최고자리 남향임
- 가액 : 1억6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450평, 대지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외 1동(120평)
- 산속,차량진입,경관수려
- 가액 : 3억 7천

010-4586-4525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345-1674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2층 149 ㎡(약 45평) 방2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1500만, 월 90만 시설비 무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불국사 부근.
- 대지200평.건평40평.
- 법당, 요사채,방3개,친견실, 공양간,샤워실,화장실2개, 밖에 남,여 화장실 건평18평
- 산신,용왕,나반,대중공양간, 용왕연못,7층탑등,시설일체,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가액 : 2억5천 사전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지리산(둘레길)
- 대지 152평, 법당 조립식 약 10평
- 요사채 철근콘크리트 약 25평
- 팬션형 2층 건물 바로 앞 계곡
- 공기, 물, 산세, 경치 건강최고
- 기도도량임, 보살님 법사님 환영
- 가액:2억 1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암 자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가격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찰(절암자)터 양도 상담 전문
- 양도 양수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전화주시면 성실 상담합니다

불자공인중개사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 607-46-1189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소재
- 부지:1,000평(종교용지)
- 법당: 50평(목조,단청,3포7포)
- 요사채:60평
- 가액:12억
- 특징 : 도심 인근의 대가람 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양산시 소재
- 부지: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채 : 40평,산신각 : 5평
- 기타 : 일주문, 석불 등
- 가액 : 8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여 포교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 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 연 45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신축건물 2층 트인 전망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종교부지 120평
- 대웅전,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5㎡ 옥탑, 주차장, 부처님 진신사리2과 100년 넘은 안정된 사찰로 사시사철 천연수 철철
- 가액 : 4억 5천

010-2720-1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참고 : 10개월 월세 보조 가능

02)571-91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40평, 대지 360평
- 요사채 3동,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몸만 오셔서 바로 법회가능

010-8384-7754
하루 전 미리 전화 요망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010-8551-3374

주문진 토굴임대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458-17
- 법당, 방2, 공양간, 욕실
- 평지텃밭 천여평
- 화목 및 기름보일러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5714-7872

대지 건물(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614
- 산세수려한 전지역 국유림내에 위치한 대지 457평, 건물60평
- 자연 지하수 도로 양호 창건 희망 하는분 최상의 적합지, 1%도 거품이 없는 가격
- 9,500만 검색 또는 현장 답사후 전화주세요

010-8899-8899
010-7621-76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3층
- 평수 : 6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사동 목련시장 옆
- 평수 : 40평(3층건물 중 3층 전체사용)
- 구성 : 삼존불, 인등, 범종 집기일체
- 특징 : 건물내시설비 및 집기류 총1천만 월세 16년째 운영함 스님께서 연로하셔서 양도합니다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세35만원

연락처 : 010-8576-8019

토굴 분양 안내

따뜻한 남쪽나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남해에 삼재가 침범하지 못하는 길지에 지어진 토굴에 입주하실 복 있는 인연자를 모십니다.

토굴특징

1 자연재난(지진, 태풍, 해일)과 전쟁 사변 등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단절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되어 있는 아궁이와 온돌 구조 이며 자연수 등이 갖춰진 건물입니다.

2 유명 풍수가들이 극찬한 지세와 지기를 머금은 명당이며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환경과 주변 뒷산에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3 또 심우도(尋牛圖) 길이 조성되어서 걷기 명상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분양내용 (선착순 분양)

■ 1개동 건물면적 30156㎡. 대지지분 156㎡
■ 총 7개동 ■ 아궁이 10㎡(9.1평)
■ 1개동 분양가 : 일억원
■ 주소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581-2
■ 별채 : 2층 건물 면적 197.27㎡ / 대지면적 1,042㎡
■ 양도가액 : 5억원

연락처 : 010-8913-0062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 대지, 125평 중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 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 3만세대 고속도로5분거리
- 가액:3억7천만원(대출가능)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 정류장 앞,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법당, 요사채. 식당채, 화장실, 텃밭 각각 있슴 물, 공기 좋고 조용하고 기도 수행처로 적적임
- 가액: 1억 5천만원

010-3895-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중심가 도심포교 최적지
- 마당 정원이 있는 한옥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시설완비), 방2개, 주방1개, 욕실,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6603-1456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읍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탑둘레 13m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5분 ●가액: 16억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100년된 암자
- 대지 280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 가액 : 1억 6천

010-5170-1381



강원에서 수업이 끝난 뒤 스님들이 모여 즉문즉답 토론을 하는 모습. 부탄은 다양한 수행법 외에도 수행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문화가 발달했다.

금강승불교 천년 역사 오롯이 이어져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

① 부탄의 국교 – 금강승불교

올해는 한국과 부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다. 양국은 1987년 9월 수교 이후 인적 · 물적 교류를 이어오며 굳건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전통을 잇는 한국불교계와 금강승불교를 국교로 삼은 부탄은 같은 불제자임에도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에 본지는 한국불자들의 부탄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부탄우호협회 산하 부탄문화원 연재를 10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닝마파의 시조 파드마삼바바(왼쪽)와 부탄을 국가 형태로 발전시킨 샵둥나왕남걜.

보리 · 보살도 중시한 금강승
대승불교 발전된 한 형태로
개인 근기 맞춘 수행법 발달
부탄서 국민행복 토대로 여겨

금강승불교의 탄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3개월 뒤 라즈기르에서 두타제일 마하카샤파 존자를 필두로 한 1차 결집이 이루어졌다. 100년 뒤 약 기원전 443년에 발루카마라 사원에서 2차 결집이, 아소카 대왕 시절인 기원전 308년경에 파타리푸타에서 3차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상좌부(테라와다) 불교가 형성된다.

아비담마부가 3차 결집에 포함되고, 아소카대왕은 스리랑카 · 카나라 · 카르나타카 · 카시미르 · 미얀마 ·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대장경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전승이 소위 한국에서 소승불교(혹은 남방불교 · 상좌부불교)라 불리게 된다.

서기 1세기가 지난 무렵부터는 대승사상이 동트기 시작하고 2세기 용수보살의 공성사상을 중심으로 한 입중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세친보살, 무착보살 등의 위대한 사상가가 출현하여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꽃 피우게 된다. 이 대승불교 사상은 1세기 중국에 전해지고, 4세기에는 고구려에, 6세기에는 일본에 전해지며 정토사상과 선불교가 꽃을 피우게 된다.

8세기 무렵 인도에서는 '마하싯다'라고 불리는 기존 승단이나 사원, 사찰에 속하지 않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이 생기기 시작한다. 대비로자나 탄트라, 구햐사마자 탄트라 등의 수행법이 이 시기에 성립되었고, '금강승'이라고 불리는 밀교수행법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보리심과 보살도를 중요시했기에 금강승불교는 대승불교의 발전된 형태로 본다.

경전을 널리 보급하고 외우기보다는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해 수천 년간 가르침이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히말라야에서는 티송데첸왕이 티베트 전역을 통일하였고, 불교 수용을 위하여 중국의 선불교와 인도의 불교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고민을 하던 차였다. 인도 나란다 대학 학장이었던 산타락시타와 우디야나국의 왕자이자 밀교수행자였던 파드마삼바바, 중국선불교 대표자 마하연 선사를 초청하여 불교 철학, 수행, 계율 등 다양한 방면에서 뜨거운 대논쟁 후 인도불교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결국 티베트는 자연스럽게, 지금은 '티베트불교'라고 더 널리 알려진 금강승불교를 받아들여 꽃을 피우게 된다. 그 후 인도에서는 이슬람에 의해서 불교문명이 사라지지만 인도 후기 불교의 모습은 고스란히 티베트 전역에 퍼지게 된다. 이 금강승불교는 티베트, 부탄, 네팔, 북인도,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널리 퍼지게 된다.

8대 수행법맥과 부탄

금강승불교는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에서 크게 꽃 피운다. 대승불교를 기반으로 보리심과 보살도를 중시하면서 석가모니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인 밀교의 가르침대로 한 생에 깨달음을 얻는, 개개인의 근기에 맞춘 수많은 수행법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구전되고 있다.

금강승불교는 이후 8대 수행법맥으로 나뉘게 되는데 도표를 보자.〈표 참조〉

이 중에서 마르빠까규 전승은 또 다시 12개의 분파로 나뉘는데, 가장 큰 분파가 디꿍까규, 그 다음이 둑빠까규, 까르마까규 순이다. 이 중 부탄은 둑빠까규 전승을 국교로 삼는다. '둑'은 용을 뜻하고 '빠'는 ~인, ~사람을 뜻하므로 둑빠는 부탄의 종교이자, 부탄을 상징하는 민족이 된다.

8세기경 부탄에 불교를 최초로 전한 파드마삼바바가 전설적인 탁상사원에서 3년 명상을 한 후에 부탄 전역은 닝마법맥이 주를 이루었으나 17세기 티베트의 둑빠까규의 법왕이었던 샵둥나왕남걜이 지금의 부탄 지역으로 와 국가 형태를 만들어 둑빠까규를 국교로 삼게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부탄으로 이어져 오는 둑빠까규의 법맥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로부터 이어져 오는 비밀한 가르침은 법신 그 자체인 지금강불(Dorje Chang)로 이어져 그 가르침은 인도의 위대한 마하싯다였던 띨로빠에게 전해진다. 이후 나란다대학의 학장이었던 나로빠에게 전수되었으며, 이는 티베트의 역경사였던 마르빠에게 전수된다. 한국에서도 십만송으로 유명한 히말라야의 성자 밀라래빠가 바로 마르빠의 수제자이며, 닥뽀지역 의사였던 감뽀빠에게 전수되고, 감뽀빠의 위대한 상수제자 4명 중의 한 명인 팍모두빠로부터 또 다시 8개의 법맥이 갈리는데, 쨩빠갸레 존자가 둑빠까규의 시조가 된다. 그 제자로는 1대 걀왕둑빠(둑빠까규의 법왕, 종정)로 계속 환생에 환생을 거듭하는데, 4대 걀왕둑빠로 인정받은 샵둥나왕남걜은 정치적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자 지금의 부탄지역으로 내려와 부탄을 금강승불교국가로 만들고, 총리(둑데씨)와 국사(제켄포)를 임명하고 20개의 주 지사(펜롭)을 임명하여 처음으로 부탄을 국가 형태로 만들게 된다. 한편 티베트에서는 걀왕둑빠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현재 12대 걀왕둑빠가 둑빠까규의 법왕으로서 인도 라다크와 네팔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금강승불교 전승이 없어지고, 티베트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금강승 문화가 전멸했다(최근에는 관광사업 일환으로 다시 복원 중). 일부 문화가 인도 다람살라, 네팔 카트만두 등으로 전해졌으나 그 유구한 전통은 많이 말살되었다. 시킴, 라다크, 무스탕 등 금강승 불교왕국은 인도와 네팔에 의해 흡수되었고, 현재는 부탄 왕국만이 유구한 인도의 후기 불교문화와 금강승 불교를 천년 이상 지켜오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겠다.

부탄불교는 대승불교의 발전된 형태인 금강승불교를 국교로 삼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의 부탄을 있게 했다. 또 부탄국민과 국가의 근간이념인 국민행복의 기반이 되는 문화이자 생활 그 자체다.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금강승불교 8대 수행법맥

수행법맥	시조	특 징	주 수행법
닝마	파드마삼바바	화려한 의식, 빨간색 모자와 가사	족첸, 떼르마
카담	아티샤	겔룩파 시조인 쫑카파에 큰 영향 미침	로종
사캬	콘콘촉걀뽀	세습으로 이어지는 재가승 전승	람데
마르빠까규	마르빠	실수행을 중시하는 종파, 밀라래빠로 유명	마하무드라, 나로6법
샹빠까규	쿵뽀날조르	니구마와 수카싯디, 2명의 여성수행자가 시작	황금5법, 니구6법
조낭	유모미쿄도지	시간과 공간의 수행	칼라차크라
시제	파담파상계	아상 끊는 수행으로 유명, 마칙랍된 의해 융성	쬐
삼금강	린첸팔	금강해모수행	바즈라요기니



위패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 2단 합동위패 ② / 3단 합동위패 ① / 용전대 ① / 용전대 ② / 목걸이마이크 ① / 목걸이마이크② / 축원카드 보관함 / 소대위패① /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051)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

샤론 샐즈버그(미국 수행지도자)

〈1〉 진정한 행복의 원천

자신의 행복이 역사를 바꾼다

우리는 먼 길을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행복은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놓아 버릴 때, 우리 자신이 늘 있어야 할 곳에 있음을 알 때 비로소 행복은 생겨납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로 등산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흘 동안 등산로를 따라 올랐다가 다시 길을 따라 되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고된 등산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렇게 내려간 길을 다음 날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친구 하나가 나를 바라보며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법적인 세계에서는, 내리막길은 곧 오르막길이 나온다는 의미일 뿐이지."

우리가 즐거움은 붙들고 괴로움은 피하려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의 조건들은 가차 없이 흘러갑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 '고통받는 일'은 무언가 잘못된 결과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면에는 어떻게 해서든 고통이나 손실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뜩 움츠러든 마음으로 우리는 행복에 대해 진정으로 기뻐하지도 못한 채 지독한 고독으로 물러서고 맙니다. 행복 속에서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고, 고독과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지요.

어떤 사람들은 강렬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아소카 왕은 붓다의 열반 이후 250년이 지나 북인도를 통치했던 제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용맹한 아소카 왕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주 참혹한 전투를 치른 뒤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썩어 가는 시체들과, 사체들을 새들이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끔찍한 전쟁터 한가운데를 지나던 그는 자신이 저지른 대학살의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님 한 분이 전쟁터를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평화와 행복으로 빛이 났습니다. 아소카 왕은 그 스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왜 이처럼 불행한가?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가사와 발우뿐인 저 스님은, 이 무시무시한 곳에서 어쩌면 저리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가?'

중대한 결심을 한 왕이 스님을 쫓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여 있지 않은 붓다의 행복
지혜 · 연민 토대 위에 세워져
진정한 행복은 혁명적이기에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스님은 모든 것을 가진 왕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아소카 왕은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통치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떠들썩하게 치러 온 제국주의 전쟁을 그만두었으며 더 이상 백성들이 굶주리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때 폭군이었던 아소카 왕은 수천 년 동안 정의롭고 자비롭다는 칭송을 받으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아소카 왕의 아들과 딸도 출가하여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했습니다. 그곳에 뿌리내린 불교의 가르침은 인도와 스리랑카를 거쳐 미얀마와 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문화적 변화를 거치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아소카 왕이 전한 불교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어느 스님의 빛나는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온함이 역사의 길을 바꾸어 놓았고, 행복에 이르는 불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적 가르침의 바탕에는 본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우리가 구하는 안정, 안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어리석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스스로 괴로운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타오르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은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삶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변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하면 그러한 추구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합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통합한다는 말은 '절반은 어둡고 절반은 밝은 원', 즉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음양의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의 한가운데 한 점의 빛이 있고, 밝은 곳 한가운데 한 점의 어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로워도 그것은 곧 고통에 패배했다거나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 행복할 때라도 언제 괴로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하나이며 통합되어 있음을 깨닫는 일은, 어둠과 빛을 깊게 받아들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완전함'이나 '통합'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들어맞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멋지거나 끔찍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숱한 상처를 받았고 여전히 그 상흔을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겪었으며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전체성(wholeness)은 항상 현존하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선 '통합된 의식'이 바로 우리가 명상수행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경험으로써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계와 인생 자체에 대한 감각에 일어나는 깊은 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합의 건강함'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요. 이때의 '건강'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건강함은 삶과 죽음조차도 넘어선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본래 내재한 완전함, 통합성, 연결성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자신이나 타인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펼쳐진 곳 어디에도 조각나 있다는 느낌이 뿌리내릴 장소는 없습니다.

붓다처럼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건강, 자유, 사랑이라는 덕목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염원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 때나 홀로 선정에 들었을 때, 붓다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온전함'에 대해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의 행복은 쉽게 변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수행 지도자 아잔 차 스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숲속의 연못처럼 맑고 고요할 것입니다. 멋지고 진귀한 온갖 동물들이 그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오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사물의 본성을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지고 진귀한 것들이 왔다가 가 버리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이것이 붓다의 행복입니다."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붓다의 행복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가득 넘치는 연민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suchness, 眞如)'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내적이니 외적이니 하는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재 안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할 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열어 놓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신을 남에게 열어 놓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 내면에서 변혁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근원적으로 변화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깊이 알게 되며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의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차분히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소카 왕이 만났던 그 스님처럼, 우리도 전쟁터를 평온한 마음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이 역사를 바꿀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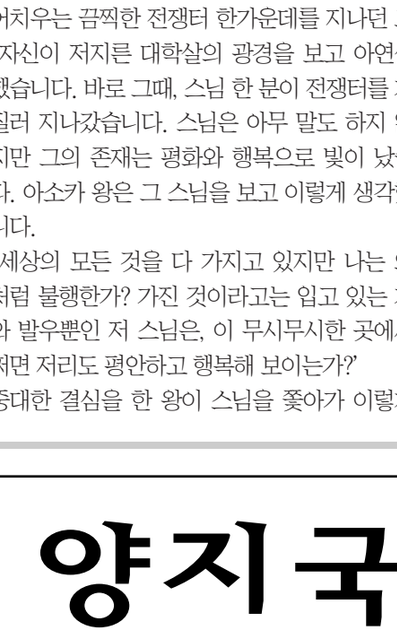
샤론 샐즈버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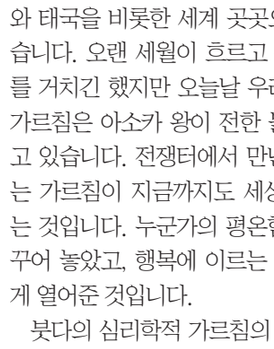
1953년 태어나 뉴욕주립대 재학 중이던 70년대 초,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자신의 불우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 인도로 떠났다.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스님들에게서 처음 불교수행을 접하고, 문인드라의 제자 디파 마를 만나 본격적으로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배리에 '통찰수행회'와 명상수행처 '포레스트 선원', 불교학을 연구하는 '배리 센터'를 공동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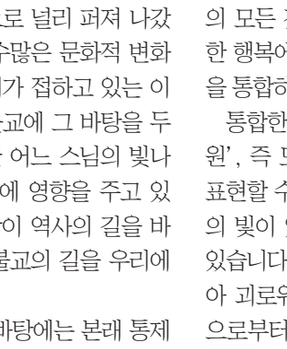
이 글은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 자애〉(조계종 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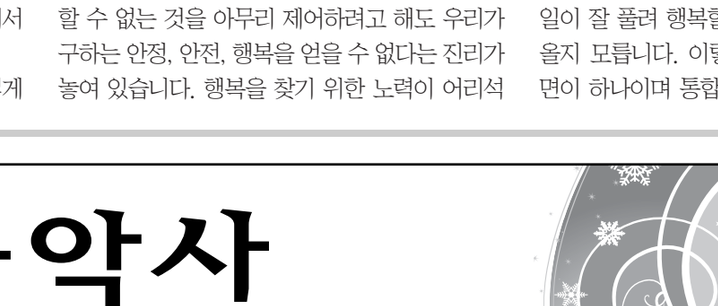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대행 스님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토론 형식으로 서로 질문 문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가야 옳은지 그것을 제가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는 데는 별의 별 천차만별의 뜻으로써,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닌 반면에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다스리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주어지겠죠. 알고 범하는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짓는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다가 한세상을 다해서 떠날 때는 어떤 분들이고 다 가져가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보화라도 바로 방문 안에서 배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대문 안에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친척이 많고 자식 부부지간이 아무리 버릴 수 없는 인연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동구 바깥에서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나온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그 업식이 쫓아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간 그 차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정자 난자, 즉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나의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자기가 선업을 지었다면 선업의 그림자가 거기 포함될 것이요, 악업을 지었다면 바로 악업의 그림자가 거기 따라설 겁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몸뚱이 속에 악업과 선업이 동시에 들어서 모두 지금 현세의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복통이 나게끔 마음이 생기고, 착잡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지로 애고가 생기고 유전성이 생기고 또는 업보성이 생기고, 세균성이 생기고 윤회성이 생기고 이 모두가 자기가 살아온 대가입니다. 그것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것을 이 불가에서는 바로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숙명통에, 과거로부터 가지고 나온 내 몸뚱이 속에 실려 있는 그 그림자, 그 의식들, 그 모습들은 다 내가 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의에서 오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타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돌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언짢은 것이나, 좋은 것이라면 바로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감사하게 놓고 일임하고, 또 잘 안되는 것은 그 모든 과거로부터 그림자처럼 그 컴퓨터에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에다 다시 맡겨 놓는 것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당신만이 모든 거를 다 간파할 수 있어. 어떠한 애고든지 어떠한 병고든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지켜보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참선입니다. 무조건 틀고 앉았다고 그래서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모든 일체, 앉으나 서나 또는 자나 깨나 일하나 어떠한 거든지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속에서 빚어지는 그 가지가지 천차만별의 생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과거로부터 나오는 거를 모두 현실에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바깥으로 끄달리고 바깥으로 신을 찾고 바깥으로 부처님을 찾고 바깥으로 칠성, 관세음 모두 찾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잘못 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못났든 잘났든 자기 빼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이고 자기로부터 생활이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인연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로 인해서 모두 벌어진 것을, 자기로 인해서 나오는 것을 자기로 인해서 또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몸뚱이가 여러분인 줄 알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나의 집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고, 관리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즉 말하자면 대장 소장 간장 방광 콩팥 심장 간장, 이런 회사의 중역들이 바로 여러분 부분에 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 그 수효가, 수십억의 수효가 다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별쭝나게 '나, 나'가 뚜렷하게 선다면 그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물질인 이 몸뚱이는. 그러나 그 의식들과 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떠한 애고가 있더라도 애고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온 것이니까 다시금 입력을 그 자리에다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면서 현실의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것이 무조건 무너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개선해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자유스럽게 걸어갈 때에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몸뚱이 안에 과거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지금 현실에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거고 현실은 공해서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도 바른쪽 왼쪽 조금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쪽 왼쪽 그 핵심에서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사대로 통신을 해서 다들 그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는다면 그런 작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나다.' 그러고 '나뿐이지, 뭐!' 그러고서 내 속에 있는, 작용하는 그 의식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이만하면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내 마음이 그러니 이 속에서들도 그렇게 '너가 너라면 나도 나다.' 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몸에 파워도 올 수 있고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파워를 낼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한 몸뚱이가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계 50%와 물질계 50%가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상대적 원리로써 이것이 같이 화합해서 작용하는 도리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데도 회사에 나가든지 어딜 나가든지 인연의 법칙으로써 인연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는 제자도 있고, 모두 이러한 인연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한 모든 인연들이 성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공부할 수 있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을 하나 이렇게 켠다 하더라도, 촛불을 하나 켠다 하더라도 초의 인연, 심지의 인연 또는 만드는 사람의 인연, 보는 사람의 인연, 켜는 사람의 인연 모두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연의 법칙이 아니라면 우리가 개발이나 과학이나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과학하고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이 그대로 과학이자 그냥 그대로 여여한 자유인이 살 수 있는 여여한 생활입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넓지 못하고 옹졸해서, 즉 말하자면 아주 가깝게 우리가 한 식구를 본다면 한 식구만 보이지만 넓게 본다면 인생도 네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네 부모 따로 찾을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한번 죽어서 다시금 또 딴 집에 가서 태어나고 딴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연방연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구름이 모였다가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럭하다 보니까, 넓게 생각을 한다면 네 구름 내 구름 찾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부모가 따로 없고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자식이 따로 없더라. 네 생명이 따로 없고 내 생명이 따로 없고 모두가 둘이 아니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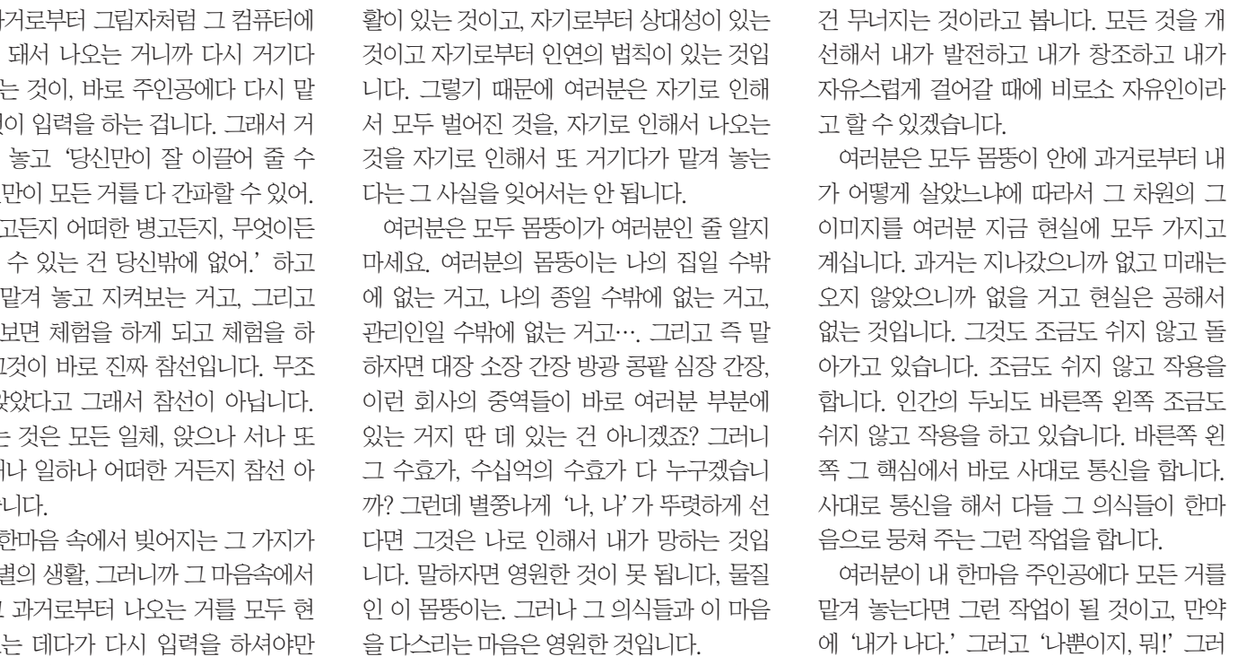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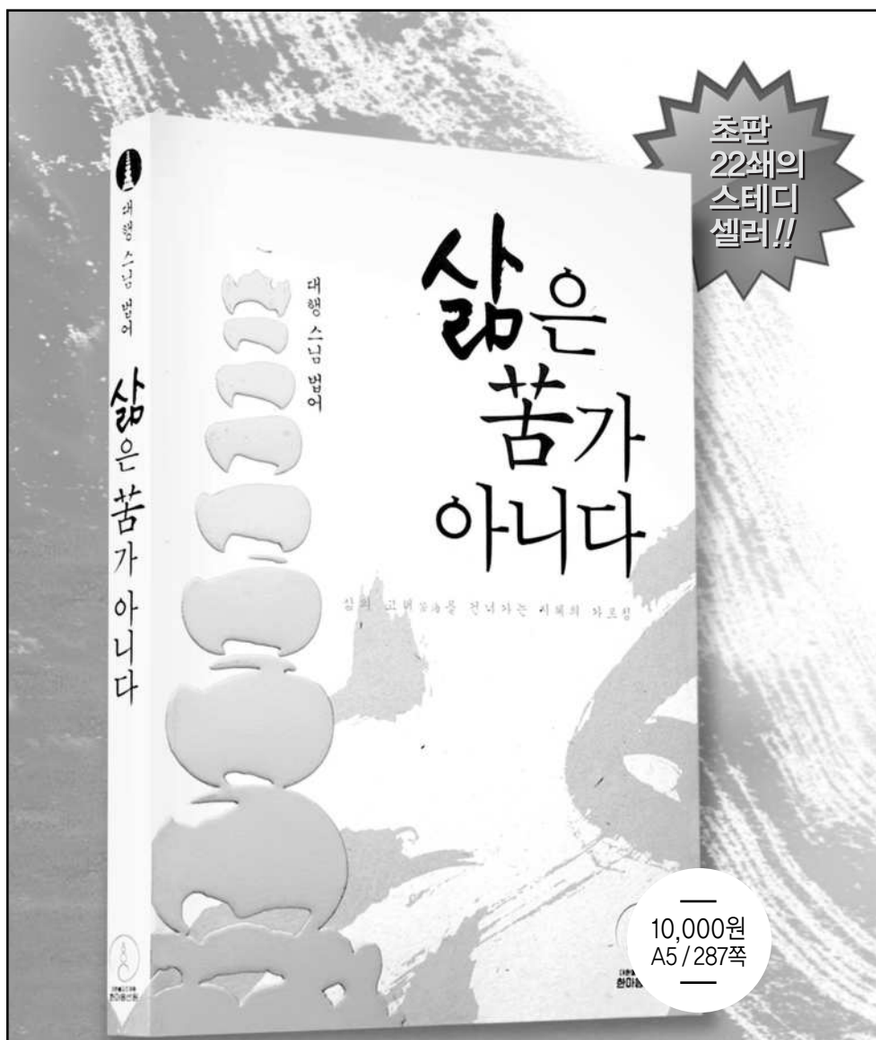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계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장자인 주인이 엄연히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더라. 이 모든 자리도 네 자리 내 자리가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크고 작음이 둘이 아니요, 모든 일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천지 인 삼대, 삼심이 다 일심이니 그 일심이 바로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지만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그랬으니 여러분도 바로 지수화풍 네 가지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을 용도에 따라서 충만히 끌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발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요소가 또 대두돼 있고, 맘대로 끌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오신통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천이통, 이것은 무전통신기를 말합니다. 듣지 않는 데서 들을 수 있는 거를, 모든 데서 말입니다. 또 마음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거를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신족통을 지금 용어로 팩시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 되겠죠? 타심통을 탐지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남의 마음을 아주 상세히 아는 걸 말합니다. 숙명통은 과거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로부터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보는 거와 같은 거니까요. 한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천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것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아무리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아주 빤하게 다 일거일동 안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과거로부터 어떻게 나온 거를 아주 솔살피 알아도 이것은 도가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섯 가지를 볼 때에 우리의 이 몸뚱이, 통 속이라고 합니다, 통 속! 우리 몸뚱이를 통 속이라고 그럽니다, 몸뚱이 안. 만약에 몸뚱이 안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면 통 안에서 내 몸뚱이를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바로 이 우주의 모든 섭류를 자유롭게 굴릴 수가 없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이 모든 마음을 탁, 그 다섯 가지에 속박되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속박되지 말고 벗어나야만이, 즉 말하자면 누진, 지금 시체로 말하면 레이더망이라고 그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그건 물질이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지마는 말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전부 책정하고 통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누진에서,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서 누진으로, 누진의 작용으로, 즉 말하자면 양면의 작용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누진이라고 합니다. 누진에서는 맘대로 들고 나고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가졌습니다, 누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까 얘기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 그런 것들을요. 그러한 모든 그 핵심의 에너지 여건을 주기도 하고 내가 용도에 따라서 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말한다면 이 물 한 그릇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목마르면 자기도 마실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무리 봤어도 갖다가 먹을 수 없다면, 쓸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요, 듣고 자유스럽게 그것을 작용을 못한다면 들으나마나죠?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가고 오나마나 모두가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내 몸뚱이 속에, 이 정신력에 다 있으니까 눈이 간 데 귀가 가고, 귀가 간 데 냄새가 가고 결정이 가고 부딪침이 가고 모두 이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회 의식에 있었던 반야심경에도 바로 둘이 아니어서, 고정됨이 없어서 없다고 그랬죠? 그 모두가 내가 아무리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목마른 생각이 있고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알면 아무 말 없이 물 한 그릇 푹 떠서 탁 주고 탁 자기 먹고 '아! 이만하면 목마른 것을 시원하게 축였구나. 이만하면 목마른 갈증이 없을 것을….' 하면 그뿐이지 거기 뭐가 이론이 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에 묶여 있는 것이 오신통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소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지금 대변이 마려워서 죽겠는데 대변 마려운 생각뿐이지 거기에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는 말입니다. 들어가서 똥을 팍 싸 놓고 봐야 그때 인제 뭐든 생각나고 그러지, 그 외에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떠한 거든지 거기에다, 자가발전소에다 대기만 하면 다 그냥 타 버리니까. 나쁜 것도 타 버리고 좋은 것은 승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보세요.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돼서 나가죠? 넣는 사람, 작업하는 사람이 작업만 잘한다면 생산돼서 나가는 거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올 것이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올 것인데 구태여 왜 걱정을 하고 지냅니까? 이 세상에 한번 나서 캠핑을 왔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만 알면 잘 다스려서 부드럽게 잘 행동하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증오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한 가정에서 한 철 나다 간다 하더라도 부질없이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니, 한 철 나러 왔다가 웬 싸움입니까? 그리고 한 철 나러 왔다가 다 놀면 소꿉장난 놀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와 같은 건데 그거 왜들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라도, 자식과 부모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괴로운 것은 거기다 맡기고 서로를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상통해서 서로 한방에 불이 들어오듯 그렇게 에너지에 불이 당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일이 성립이 잘되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유전성이 없어지니 좋고 이거는 모든 일거일동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여튼 강하고, 그저 말도 다스리지 않고 속상하는 대로 탁탁 내뱉으면 뱉는 그대로 이 속에서도 그대로 내뱉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속의 그 의식들이 그대로 따르니까요. 그리고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자꾸자꾸, 이거는 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내 안에만 들어 있다고 생각 마세요. 세균성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나가서 끌고 들어오는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집을 비워 두면 자손들이 친구들하고 막 들어와서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이 집안에 주인이 없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집안에 주인이 없다면 그냥 뭇 의식들을 끌고 들어와서 막 난장을 벌이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집도 주인이 없이 아마 일 년이고 이태고 십 년이고 그냥 놔둬 보십시오. 거미줄이 슬고 썩어들어 갑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장자인 주인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그 기둥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을 것도 못 되고 허공을 믿을 것도 못 됩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쳇바퀴에서 좀 훨훨 벗어나고 싶진 않습니까? 중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이건 중만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진리가 다 그러합니다. 한 핵심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한 핵심에 과학도 의학도 모두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가설이 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를 이 핵심 속에서 다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굴리고 돌아갈 때에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려니 알아야 끌어 쓰죠. 아, 숟가락을 갖다 주고 먹으라 해도 못 먹는데, "숟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떠 먹을 게 보여야 떠 먹죠." 요러는 걸요. 하하하….

아, 전력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불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전력이 있다는 것은 믿죠? 그렇게 믿듯이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도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을, 신념을 가지세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루라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고 빛깔도 없고 쥘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대의적인, 즉 이름입니다. 영화에서도, 007인가 뭐, 거기서도 주인공 죽는 법 못 보셨죠?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그 용도를 가지고, 또는 대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또 출현할지, 그것은 또 그 다음 일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얍삽한지 남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걸로 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떡하면 좋은 거를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 섭류가 한데 동시에, 우주 법계가 한데 합치는 마음입니다. 그저 남에게 그냥 준다고 해서 이것이 공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량에도 '아, 이것이 중들의 도량이 아니라 우리들과 중들과 동시에 같이 배우는 한도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그냥 그 도량에서 일주일 일주일 우리가 가는 그런 거니까 십시일반으로 그저 2불이든 3불이든 내가 같이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내 이름을 내서 저 방송국에 갖다가 아이, 그 이름을 척 써서 아, 좋은 일을 해 달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건 공덕이 못 됩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좀 위대하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말입니다. 공덕이란 이 우주 법계에서 다 알고 결정을 짓는 것이 공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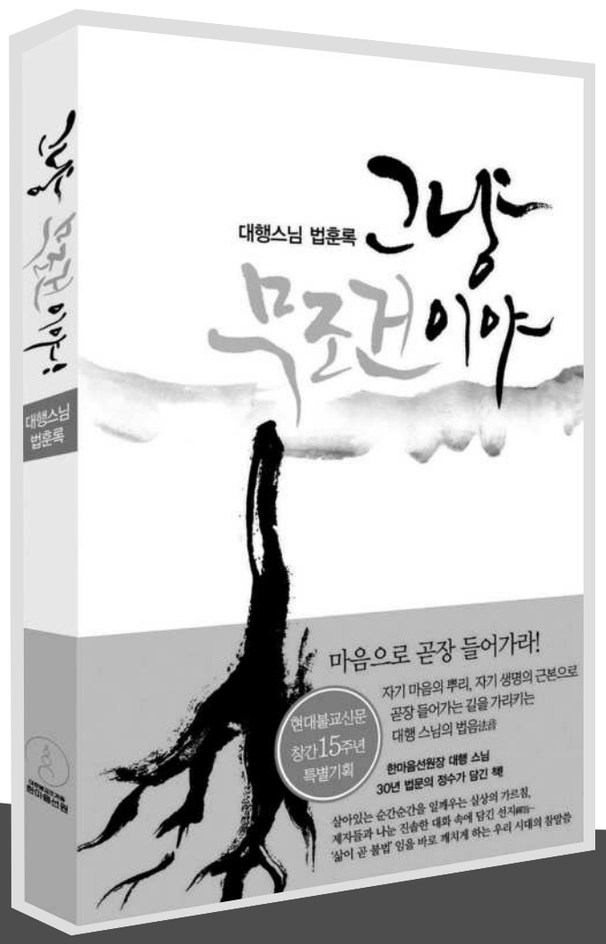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미국에 올 때는 여러 분이 달러를 바꿔서 정성스럽게 해서 싸 줍니다. 또 어떤 때는 거기 있는데도 용돈이 참 많이 들어갈 테니까 용돈을 쓰라고 줍니다. 주는데 그 용돈 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잘 배워서 회사의 회장 노릇 하는 사람들, 뭐 사장 노릇 하는 사람들, 뭐 별 사람 다 많죠. 과학자든 물리학자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팀들이 죄 돼 있습니다, 서울은. 그럭해 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너무들 신기하게 잘되거든요. 상대방의 모든 것들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아, 그냥 내 회사 직원들도 잘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 용돈을 갖다 줘도 몇 배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스님 시켜서 차곡차곡 또 모아 놓습니다. 그랬다가, 전세도 사글세도 들 수 없어서 방을 내쫓기는 이런 형편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런 때는 누가 볼세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내가 절에 와서 도움이나 받고 이런다고 소문이 나면 그 사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넌지시 그것을 줍니다. 하다못해 방이라도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소리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거는 어떻게 먹더라도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전력이 있다는 것은 믿죠?
그렇게 믿듯이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도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을, 신념을 가지세요.

※위 법문은 1992년 6월 28일 오하이 오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가정 화목이 청소년 범죄 막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범죄학 박사

우리주변 폭력적 청소년 많아
가장 큰 원인은 가정환경의 문제
소년범죄는 '사회 부적응의 증상'

가정해체는 청소년 범죄의 원흉
올바른 부모 가진 문제아는 없어

아이들과의 소통 교육 훈련 절실
국가가 친권대신할 보호망 필요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17세의 여고생으로 밝혀져 우리를 다시 한 번 경악케 하였다. 청소년들의 강력사건은 이 뿐만 아니다. 몇 년 전 겨울 어느 빌라의 계단을 서성이던 16세의 소년은 때 마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비운 집으로 숨어들었다가 집으로 돌아온 주부를 강간하고 감금하여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임신한 여자 친구가 임신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와 공모하여 시신을 유기한 범인도 18세의 남자아이였다. 그 만큼 우리주변에는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환경의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하며,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사회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했다면 한 사람의 아이도 일탈과 탈선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흔히 소년범죄를 '사회 부적응의 증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사회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 사회화기관 중에서도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물론 가정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다.

소년범죄는 곧 건전하지,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와 우리사회의 가정이 어떤 문제나 역기능을 겪고 이기에 이처럼 심각한 소년범죄와 같은 문제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게 되었을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의 해체에서 그 이유도 들고 있다. 가뜩이나 현대가정이 집(home)은 있으나 가정(family)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적 불황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혼의 증가와 같은 물리적 결손가정은 물론이고 가족구성원간의 불화 등 심리적, 감정적 결손가정의 증대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정 해체가 청소년 범죄의 원흉으로 비난 받는 것일까. 우리의 소년사법제도 자체가 바로 '국친사상', 즉 보호자가 청소년을 정상적으로 보호 육성,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친권자를 대신해 보호 한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가. 그처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부모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이고 그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많은 소년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모든 문제 아이들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정이 있고 문제 부모가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부모를 가진 잘못된 문제아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흔히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나쁜 것을 보인다면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연구결과 매 맞고 자란 아이가 제 자식도 때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듯이 말이다.

소년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좋은 부모되기, 즉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기능, 사명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 등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가정의 존재 자체나 기본적인 기능조차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소년사법처럼 국가가 친권자를 대신할 수 있는 보호망과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社說

Temple에 외국인 오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방한한 외국인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템플스테이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 참가자는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템플스테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참여가 요즈음 늘고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2만 4~5000명 수준을 맴돌다 2015년 3만 2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또한 봄 시즌에만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이른바 템플스테이 외국인 유치 2.0이다. 문제는 재참가율이 낮다는 것이다. 2015년 불교문화사업단 자체 조사에서 '재참가 의사'를 밝힌 이들의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템플스테이의 발전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외국어 안내와 낯선 숙박환경, 편의시설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들이 사찰까지 편하게 올 수 있는 셔틀 운영등 교통편을 개선하고 온라인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마케팅이 있어야 한다. 또 낯선 좌식문화도 일부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템플스테이의 경쟁 상대는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펜션 등 다른 관광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이 다시금 찾아오고 싶어 하는데 달려있다. 도입 16년 차를 맞이한 템플스테이는 이제 발전단계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시민 안전은 환경영향평가로부터

현대자동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환경영향평가가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각종 환경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저감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동안 봉은사대책위가 수개월에 걸쳐 현대차 측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또 롯데그룹이 송파구에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은 사례를 미뤄볼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 GBC 건립사업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1월 '한전부지 개발 조기착공 지원'을 발표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한전부지를 등기이전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됐다. 일각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현대차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결국 재심의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현대차 GBC 건립사업과 같은 기간 진행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도 이 같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차와는 다른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두 사업은 유사성과 인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끝난 뒤 초래할 환경문제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 한 사업이 다른 사업 결과에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할 수 있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시의 수익성, 관광성 등 여러 가치 중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안전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시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부디 환경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기간에 걸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특별기고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하는 이유는?



법진 스님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금년에는 윤달이 5월에 들었는데 특히 안거 중에 있어서 각 사찰마다 생전예수재 준비와, 안거 기도로 도량에 정진하는 기도 소리가 신명나게 들린다. 예수재의 기원은 불교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 심성 약한 인간의 본성은 자연환경 어디에라도 매달리고 싶고, 작은 불상사라도 있으면 천지신명이나 산천초목이 노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으며, 그 사이에 전생에 죄를 짓고 태어나 업보로 고통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전예수재의 역사는 경전 〈지장보살본원경〉을 비롯해 〈불설수생경〉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 〈예수천왕통의〉 등 여러 경전 속에서 그 교리적 근거와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지장보살본원경〉권 하서 특히 주목할 단어는 자수(自修:스스로 공덕을 닦음)와 역수(逆修), 예수(豫修)라는 용어다.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이익존망품'에는 "생전에 선인(善因)을 닦지 않고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사후에 그 권속들이 망자를 위해 대소 공덕을 베풀면, 그 공덕은 망자뿐 아니라 재를 베푼자가 오히려 더 수승 한 공덕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현재 말세의 중생들은 자수해 많은 공덕을 닦아야 한다. 사후에 권속이 천도재를 베풀어 주면 큰 공덕이 되지만 어찌 꼭 지내 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생전에 미리 닦는 예수재(자수)는 모든 공덕을 본인이 받는다고 했다.

그럼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언제부터 생전예수재의 형태가 나타났을까? 처음 나타난 기록은 조선 중종 13년(1518)에 강원도 원주 사람인 진사 김위(金渭)의 상소문에 등장하는 '소번재(燒幡齋)'이다. 내용은 근일 이래로 두 세 승니(僧尼)가 머리를 땋아 늘이고 속인 복장으로 몰래 내지(內旨:임금의 비밀명령)라 일컬으며, 산중에 있는 절에 출입해 쌀과 재를 많이 가져다 재승(齋僧)에게 공양하고, 당개(幢蓋 장엄 번)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세워놓고, 또 시왕(十王)의 번이나, 화상을 설치해 각각 세워 두며, 한곳에 종이 1백 여 속(束:전생에 빚을 갚는 종이)를 쌓아두었다가 법회를 설시(設施)하는 저녁에 태워버렸다는 상소내용으로 보아 이것이 생전예수재의 형태로 판단된다. 예수재란 특히 종명에 가까운 노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은 복중 아기 때부터 해주어야 좋다고 생각한다. 예수재란 글자 그대로 전생에 지은바 업을 소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생에 지은 크고 작은 죄를 씻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전예수재는 참외수박 심기 좋은 밭에 파종 전 잡초를 미리 뽑아 버리는 이치와 같다. 잡초가 많으면 어린 씨앗들이 잡초의 억센 힘에 싹 자체가 발아 과정서 녹아 버리거나 다행히 발아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우리 삶의 많은 불행의 고통은 모두 업연의 소치다. 전생에 지은 업이 금생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느 조사 스님이 말하시길 전생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살아가는 과정을 보고 내생에 내가 받을 일을 알려면 금생을 살면서 선과 악을 인식하라 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뜻이다. 선업은 잘 크지 않지만 악업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수없이 넝쿨을 뻗으며 뿌리도 깊어진다. 경전에 '아생초곡군지부(兒生初哭君知否: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통곡하는 의미를 그대는 아는가?' '일낙인간만종수(一落人間萬種愁)이라: 한번 인간세상 태어났다하면 근심이 만 가지라네.' 라 했다. 바로 이와 같이 고통의 근원을 소멸하고자 하는 것이 생전예수재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10-5640-8883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연꽃향 국내산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 약쑥향 국내산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국내산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andle.com

조연향당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나는 '佛弟子' 다큐 영화감독"

테마人 이창재(51 · 영화 감독 · 중앙대 교수)

기자의 통상적 질문. "불교를 신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명확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불교신자'가 아닙니다. '불제자(佛弟子)'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답변이 이어졌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아 설하신 가르침과 수행법을 평생 따르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처님 제자, '불제자'라고 합니다."

불자들에게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상을 스크린에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서'로 유명한 이창재 감독은 자신을 '불제자'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그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 신행활동이 아닌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그는 다큐 영화 '노무현입니다'로 돌아왔다. 지난 5월 25일 개봉한 '노무현입니다'는 다큐영화 중 최단 기간 100만 관객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현재는 160만 명의 관객을 훌쩍 넘어섰다.

주말 예매 순위에서도 '캐리비안 해적' · '원더우먼'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 중이다.

영화 제작을 위한 '勇氣'

세상에 내놓은 작품마다 대중과 평단에게 후한 평가를 받았던 이 감독이지만, 이 같은 흥행몰이는 낯설다. 서거한지 8년이 지난 전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를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찾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봉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얼떨떨하고 적응이 안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잊혀질만 한데 관객들이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는 것을 보고 노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의 잔향이 많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감독은 드라마와 같던 노 대통령의 경선 과정을 보지 못했다. 당시에는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 외국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간간히 뉴스와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할 뿐이었다. 2004년 귀국해 대학서 교편을 잡은 시기의 세상은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욕만 해댔다. 2008년 퇴임 후 봉화에 내려간 노 대통령에게서는 인간미를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2009년 서거. 안타까운 마음에 광화문 노제에 갔을 때 PVC에 만장이 걸린 것을 보고 그는 매우 놀랐다.

"2009년 서거 당시 복잡한 감정으로 노제에 참석했는데 만장들이 대나무가 아닌 PVC파이프에 걸렸더라고요. 알아보니 정부가 '폭도로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대나무 사용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무엇을 저리 두려워해 최소한의 예도 표하지 않는 것인가?' 슬픔과 울분이 교차하더군요. 이것이 제가 '인간 노무현'을 탐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하지만,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걸렸다. 이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용기를 내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 정부에서 '노무현'이라는 석 자는 마치 '금기된 이름'이 됐다.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감독과 제작 · 배급사들이 고초를 겪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료 다큐 감독들도 '노무현'을 쉽게 다루지 못했다. 결국 감독 스스로 나서게 됐다.

"영화 제작에 들어간 것이 2014년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정치권과 밀접한 친구에게 '영화 제작을 하겠다'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답은 '교직을 걸고 제작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세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 형국이 되면서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겠구나'는 희망을 갖고 영화 작업을 했습니다."

'노무현'이란 인연의 띠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철저한 인물 조명 다큐이다. 수집된 영상과 지인 · 친구 · 후배 등 인터뷰들로 109분의 런닝 타임을 이끌어간다. 특히 인터뷰이(interviewee, 인터뷰를 응하는 사람)의 증언에 의해 '인간 노무현'은 구성되어 진다.

이 감독이 가장 신경 쓴 부분도 인터뷰이의 선정이었다. 시기별 인사를 추리고 미디어적합도 등을 고려해서 70명의 인터뷰이가 선정됐다. 그중 50여 명의 촬영이 이뤄졌다. 인터뷰이 작업만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영화 제작 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에는 숨은 의인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증언부터 자료, 영상들을 제공해줬다. 그래도 영화를 구성하기에는 원천 소스가 부족했다.

"8개월 동안은 소스를 찾기 위해 다녔습니다. 원래 모든 소스를 구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영상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15일이면 끝날 보정이 40일이 걸리곤 했어요. 컴컴한 밤에 짧은 헤드라이트 하나 켜고 운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무현입니다'에 대하여

교직까지 걸 각오로 제작 시작
용기 내니 숨은 義人들이 도움
인터뷰 70명, 영상 보정 40일
"깜깜한 어둠 속을 걷는 기분"

이창재스럽지 않은 영화

주제부터 촬영까지 모두 '파격'
기존 틀을 깬 인터뷰 정면 촬영
경선 영상, 소리 채널 달리 사용
몰입도 높여 '인간 노무현' 조명

파격의 영상 · '인간 노무현'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여러 면에서 이 감독의 이전 작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단 매우 동적인 주제인 '정치인'을 선정했으며, 이에 맞춘 영상 촬영들이 확연하게 달랐다. 대표적인 것인 인터뷰 장면이다. 일반적으로 다큐 인터뷰 촬영은 5~45도 사선에서 촬영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는 인터뷰이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객관적 증언을 하고 있음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법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모든 인터뷰이들은 정면의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 한다. 시간도 엄청 길다. 최고로 긴 인터뷰는 10분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이 감독은 모든 것이 의도된 연출이었다고 했다. 바로 '몰입'을 위해서다. 관찰을 중시했던 그의 철학과는 대치되는 결정이었다.

B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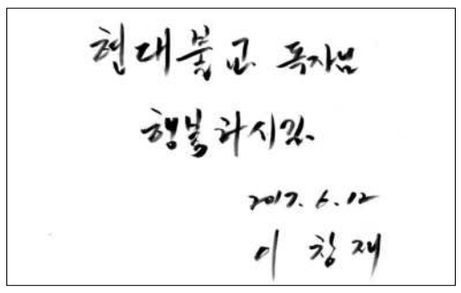
6월 12일 중앙대 교수실서 만난 이창재 감독. '길위에서'로 불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최근 '노무현입니다'로 돌아왔다.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4 출판 원철 스님의 〈스스로를 달빛 삼다 自月明〉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영화, 스스로의 질문을 찾는 과정”

‘이창재 영화감독’ B1면에서 계속





“정면 인터뷰 촬영과 더불어 뒤의 배경도 모두 검은 색으로 통일했어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으면 정석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는 주관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호소에 가깝다는 느낌이었죠. 인터뷰를 통해 ‘인간 노무현’이 보였으면 했어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에요. 경선 장면에서 연설 사운드는 2.1채널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박수와 환호 소리 등은 서라운드 5.1채널로 들리도록 했어요. 마치 경선장에 있는 것처럼. 모두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 같은 몰입의 장치들은 오로지 ‘인간 노무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배제돼 있다. 기적적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 바로 비극적 죽음이 대치되는 연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간 노무현’을 알고 나아가 그를, 그의 시대를 탐구해달라는 게 감독의 바람이다.

방황했던 시절 만난 ‘불교 · 영화’

‘길위에서’부터 ‘노무현입니다’까지 인연을 맺어온 최낙용 PD는 최근 한 영화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감독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인간적으로 구도자 같은 사람이다. 틈만 나면 명상을 한다든가 수련을 하면서 근본적인 영성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가장 친한 지인의 이 같은 평가가 맞는지 당사자인 이 감독에게 묻자 “그 분이 그 방면에서 대해 안이하기 때문”이라고 바로 손사래를 쳤다.

손사래는 쳤지만, 이 감독의 수행 이력은 만만치 않다. 영화 작업을 마치거나 방학 중에는 짧게는 10일, 길게는 2달씩 장기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의 수행법은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이다. 주로 수행했던 곳 역시 위빠사나 수행으로 유명한 남양주 봉인사, 천안 호두마을 등이다.

나에게 ‘길위에서’는
다시 못할 가장 힘들었던 작업
‘출가’대한 막연한 환상 접게 돼
스스로 삶에 더욱 집중할 계기
“최종적으로 未完… 아쉬움 남아”

‘佛弟子’이창재
부처님 가르침 평생 실천 ‘다짐’
봉인사 · 호두마을 등서 수행 정진
“가장 행복한 길은 출가” 확신
7월부터 수행처서 정진 계획도

“108배는 꾸준히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영화를 시작하면 전혀 수행할 엄두를 못 내지요. 지금은 그냥 급한 불을 끄는 정도입니다. 일상에서 꾸준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속세에서 살아갈만 한 마음가짐을 만드는 정도의 수행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린 시절 이 감독은 많은 방황을 거쳤다. 한양대 법학과에 입학하고 특히 그랬다. 말이 통하는 친구도 없었고, 학과 생활은 답답했다. 그러다 지인이 책 한권을 건넸다. 일본 불교학자 마츠다니 후미오의 〈현대불교 입문〉이었다.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불교와는 차이가 있었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웠다. 이해하기 시작하니, 내 몸에 붙은 불을 끄고 싶었다. 안국선원 등을 다니며 수행했고, 출가에 대한 고민도 깊게 가졌다.

하지만, 곧 대학 졸업반이 됐고 취업해 사회인이 됐다. 신문사, 광고 · 홍보 등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그가 안착한 곳은 다큐멘터리 PD였다. 그 방면에서는 이른 나이에 제법 성공했다. 상도 수상하고, 승진도 빨랐다. 방황이 다시 시작됐다. “작은 언덕을 너무 빨리 올랐다”는 이 감독은 35살에 영화를 공부하겠다며 훌쩍 유학을 떠났다.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생각이 강해요. 운도 따라줬고요. 정말 빈털터리가 돼 돌아왔는데 곧바로 교직 임용이 됐고, ‘사이에서’를 발표할 수 있었죠. 잘은 모르지만, 흔들린 경험들이 도움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경계, 그리고 사람 이야기

스스로의 길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이 감독을 이끈 동력이기도 하다. 이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다. ‘노무현입니다’를 제외한 ‘사이에서(2006)’ · ‘길위에서(2012)’ · ‘목숨(2014)’은 각각 무속인, 비구니 스님, 호스피스 병동을 담아낸 다. 이들 작품은 모두 신과 인간, 성과 속,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경계와 사람 이야기는 내가 가장 원하는 질문”이라고 말한다.

“나에게 다큐 영화는 내가 던진 질문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내가 던진 질문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영화를 핑계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길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묻고 상상했던, ‘내가 출가했더라면’이라는 생각과 의문들을 대입한 것입니다.”

‘길위에서’ 만났던 것들

대학시절 출가를 고민했던 그는 ‘길위에서’를 제작 · 연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애착도 아쉬움도 많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제가 여태까지 제작한 다큐 영화 중 가장 힘들었다. 다시는 못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풀었다.

“6개월을 안식년 받아 백흥암에 들어가서 300일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부터 섭외까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정신적으로 바짝 바짝 말랐죠. ‘길위에서’는 제게 미완의 작품입니다. 더 들어가서 내면적 인터뷰를 끌어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어요. 300일 절집 생활을 해보니 여러 가지를 느낀 점도 많습니다. 우선 막연했던 출가에 대한 환상들이 깨졌죠.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더군요. 스님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하루 중 내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하는 시간이 5%로 안되지만, 스님들은 절반 이상을 수행하시니까요.”

이 감독은 자신의 자녀가 선근(善根)이 있어 출가를 한다면 정말 좋은 출가를 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 가장 행복한 길은 출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가 원하는 길일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인터뷰 말미, 이 감독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수행할 겁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수행에 들어간다는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자신에게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할 시기다. 갈증처럼 다가올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영화’와 ‘수행’은 계속된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이창재 감독’s Filmography



사이에서(2006)

대무(大巫) 이해경에게 평범한 ‘인희’라는 여자가 찾아온다. 요즘 들어 자꾸만 몸이 아프고, 집안에도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그녀. 하지만 자신이 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부한다. 영화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불가해한 소통을 업으로 삼는 무당의 존재를 통해 둘 사이의 미묘하고도 위태로운 선을 이어주는 무당의 삶을 감동적으로 포착한다. 특히, 자신들의 힘겨운 운명을 버텨내는 무속인들의 삶과 굿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깊이 투영해낸다.



길위에서(2012)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중 젠(Zen) 센터의 경험으로 출가한 상욱 행자, 인터넷 검색으로 ‘절’에 왔다는 민재 행자, 어린 시절 사찰에 버려져 ‘동진 출가’한 선우 스님 등의 출가와 수행 등을 조명한다. 이 영화를 위해 이창재 감독은 300일을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에서 살며, 촬영했다. 국내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사찰 생활을 직접 영화화 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2013년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목숨(2014)

삶의 끝에서 잠시 머물며 이별을 준비하는 곳,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임종 앞에서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마치 처음인 듯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슬픈데 웃음도 나고 겁나는데 따뜻하기도 하고, 가족이 생각나고 오늘이 소중해지고 괜히 반성하게 되는 시간. 임종을 통해 보게 되는 살아있다는 것의 기적.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만난다.



노무현입니다(2017)

국회의원, 시장 선거 등 출마하는 선거마다 번번이 낙선했던 만년 꼴찌 후보 노무현이 2002년 대선 당시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도입된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경선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지며 영화는 시작된다. 지지율 2%로 시작해 경선을 이겨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다큐 영화 중 가장 빨리 1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지금의 확실한 변화, 절수행서 시작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⑫ 불안 · 좌절의 극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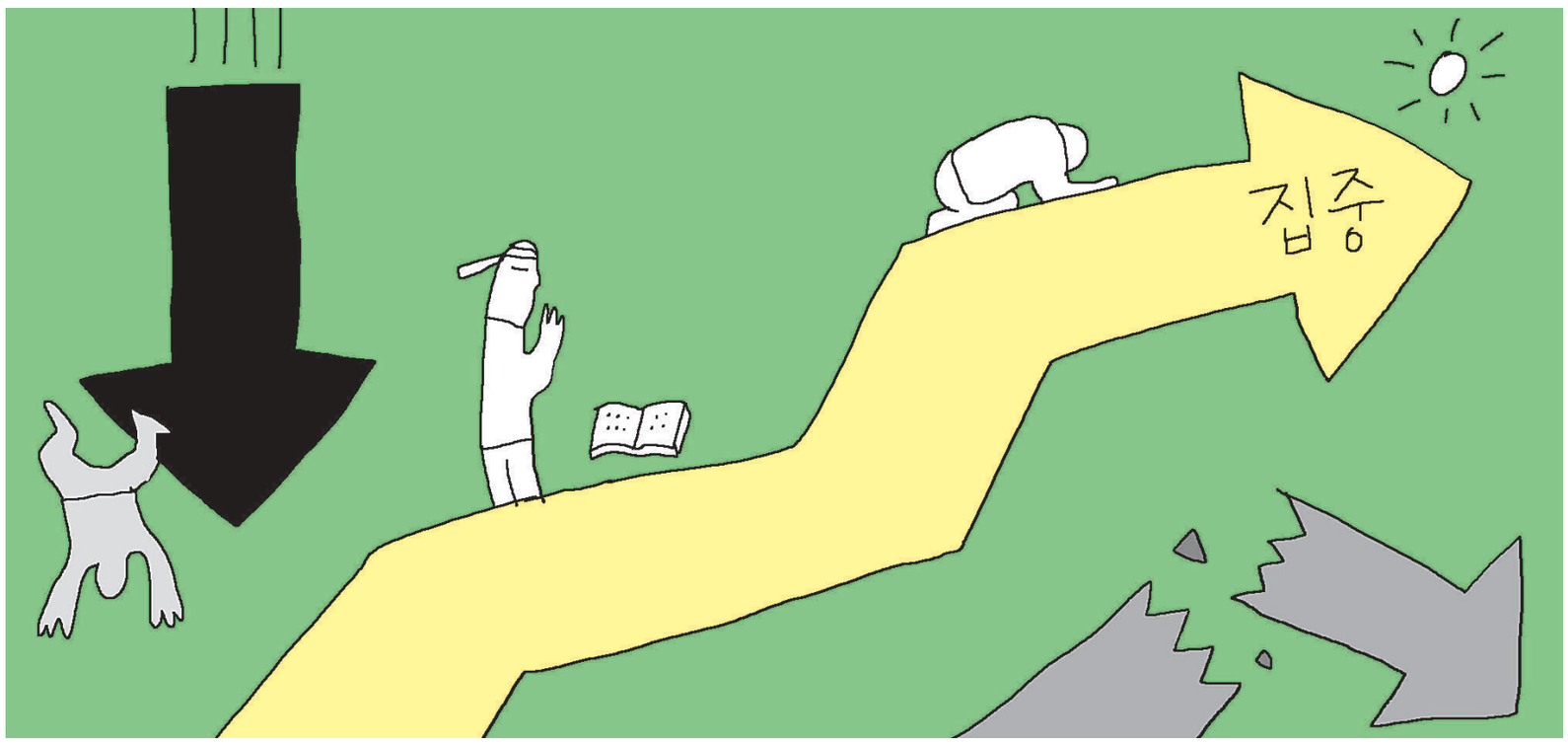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젊은 날, 수덕사 방장스님의 108배

요즘 108배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누구를 만나든 '혹시 108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스님들을 만날 땐 더 그렇다. 지난 주 남편과 수덕사에 갔다가 방장 설정 스님을 뵈었다. 지난해 스님과 대담을 나눈 책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저로 낸 터라 본의 아니게 스님의 삶을 꿰뚫고(?) 있었다. 스님이 살아오면서 절을 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보았다. 당장 '무슨 소리를?' 하는 표정으로 108배로 젊음의 혈기를 다스렸던 이야기를 꺼내셨다.

스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열네 살에 동진 출가했다. 그리고 20대 중반, 군대에 다녀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대학에 시험을 쳤다가 첫해에 고배를 마셨다. 죽을힘을 다해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지자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무능함을 비관해 위험한 생각까지도 했던 스님은 무전여행을 하면서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심기일전, 다시 도전해 다음해 서울대에 들어갔다. 청춘들이 모인 대학은 스스로 마음을 고르고 경계하지 않으면 출가자로서의 선을 벗어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스님이 그때 택한 것은 108배였다.

해인사 강원생이던 시절, 아침마다 매일 108배를 하던 지관 스님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지관스님은 불교학자이자 금석문의 대가로 동국대 총장,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분이다. 당시 해인사 강사로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하나 철저히 실천하면서 한치 흐트러짐 없이 생활하던 지관 스님을 존경했던 스님은 삶에 경건함이 필요한 시점에서 108배를 시작했다. 스님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108배를 했다. 젊은 날의 그 경건한 의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쉽고 편하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스님의 철학을 지키게 한 굳건한 힘이 되었다.

박찬호 선수와 108배

인기 남성 그룹 빅뱅의 탑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가수로서의 추락은 물론 군대에 재입대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에서 인기를 구가하며 젊은 나이에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던 그를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했던 터라 더 충격이 컸다. 더욱이 가수를 꿈꾸는 연습생들에겐 로망이었을 그가 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마초에 손을 댔을까. 언젠가는 인기의 정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남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에 따른 공허함과 불안감 때문이었을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그의 기사를 다루어 온 국민은 물론 해외까지도 그의 소식이 전해진 며칠 후 그가 군대 내무반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만한 나이의 자식을 가진 나로서는 그렇게 마음이 짠할 수가 없었다. 그가 안정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인기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은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한국 야구선수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 2010년에는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을 거두어 메이저리그 동양인 최다 승투수에 등극했던 박찬호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최고의 야구선수라는 칭호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승수를 올려야 하는 그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박찬호 선수는 어떻게 그 불안감을 극복했을까? 108배의 힘이 컸다. 지난 회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새벽 네 시에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숭산 스님이 주석하던 서울 수유리 화계사에서 108배를 올렸다고 한다. 매일 108배를 하고, 잠자기 전에 3,40분 정도 참선을 하면서 불안감을 달래며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 작은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지난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안타, 홈런을 맞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겼다. 자신이 걱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이 공 하나다, 안타든 승패든 현실을 축소시켜 지금 이 시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즈음 그가 일간지 기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나의 영원한 목표는 최고의 1구를 던지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삼진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며 20승도 아니고 비록 공 하나지만 1구 1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절을 통해 집중력이 증진되고 승패에 연연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마주한 일에 집중,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터득한 것이다.

108배를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이라고 한다. 명상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도구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자신감도 증가된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108배다. 불안감은 현재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108배를 해보면 절을 하는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처음엔 온갖 생각들이 올라와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하는 행위만 남게 된다. 몸이 힘들어지면 저절로 다른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3천배를 하게 되면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복잡한 생각이 발 디딜 틈이 없다. 정화의 힘이기도 하다.

설정 스님, 서울대서 108배
박찬호도 화계사서 수행정진
108배로 승리 압박감 떨쳐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지금의 나로부터 벗어나 확실한 변화를 이루고 싶을 때 3천배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자신을 극복하는 그 힘겨운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3천배 통해 자신을 바꾼 청년

고등학교 때부터 108배를 해오면서 자신의 삶을 확 바꾼 젊은이가 있다. 내가 아는 젊은이 중 절 수행을 해서 가장 강력하게 변화의 최고점을 찍은 사람이다. 물리학도였던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김천 수도암 새벽예불에서였다. 단행본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정리하고 있으면서 매일 새벽예불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때마다 예불에 상관없이 맨 앞자리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휴학을 하고 100일을 작정한 채 하루 3천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세상에, 학생이 그것도 며칠 동안도 아니고 100일 동안 3천배를 하겠다니. 그가 왜 휴학을 하고 어떤 변화를 바라며 3천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무조건 그에게 감동했고 그 뚝심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거라 믿었다. 보름 정도 머무는 동안 나는 그가 조용히 절하는 모습만 보았고, 마음 속에 훌륭한 젊은이의 이미지로 새겨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를 다시 만난 건 108배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3년 전이다.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한 그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했다.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도 매일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그를 만나고 정말 깜짝 놀랐다. 예전에 보았던 그가 아니었다.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영화촬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그가 얼마나 핸섬해졌는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190센티의 큰 키에,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던 인상이 사랑스러운 느낌마저 들 정도로 경쾌해 보였다. 작고 날카롭게 보였던 눈은 관세음보살 눈을 보는 것처럼 갸름하고 깊고 안정적이었다. 어머, 저렇게 잘생겼었나 하는 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멋있어 졌다'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다. 만나는 동안 내내 잘 웃고 편하게 절을 하게 된 동기와 효과 등을 얘기했다.

그는 고3 때 가출을 했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한창 시험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부모님 두 분의 불화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그가 '도저히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았다. 조용히 공부를 하거나 그게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했다. '아, 집을 나가는 방법도 있었구나.'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날 밤 경상도에 있는 집을 나왔다. 친구에게 차비를 빌려 서울로 왔다. 서울 역 근처, 목사님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돌보아주는 곳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충고했다. 그래도 네가 어디에 있는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놓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어머니께 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전화했다. 바로 몇 시간 만에 어머니가 달려왔다. 집으로 가자는 어머니께 안가겠다고 버텼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다 좋다.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다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지난 번 글로 소개했던 선림사 보우법사다. 보자마자 자비한 관세음보살 같은 큰어머니를 만난 듯했고, 법사님의 지도로 절을 하기 시작했다.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딱딱한 것이 차츰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달기만 해도 쓰라렸던 상처가 줄어드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지닌 아픔이 꼭 부모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조차 없이 먼 시간으로부터 있어왔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다. 절을 할수록 자신의 업장이 가벼워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108배부터 시작해서 시간만 나면 3천배를 했고, 3천배 백일기도, 군대에 가기 전에도 3천배를 백일 동안 했다. 그 뿐 아니다. 군대에 가서도 상관에게 얘기해서 매일 3백배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꾸준히 절을 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 전공을 바꾸었다.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 들어가기 어렵다는 한국예술종합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7년 정도 절을 하니까 고통의 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백 마디의 그 어떤 말보다 108배가 가지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6.14~2017.6.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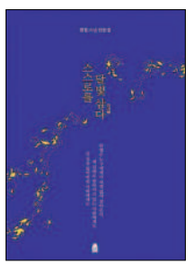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일상 속에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스스로를 달빛 삼다 自月明

원철 지음 | 휴 펴냄 | 1만 4천원



이 책은 산사서 돌아와 다시 도심 생활을 시작한 '노마드 스님' 원철 스님 〈사진〉 산문집이다. 스님이 일간지와 여러 종교매체에 응제(應制)받아 쓴 글들을 '자월명' 이란 주제에 맞게 모으고 다듬었다. 이 책에는 도시와 산속을 오가는 수행자로서의 일상과 경전 및 선어록에 대한 탐구,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공간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다. '깨어 있는 마음' '조화로운 삶' '삶의 이면' 을 바라보는 스님의 시선과 담박한 무심(無心)의 언어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자기 성찰, 그리고 반짝이는 깨우침을 함께 전하며 현대인의 꽉 막힌 가슴의 문을 조용히 두드린다.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이란 말이 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이르는 말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원래는 '등(燈)' 이 아니라 '섬(島)' 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라고 하였는데 한역하면서 '섬' 을 '등불' 로 바꾼 것이다. 원철 스님은 평소 이 '등불' 을 '달빛(月)' 으로 바꾸어 '자월명(自月明)' 이라 읊조리곤 했다. 즉 '스스로를 달빛 삼아 자신을 의지하라' 고 한 것이다. 지혜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 비 개인 뒤 하늘의 달처럼 맑고 밝은 모습으로, 스스로 경계하고 깨우치며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달빛 삼아 지낸다면 그나마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신간 제목을 '스스로를 달빛 삼다' 라고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원철 스님은 서문을 통해 "응제(應制)라고 했던가. 임금이 신하에게 글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그처럼 이 책은 대부분 상전(?)들의 부탁으로 쓴 글이다. 청탁받은 그날부터 전전긍긍이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마감이 가까워질 무렵 섬광처럼 '글 고리' 가 스쳐 지나간다. 책을 읽다가 신문을 보다가 혹은 차를 마시다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멍때리다' 가 번쩍하는 그 고리를 낚아채야 한다. 이후 씨줄과 날줄이 얽히며 사이사이에 살이 붙는다. 탈고한 뒤 잠깐이나마 해탈의 경지를 맛보기도 한다. 글로 인하여 윤회(輪廻)를 반복한다고나 할까."라며 글쓰기의 고뇌를 토로한다. 스님은 응제 때마다 지나가는 혼잣말로 '절필' 을 운운하다가도 한편으론 혹여 모자랄까 봐 틈틈이 글을 써두어 곁에 감춰두곤 했다. 이런 자기모순으로 인해 한 권의 소박한 책을 만들 수 있었노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달빛삼아 자신을 의지하라"
저자 수행, 경전과 선사들 이야기 모아
밖으로는 남과 다투지 않는 덕 펼쳐라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수행자 원철 스님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자유로운 생각, 수행에 대한 의미와 경험담을 통해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돌아보게끔 안내한다. 강요나 따끔한 충고의 말은 없다. 유쾌하고 때론 거침없는 언어로 세대를 아우르며 마치 한지에 먹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할 뿐이다. 또한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졌던 불교 경전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선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흥미롭게 전하면서 주옥같은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끔 한다. 자기다움, 인연의 소중함, 독서의 즐거움, 공부의 이유, 관계의 조화, 진정한 수행, 중도(中道)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스님은 숨겨진 보석을 찾듯 이 세상을 둘러싼 자연과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배인 집, 가장 이상적인 수행 공간인 절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해와 달, 산과 바람, 하늘과 땅 등 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건축을 읽어내면서 자신을 돌보는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에 대해서 되짚어본다. 해박한 지식과 문학성을 기반으로 한 스님의 사색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이 책에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랑말랑한 언어도 없고 힘든 인생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거나 짚어주지 않는다. 다만 "좁쌀처럼 흩어놓은 많은 글 가운데 한 편 아니 한 줄이라도 남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구절이 있다면 장강(長江)의 청량한 물 한 모금 역할은 할 터이다. 잡서(雜書)의 한 줄이 남들에게 한 줄기 섬광으로 이어진다면 때로는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노릇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는 스님의 말처럼, 공감을 일으키는 책의 한 구절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선인들의 지혜를 법신(法身, 불법을 완전히 깨달은 부처의 몸) 삼는다면 하늘의 달처럼 밝고 맑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원철 스님은 책 속에서 조언한다. "알고 보면 삶이란 그렇게 단순치 않다. 살다 보면 우애 때문에 금을 버려야 할 경우도 있고, 삼 때문에 금을 버려야 할 상황도 만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애도 살리고, 삼도 버리지 않으면서, 금까지 손에 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복잡한 셈법이다. 도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의식주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더불어 대중 생활을 하면서 의리를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애가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인정을 베풀었고, 옷이 필요한 자리에는 가차 없이 삼을 선택했으며,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는 과감하게 금을 풀었던 것이다. 고정된 법칙이란 절대로 없다"라고. **김주일 기자**

▲저자 원철 스님은?
경남 합천 해인사서 1986년 머리를 깎고, 해인사, 실상사, 은해사 등서 수행하고 경전과 선어록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3년여에 걸쳐 〈선림승보전〉 총 30권을 국내서 처음 번역한 스님은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중과 함께하는 경전법회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월간 해인〉 편집장을 맡으면서 〈불교신문〉 〈달마넷〉 등의 칼럼을 통해 '글 잘 쓰는 이' 로 통한다. 시원시원한 글과 해박한 경전지식으로 인해 빼놓지 않고 읽어볼 만한 칼럼으로 손꼽힌다. 현재 조계사에 머무는 스님은 산과 도시가 둘이 아니라고 믿고, 도시에 살아도 산에서 머물던 마음을 늘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가끔 마음의 고향이며, 젊은 학인시절을 보낸 해인사로 가서 산승의 향기와 색깔을 듬뿍 묻혀 도심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佛法에 쉽게 다가갈 키워드 '법성게'

고쳐 풀이한 법성게

학송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화엄경〉은 법화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쌍벽을 이루는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교리나 사상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말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화엄의 사상을 210자로 농축해 게송으로 표현한 것이, 해동 화엄종의 초조인 의상대사의 법성게 이다. 본서는, 이처럼 한국불교서 거의 경전처럼 중요시된 법성게 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조정해 새롭게 풀이한 획기적인 저서이다. 저자의 진리를 향한 탐구정신과 통찰이 배어 있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정수로 들어가는 방법과 안목을 새롭게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광대무변한 우주적 드라마와 그 실상이 담긴 '대방광불화엄경' 의 무진세계를 단 210자의 게송으로 드러낸 의상대사의 법성게(法性偈)는 예로부터 한국불교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의상 이후 한국불교의 학풍이 주로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법성게는 〈화엄일승법계도〉의 게송 부분을 말하며, '법성원융무이상'으로부터 시작해 '구래부동명위불'로 끝나는 7언 30구 210자의 시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그 순서도 정확하게 〈화엄경〉 내용 전개 순서에 따라 해석돼 왔으며, 이를 당연시해왔다. 그런데 이 책은 법성게에 대한 해석을 전면적으로 재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글자의 위치까지 변동하는 대담한 시도를 감행한다. 실로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사건'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와 논리로 법성게를 이렇게 글자 위치까지 바꾸며 재해석하는 것인가 또한 그것은 과연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오롯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먼저 '글머리' 서 법성게가 위없이 깊고 미묘한 부처님 말씀에 가장 쉬이, 가장 가까이, 가장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키워드의 하나이자, 모든 종교의 근본 교리를 변별할 수 있는 척도 내지 준거이자, 바른 종교와 그릇된 사교(邪敎)의 변별 준거가 된다고 천명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종교와 사상이념체제가 혼란한 인류의 위기상황서 법성게는 새 시대의 영성을 담지한 무궁한 창조력의 원천이자 핵이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저자는 법성게가 지닌 공능과 쓰임새가 현대 인류의 진정한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대승경론 등을 참고하여 법성게의 전개 순서와 번역을 현대적 상황과 이치에 맞도록 고쳐 풀이하고 있다.

제 1부에서는 법성게를 고쳐 풀이한 배경을, 법성게가 만들어진 경위와 과정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고친 내용과 그 이유를 제시한다. 이어 '고친 법성게' 란 이름으로 법성게의 내용을 새롭게 재배치해 번역 해석한다. 저자에게 기존 법성게는 첫 구절 첫 대구, 즉 '법계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부터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도저히 다음 대구로 의미가 연결되지 않았다. 고심 끝에 다른 구절과 순서를 바꾸었더니 법계의 실상을 밝혀주는 법성게 본래의 의미가 살아나면서 논리적으로도 온전한 풀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단순한 한자풀이가 아니라, 화엄의 방대한 사상이 210자에 압축된 만큼, 글자와 글자 구절과 구절 사이에 숨겨진 뜻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함께 읽어내고자 했다.

제 2부에서는 '법성게의 공능과 쓰임새' 를 검토함으로써 제 1부서 새롭게 풀이한 법성게의

모든 종교 근본 교리 변별할 준거
'법성게의 공능과 쓰임새' 도 검토

의의와 가치를 현대 인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유의미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인류가 이룩해온 다양한 사상들의 핵심을 소개하고 이를 법성게로 통합하고 승화시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즉 신라시대 명효 스님의 해인삼매론을 필두로, 천부경의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과 만법귀일(萬法歸一) 사상을 비교하고, 동학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법성게의 진성(眞性)과 대비하며, 선가의 여러 핵심사상과 대승불교의 교과서라 할 〈대승기신론〉 사상을 융합한다. 더 나아가 현대 영성가인 크리슈나무르티, 그리고 기독교 성경의 핵심구절들이 기존의 피상적 교리를 뛰어넘어 법성계의 사상과 맞닿을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종교간 소통과 화합의 길이 법성계의 원리에 의해 실현 가능함도 보여준다.

저자는 진리에의 목마름으로 치열한 수행과 학문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법성계의 위대한 진면목과 그것이 현대에 지니는 의미를 발견했으며, 나아가법성게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욱 유의미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현대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시도!

고쳐 풀이한 법성게

그 공능功能과 쓰임새



법성게의 게송 순서를 바꾸고,
한자를 재배치한 획기적 저서!

화엄의 사상을 210자로 농축한 〈법성게〉의
본뜻을 확연히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

학송 지음/신국판/무선/320쪽/15,000원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불교와 심리학의 융합을 위한 초석!

오래되고 중요한 과제인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무아의
문제에 대한 불교와 서구심리학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psychotherapy without the self

붓다와 프로이트

무아의 심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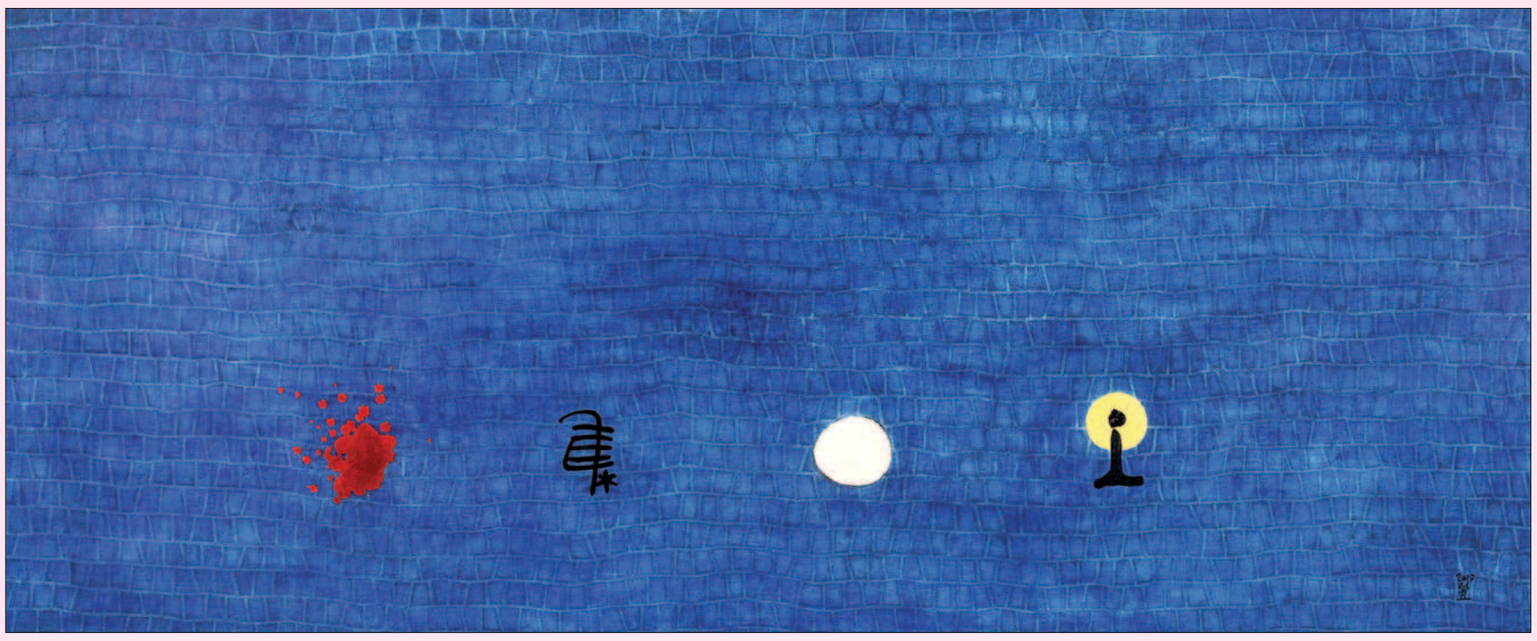


불교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양의 정신의학!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며
정신과 의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이 공부해온
서양의 정신의학과 심리(치료)학을 동양이라는 렌즈로 비춰본다.

마크 엡스타인 지음/윤희조 · 윤현주 옮김
국판/양장/336쪽/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을 표현한 작품 '고집멸도(苦集滅道)'. 임 작가는 푸른색 배경 뒤에 〈신묘장구대다라니경〉을 3번에 걸쳐 옮겨 적어 선의 극치를 표현했다. 227×94cm, 선지·수묵·옻칠, 2017

'共·觀·緣' 한량없는 선에 담다

〈공〉 〈관〉 〈연〉

임효 작가,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 기획초대전

"이제는 작업이 힘에 부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슈퍼마켓에서 장사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직 붓을 들고 있으니까요." 웃으며 얘기하지만 오른쪽 관자놀이에 붙인 자석이 그동안 노고를 그대로 드러낸다. 임효 작가(62) 이야기다.

2012년 예술의전당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지나치게 몰두해 자신을 혹사시킨 나머지 얼굴 오른쪽이 마비됐다. 그 후에는 종이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겁이 났다. 붓을 드는 것조차 망설일 정도였다. 하지만 임 작가는 붓을 꺾는 대신 조금 힘을 빼기로 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두꺼운 수제 한지는 잠시 제쳐두고, 선지(宣紙)를 펼쳤다. 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 작품 속에 담긴 의미는 더욱 깊어진 '선(禪) 중의 선'으로 거듭났다.

"화가에게는 '변화의 때'가 찾아옵니다.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도 노환으로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지자 가위질을 시작했잖아요. 저도 화풍에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직 붓을 계속 들기 위함입니다."

7월 1일부터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 1층에서 임효 작가의 기획초대전 '공(共)·관(觀)·연(緣)'이 개최된다. 임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고집멸도(苦集滅道)' '공심(共心)' '연(緣)' 등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임 작가의 작품들은 면면이 들여다보



'공심(共心)'. 274×172cm, 수제한지·옻, 2017

7.1~9.30 신작 외 30여점 전시
'고집멸도' 등 선지 작품 '눈길'
禪세계 더욱 깊어져 기대 모아
"물상 떠나지 않으며 떠나있어"

지 않아도 가만히 뿜어내는 심오하고도 묵직한 느낌이 있다. 어딘가 고독하고 추상적인 듯하지만 한 획의 선, 점 하나까지 허투루 그린 법이 없다. 그 숨겨진 의미를 알고 나면 경외심마저 든다.

그 중에서도 '고집멸도'는 사성제(四聖諦)의 가르침을 담은 작품이다. '고(苦)'는 빨간 피로, '집(集)'은 상형문자로, '멸(滅)'은 둥근 달로, '도(道)'는 부처가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든 모습으로 표현했다. 언뜻 이 네 가지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백미(白眉)는 푸른색 배경에 감춰져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경〉를 한글발음으로 3번 옮겨 적었다. 그 위에 옻칠을 여러 번 반복해 드러나지도, 감춰지지도 않은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냈다. 오묘한 기운이 마치 한량없는 우주 한 가운데 서있는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연리지1 연(緣)'은 평소 인연



'연리지(A branch-fused tree)1 연(緣)'. 124×158cm, 선지·수묵·옻, 2016

을 중요하게 여기는 임 작가의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난 작품이다. 무수한 점들과 네모를 이룬 선들은 세상을 이루는 수많은 인연들을 표현했다. 수묵으로 곧게 뻗은 연리지 나무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우리 모두 본래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임 작가는 설명한다.

이러한 임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 김찬호 경희대교육대학원 주임교수는 "자연 물상의 근원을 찾아 현대 추상화에 독자적으로 접목시키는 조형적 실험의식이 느껴진다. 형제의 골격 또한 역설적이게도 물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떠나 있다"면서 "그의 작품은 현상을 보면 현상이 보이고,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임 작가가 화단에 들어선지 어느덧 35년의 세월이 지났다. 매너리즘에 빠질 법도 하지만 임 작가는 여전히 고정된 틀 없이 기존의 것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데 서슴없다. '자신만을 위한 그림'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매일 작업전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위해 기도도 한다. 끝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임 작가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매일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합니다. 제 마음을 담아야 그림을 본 사람들의 마음도 울릴 수 있겠지요. 아픈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도울 수는 없지만, 붓을 놓는 그날까지 그림으로 치유를 주는 작가이길 바랍니다."

7월 1일 개막식은 오후 4시 시작된다. 일점 김환수 선생의 대금 연주와 향산 강재일 교수의 시조창 무대가 식전 공연으로 마련됐다. 또한 7월 22일, 8월 12일, 9월 2일 공연과 김찬호 경희대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의 작품소개 시간이 이어진다. 전시는 9월 30일까지. 박아름 기자



임효 작가는… 전북 출생으로 1981년 홍익대 미술대 및 1985년 동대학 교육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986년 과천국립현대미술관 개관기념전에 출품하며 한국화단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현재 유엔 ESCAP본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전주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한국은행, 금호미술관 등에 주요 작품이 소장돼 있다. 특히 상하이·취리히·바젤·파리·이스탄불·피아·싱가포르 등 전 세계 국가에서 전시회를 열며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만다라에 녹인 일곱빛깔 에너지

김성애 작가 11번째 개인전
6월 21~27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불화, 만다라(Mandala). 뚜렷한 경계와 강렬한 색채, 장엄하고도 묵직한 느낌이 일반적인 만다라의 특징이다.

하지만 김성애(59) 작가가 25년간 그려온 만다라는 일반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 무엇이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듯하고 밝다. 그러면서도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담고 있는 듯 압도적인 깊이가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김 작가의 만다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성애 작가는 6월 21~27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11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여 년간 그린 19점의 만다라를 선보인다.

김 작가의 만다라는 빨주노초파남보의 7가지 색을 활용해 '차크라(Chakra)'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차크라는 인간 신체의 여러 곳에 있는 정신적 힘의 중심점 가운데 하나로,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또는 '원반'을 의미한다. 김 작가는 각 색깔마다 'Red-탄생·힘·열정' 'Orange-행복·창조·치유' 'Yellow-지성·명료·기쁨' 'Green-사랑·조화·평화' 'Blue-이성·진실·이해' 'Indigo-직관·통찰·판단' 'Violet-영감·신비·변화' 등의 의미를 부여해 만다라로 승화시켰다.

김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는 만다라를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북인도 여행 중 만다라를 그리는 티베트 스님들을 보고 곧장 매료됐으나, 김 작가는 수행자가 아닌 예술인으로서 자기화가 필요했다. 조소를 전공했기 때문에 종이 위에 종이를 덧붙이고, 비즈 장식으로 마무리하는 등 자신만의 만다라 기법을 찾아나갔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한차례 더 변화를 꾀한 것들이다. 25년간 1000여점 가까운 만다라를 그리는 동안 아크릴 물감과 핸드메이드 페이퍼 사용을 고집했지만, 이번에는 모두 캔버스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렸다. 이 때문에 김 작가도 11번째 개인전의 콘셉트를 단연 '변화'라고 말한다.

"지금은 작품생활 중에서도, 또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년이면 60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장이 시작되겠죠. 그래서인지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가짐도 남달랐어요. 제 안의 에너지 파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벌레와 고치였던 나비가 마침내 날게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날개를 펼쳤다고 생각해요. 제 변화의 에너지를 관객들과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애 작가는 이화여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 인도 샨티니께딴 타고르대학 비스바 바르티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부터 인도에서 머물며 만다라에 매진, 이후 한국·인도·이태리 등 여러 국가를 오가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01년 인도 오로빌 문화센터·서울 한서 갤러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회 개인전을 연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만다라(Violet)-신비, 완전함. 72×91cm, 2017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日 진언종의 성쇠 간직한 古刹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⑪ 도지(東寺)

교토에는 기요미즈데라(淸水寺), 킨카쿠지(金閣寺)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찰이 많지만, 교토의 상징으로 사진이 자주 나오는 풍경이 도지 오중탑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전차나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오중탑이 보이면 교토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

도지 창건에 대해서는 수도를 나라 헤이조쿄(平城京)에서 교토로 천도한 역사적인 배경부터 봐야 된다. 781년에 즉위한 간무(桓武)천황은 784년에 수도를 현재 교토부 서쪽에 위치하는 나가오카쿄(長岡京)로, 794년엔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하였다.

헤이안쿄는 당나라 수도인 국제도시 장안(長安, 현재 서안)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남북 약 5.2km, 동서 약 4.5km이며, 남북대로(南北大路)와 동서대로(東西大路)가 마치 바둑판처럼 정연히 만들어졌다. 또 도성의 남대문인 라조몬(羅城門)을 중심으로 양쪽에 거대한 호국의 역할을 하는 관사인 도지(東寺)와 사이지(西寺)가 창건되었다. 천도 당초에 도성 안에 있는 관사는 도지, 사이지 뿐이고 다른 사찰은 건립이 되지 못했다. 아마도 권력이 있는 나라 사찰의 진출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창건된 도지이었지만 가람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도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구카이(空海) 대사가 간무천황의 아들인 사가(嵯峨)천황에게 823년에 도지를 하사받았을 때부터이다.

진언종(眞言宗)의 개조이고 문학, 서예, 교육, 건축, 관개용수, 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구카이는 774년에 지금 우동으로 유명한 시코쿠(四國) 가가와현(香川縣)에서 태어났다. 18세 때 관료 양성 기관에서 공부하다가 도중에서 그만두고, 804년에 당나라 유학을 할 때까지 상세한 활동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젊었을 때부터 여기저기서 산악 수행을 쌓고 나라에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 구카이가 도지를 하사받고 입적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큰 받침이 된 거라고 생각된다. 출가는 20세 때 민간에서 했으나 국가가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당나라 유학 직전에 도다이지에서 수계를 받고 정식적인 승려가 되었다.

804년에 구카이는 견당사(遣唐使)에 따라 당나라에 갔다. 구카이가 탄 배는 폭풍을 맞아 표류했기 때문에 원래 상륙하려고 하던 영파(寧波)가 아니라 복주(福州)에 표착했다. 그러나 상륙 예정지가 아니어서 상륙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때 구카이가 대사를 대신하여 사정을 쓴 훌륭한 내용인 탄원서를 만들어서 상륙 허가를 받았다. 동년 12월에 장안에 도착했고 다음해에는 청룡사(靑龍寺)의 밀교 스승인 혜과(惠果)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밀교는 중국을 통해서 구카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일본으로 경전도 전래되었고 밀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구카이도 일본에서 밀교 경전을 접하고 밀교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당나라 유학을 결정했다고도 추측된다.

혜과는 구카이에게 밀교를 가르치고 구카이를 수계자로 삼아 경전, 만다라, 밀교 법구(法具) 등의발을 전했다. 구카이를 만난지 6개월 후 혜과는 입적했다. 구카이는 806년에 귀국했다. 당시 유학승 유학 기간이 20년이라는 장기 유학이었지만 구카이는 단 2년 밖에 유학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카이가 당나라에서 배운 내용이 깊고 혜과에게 물려받은 밀교 자료는 풍부하고 화려한 것이었다. 구카이는 당나라에서 가져온 이런 서적이나 밀교 법구 등을 기록한 〈어청래목록(御請來目錄)〉을 조정에 제출했다. 사가천황이 즉위한 809년에 구카이는 교토 북쪽에 위치하는 산사 다카오산지(高雄山寺, 현재 신호사)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짧은 기간에 귀국한 것이 본래는 죄가 되는 일이고 다시 교토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입경(入京) 허가가 내린 확실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어청래목록〉의 깊고 풍부한 내용으로 나타난 구카이의 위대함이 조정이나 불교 관계자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816년엔 호국을 기

진언종 문을 연 구카이 대사가
사가천황에게 하사 받은 '東寺'
日 진언종 중심 사찰로 발전해

원하는 곳, 수행을 하는 도량으로 와카야마현(和歌山縣) 고야산(高野山)을 조정에게 하사받았다. 구카이의 활동이 더 바빠졌다. 고야산 건설 뿐더러 책도 잇달아 지어내고 고향 가가와현에서는 당나라에서 배운 최신 토목 공사 기술을 구사해 토목 공사를 지도하기도 했다.

823년에 구카이는 사가천황에게 도지를 하사받았다. 관사로 시작한 도지는 관사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진언종 중심 사찰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도지의 정식 명칭도 교오고코쿠지(敎王護國寺)가 되었다. 이것이 호국의 뜻인 동시에 밀교 경전인 교왕경(敎王經)에 유래되어 도지가 진언 밀교 도량인 뜻도 있다.

조정이 도지 건립을 구카이에게 맡기면서 50명의 진언승(眞言僧)을 도지에 상주시키고 다른 종파의 스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다른 종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밀교를 더 올바르게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구카이의 생각에 의해서였다.

현재 일본에서 사찰마다 종파가 정돈되어 있지만 당시 일본 불교는 교학의 성격이 강하고 나라 사찰에서는 종파를 넘어 스님들이 함께 거주하고 학문을 닦는 상황이어서 도지가 순수한 진언 밀교 사찰이 된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다.

825년엔 강당(講堂) 건설에 착수했다. 강당 안에는 밀교 경전에 의거한 구카이의 독자적인 사상을 표현한 21구의 불상으로 구성된 입체 만다라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압도당한다. 중앙에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불상이 5구가 있고, 그 왼쪽에는 보살 5구, 오른쪽에는 부동명왕(不動明王)을 중심으로 5대명왕이 있다. 주요한 15구 불상 주변엔 범천(梵天)과 제석천(帝釋天) 그리고 사천왕(四天王)이 배치되어 있다.

20대에 처음으로 도지에 갔을 당시 교토를 대표하는 오중탑 밖에 모르는 상태여서 강당에 들어갔을 때, 충격을 받았다. 21구 가운데 6구가 15세기 후반에 소실돼 다시 제작한 것이고 나머지 15구가 헤이안 시대에 제작한 것이다. 다시 제작한 6구 가운데 5구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나머지 불상은 16구는 모두 국보로 지정돼 있다. 특히 제석천이 '꽃미남'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 강당 입체 만다라는 도지 순례의 하이라이트다.

826년엔 구카이는 오중탑 건립에 착수했다. 원래 나라 야쿠시지(藥師寺) 동서 양탑처럼 탑을 2개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구카이는 진언 밀교 사상에 의하여 그 계획을 바꾸었다. 탑은 큰 탑을 동쪽에 하나만 세우고 서쪽에는 인간이 대일여래가 될 의식 즉 현세에 있는 육신 그대로 곧 부처가 되는 즉시성불(卽身成佛) 의식을 하는 곳인 간조인(灌頂院)을 건립하려고 했다. 오중탑, 간조인 모두 구카이가 자신의 눈으로 완성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9세기 후반에 오중탑이 완성되어 창건 당시에 계획된 도지 가람이 다 완성되었다.

지금 도지에서 여러 행사가 있는 가운데 1월 8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는 고시치니치미시호(後七日御修法)라는 천하태평, 오곡풍요 등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다. 이것이 원래 당나라 궁중에서 진행했던 밀교 의식을 일본에서도 실천하려고 구카이가 소원을 상주해 조정에게 허락을 받아 실현된 것이 시작이다. 835년 1월 구카이는 새로 세우진 궁중진언원(宮中眞言院)에서 의식을 행했다. 이 행사는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궁중에서 진행되어 왔고 메이지시대 때 일시 중단했지만 지금도 간조인에서 계속되는 천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행사다.

현재 도지에 창건 당시에 세워진 당탑(堂塔)이 없고 후세에 재건된 것이다. 구카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도지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재건된 당탑이 창건 당시의 위치나 규모를 전하고 있어 헤이안 시대에 건립된 도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

그런데 헤이안 시대에 도지와 함께 관사로 시작한 사이지가 일반 교토 답사 가이드북에도 등장하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사이지는 13세기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재건되지 않았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아마 사이지가 관사로 남았던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9세기 후반에는 국가 재정이 악화해지고 이에 따라 관사도 쇠퇴했다. 살아남은 것은 힘이 있는 종파에 속하는 사찰들이었다. 도지가 구카이로 인해 진언종 사찰이 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도지(東寺)의 오층탑의 모습. 교토를 대표하는 이미지다. 높이가 54m에 달해 일본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12월 21일 열리는 풍물 벼룩시장 '시마이고보'의 모습. 도지에서는 매달 21일 풍물시장이 펼쳐진다.

도지 답사 안내

가장 가까운 역이 '긴테쓰 도지'역이다. JR교토역에서도 멀지 않아 걸어갈 수 있다. 강당 북쪽에 있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면 금당, 강당을 배관할 수 있고 벚꽃을 비롯한 예쁜 꽃이 피는 정원도 즐길 수 있다. 오중탑은 높이 약 54.8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오중탑이다. 4번 소실되었고 현재 오중탑이 17세기에 재건된 것이다. 평소에 외관만 구경할 수 있지만 특별 공개시기에 가면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유료). 봄(3월 20일~5월 25일), 가을(9월 20일~11월 25일) 특별 공개를 하는 보물관에는 불상, 구카이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밀교 법구 등을 볼 수 있다(유료).

매월 21일에 열리는 벼룩시장 고보상(弘法さん)도 재미있다. '고보'는 구카이의 시호이다. 사찰에서 열리는 벼룩시장 중에서도 고보상이 규모가 크고 종류도 식품, 도자기, 골동품, 잡화, 옷 등 다양하다. 특히 12월 21일에 열리는 시마이고보(終い弘法)는 연말 풍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佛事의 모든것
대원불교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오늘

오늘도 살아남았구나. 오늘을 견뎌낸 너의 입가엔 온 종일 지저귄 너의 목소리가 보이고, 고단하게 내려놓은 너의 날개엔 온 종일 지나온 하늘이 보인다. 쉴 새 없는 너의 눈엔 온 종일 헤쳐 온 지구의 자전이 보이고, 한 삶을 짊어진 너의 두 다리엔 '오늘'이라는 두 글자가 보인다. 살아남은 것들만이 볼 수 있는 오늘. '오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사전 속에 있을까. 오늘은 저 멀리 석탑 위에서 '오늘'을 본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⑫ 〈반야심경〉 마지막 구절의 힘

힘들 때 부르자 "아제 아제 바라아제…"

아수라의 왕 비마질다라는 그 어머니가 임신한 지 8천년 만에 태어난 괴물이었습니다. 머리는 아홉 개였고 천 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손이 999개였습니다. 다리는 여덟이었습니다. 입으로 불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진흙과 연뿌리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비마질다라의 어머니도 머리 999개, 눈이 천 개인 여자 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괴물이 어머니 괴물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상대가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어미가 괴물이니 네가 괴물로 태어났구나. 누가 괴물에게 시집오려 하겠니? 음악의 신 건달바 왕의 딸이 있단다. 모습이 예쁘고, 살결이 백옥 같다는구나. 몸에서 털구멍마다 음악이 흘러나온단다. 가서 청혼이나 해보자."

어머니 괴물이 건달바 왕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 비마질다라를 잘 아시지요? 모습은 나를 닮았지만 아수라의 왕인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한 것이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8천년 뒤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비는 닮지 않고 어미만 닮아서 예쁘기가 천하제일이었습니다. 얼굴이 8만 4천 가지로 잘 생겼습니다. 앞모습이 8만 4천 가지로 잘 생겼고, 뒷모습도 8만 4천 가지로 잘생겼습니다.

"별 가운데에 환한 달 같구나. 참으로 잘 생겼다. 내 딸"하며 괴물 비마질다라가 좋아했습니다.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의 왕 제석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쁜 상대가 있다면 결혼을 해야겠다. 얼굴, 앞모습, 뒷모습이 각각 8만 4천 가지로 예쁘다면 짐작이 돼. 아수라왕과는 자주 전쟁을 해 온 터이지만 그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

마음을 먹은 제석이 아수라왕 비마질다라에게 청혼 편지를 썼습니다.

— 비마질다라 대왕님!

하늘나라 제석궁에 사는 제석입니다. 대왕님께 25만 2천 가지가 예쁜 공주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공주님께 청혼을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석 올림

제석은 청혼 편지를 신하의 손에 들려서 수미산 아래쪽, 아수라의 궁전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비마질다라가 씩 웃더니, 답장을 썼습니다.

—내 딸을 예쁘게 봐 줘서 고맙네. 그런데 혼인을 허락하기에 앞서 조건이 있네. 제석은 하늘 왕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자네가 가진 그 많은 보배궁전에서 칠보궁전 하나만 나에게 줄 수 있겠나? 그렇게만 해 준다면 혼인을 그리로 정하겠네.

비마질다라는 계급이 낮은 귀신의 왕이지만 예쁜 딸을 미끼로 해서, 감히 하늘 왕 제석에게 말을 낮추었습니다. 제석은 그래도 좋다며 신통력으로 칠보궁전 하나를 아수라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좋은 칠보궁전을 갖게 된 아수라 왕은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잘된 일일까요?



그림 · 강병호

이로부터 아수라 왕의 딸은 하늘나라 왕비가 돼, 하늘 궁전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수라의 궁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전부터 제석 임금을 모셔 온 많은 천녀들이 아수라의 딸 마음과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나를 밀어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쩌지?' 그렇게 생각하니 곧 그렇게 될것만 같았습니다. 급했습니다.

싸움 잘하는 아수라 군사로 남편을 길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수라의 딸은, 아버지 아수라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 아버지! 우리 제 서방, 길들여주세요. 주위에 미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녀들과만 어울립니다. 그 버릇 고치게 해주세요.

딸의 편지를 받은 비마질다라는 화를 불끈 내며 사위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 제 서방에게 경고하네. 천녀들을 곁에 두지 말 것. 내 딸 아닌 여자들과는 말을 하지 말 것. 아니면 전쟁일세. 알겠나?

경고장에는 제석이 들어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비마질다라는 사위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수십만 명, 아수라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 제석궁으로 아수라의 군사가 개미 떼처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석은 신하와 군사 우두머리를 제석의 궁전 선법당으로 불렀습니다. 부처님 쪽을 향해 향을 피우며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반야심경〉에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끝 구절에 힘이 있지요. '이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진언이며, 가장 밝은 진언이며…' 부터 끝까지에 힘을 주어 외어봅시다. 적군이 물러날 겁니다."

한 사람 신하의 말에 모두 〈반야심경〉을 소리 맞춰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미산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야심경〉 독송 소리에 맞추어 사왕천 저 밑으로 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개미떼처럼 수미산을 기어오르던 수십만 아수라 군사가 칼 비를 맞고, 수미산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의 힘에 못 이긴 것이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

수십만의 개미떼, 아수라의 군사가 수미산 밑 아수라 나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의 힘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 육비품(六譬品)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